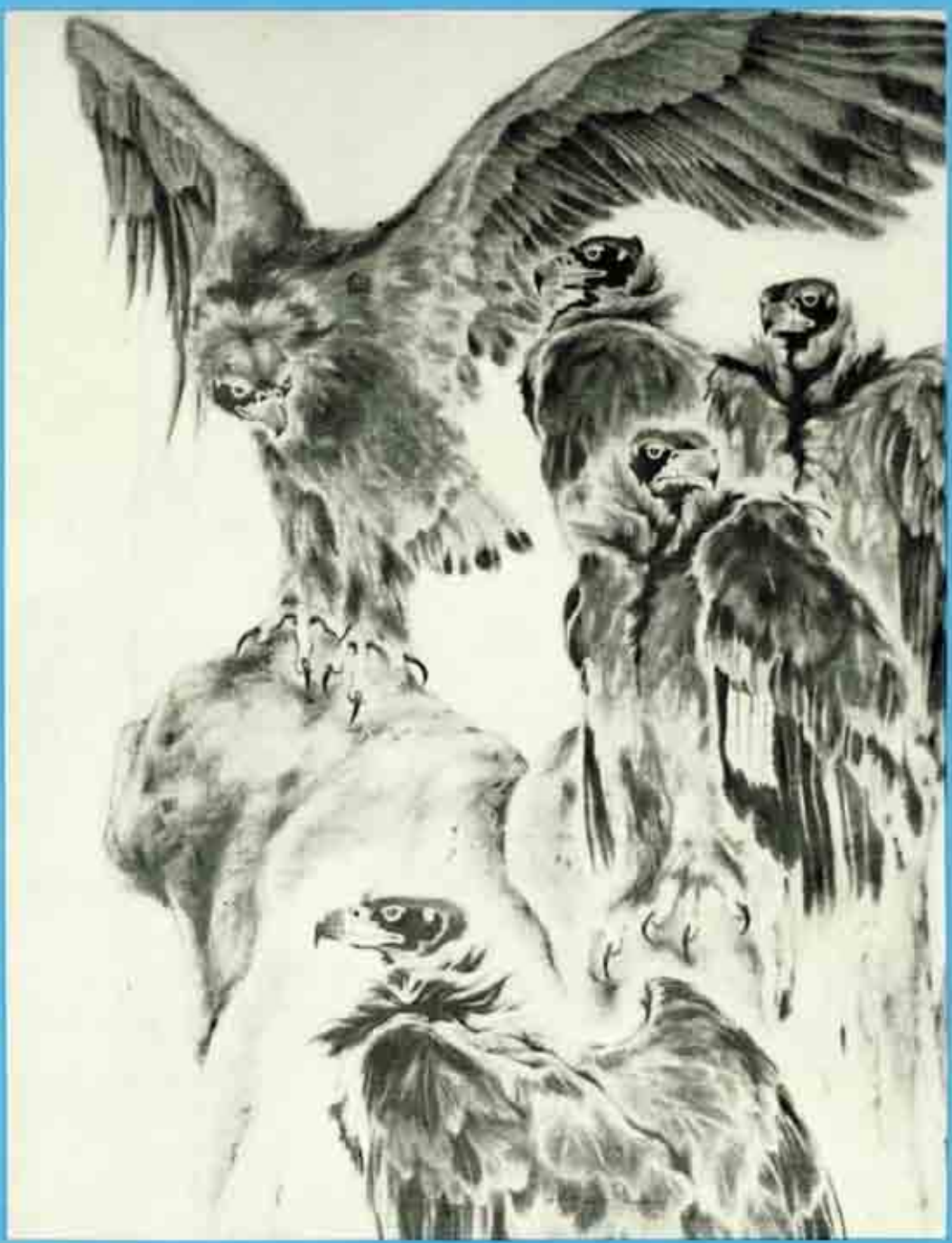
空軍

1983

AIR FORCE



공무원 윤리 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 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 全斗煥대통령 韓·터키 頂上会談 □



全斗煥대통령은 지난 12월 21일 청와대에서 訪韓한 케난·에브렌 터키 대통령과의 韓·터키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확대방안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全斗煥대통령 부대시찰 □

全斗煥대통령은 세밑을 맞이 부대를 시찰 장병근무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82·12·14 제3758부대)





—空軍 第183号—

卷頭言 …… 政訓監 姜 容 求 (2)

新 年 辭 …… 參謀總長 金 相 台 (4)

日本의 歷史歪曲이 주는 敎訓 …… 文 道 彬 (8)

特輯 / 새歷史 創造의 길

아프리카 經濟開發 協力의 意義와 展望 …… 宋 起 東 (13)
西独의 政治敎育 …… 박 순 영 (18)
올림픽 理念을 생각한다 …… 張 周 鎬 (23)
아프리카 外交의 意義와 成果 …… 金 寅 植 (29)

西欧 및 東欧의 共産主義 …… 李 聖 根 (47)
폴란드의 現実 …… (52)

바른 民族史觀 定立의 必要性 …… 柳 洪 烈 (35)

사진과 生活 …… 윤 혁 태 (95)



航空·軍事·科学

이란·이라크戰爭의 敎訓 …… 崔良洙 (60)

未來의 戰術 戰鬪機 …… 尹炯基 (69)

最新 航空用 複合材料 …… 尹龍鉉 (75)

現代戰下의 電子戰 …… 成信模 (82)

韓国人의 孝思想 …… (91)

敎養講座

清白吏 精神 …… (101)

殺身成仁의 精神 …… (102)

生活의 知慧 딸국질이 생길 때 …… (51)

漫 画 …… 〈돼지해를 점친다〉 …… 鄭雲耕 (58)

告 悔 師 …… 〈短 篇〉 …… 헤르만 헷세 (103)

金相台 참모총장은 각 전방부대를 순시, 영공방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의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金相台 參謀總長 部隊巡視

82. 11.



진술공수 공중투하 시범훈련 실시

진술공수 공중투하 시범훈련이 지난 10·26일 강원기 참모차장을 비롯 해군 9특전UDT부대장, 육군 7-1정보통신대장 등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특전으로 실시되었다.

힘과 기와 단결을





◇사병의 날 기념 제2회 참모총장기 쟁탈 부대대항 체육대회 실시◇

(82. 10. 14)







◇제1회 참모총장배 쟁탈 비행대대 조종사 정구대회 개최◇

지난 87. 11. 26일 김상태 참모총장배 쟁탈 비행대대 조종사 정구대회가 주오지휘관 참모와 많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재경지구 군무원 친선
추계 체육대회 개최◇

: 10. 27. 본부 제1연병장)



시민 위안 공군군악연주회 개최

평화의대로는 지난 11월 27일 군관계관 및 3천여 서울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시민 위안 군악연주회를 개최했다.

◇정신전력 성공사례 및 연구논문 발표회 개최 (92. 11. 12.)

본부는 정훈정신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부대 정훈정보과 관계자회관 및 장병 정신전력의 창의적 강화를 92년도 정신전력 성공사례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空軍

제 183 호

—— 1983년 제 1 호 ——

參謀總長 統率方針

制空統一 이룩하자

人和團結

人機鍊磨

見敵必勝

空軍本部

卷 頭 言

12月의 意味

政訓監 大領 姜 容 求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른 줄 안다고 하지만, 한 장 남은 달력 앞에 서니 흘러보낸 한 해의 時間이 얼마나 빠른가를 실감한다.

꿈 많은 少女처럼 분에 겨운 기와집을 몇 채씩 짓지 않고서는 못배기는 正初의 設計圖는 어느 새 한 밤에 얼어버린 고드름마냥 싸늘하게 매달려만 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은 언제나 우리에게 쓸쓸함과 허무감을 안겨다 준다.

그 못다한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인 한 해의 일들을 넌지시 되돌아 보고는 아쉬워하며 뉘우친다.

그러나 12월은 결코 썰렁하지만은 않다. 한 해를 야무지게 마무리하고 매듭짓는 生活의 決算의 달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제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며, 봄은 자기 차례를 건너 뛰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12월은 새해의 1月이 지켜야 할 約束의 달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영원히 돌고 도는 永劫回歸라는 거창한 理致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해가 열 두달만에 물러서고 3백 65일만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天理를 안다. 또 그때마다 푼득 늘어난 年輪의 주름살을 매만지며 잠시나마 人生의 無常함에 잠기기도 한다.

그러기에 마지막 달인 12월의 意味에는 서글픔이나 無常함, 그리고 아쉬움과 反省만이 아니라 約束과 새것을 기다리는 希望과 期待가 있는 것이다.

또한 꽁꽁 얼어붙은 땅 밑에는 새봄을 장만하는 만물의 양동이 고동치고 있다. 그러기에 겨울의 모진 朔風 속에 도사린 太古의 소리를 듣고 내일의 따사로움을 기약하고 있는 오늘의 現實에 最善을 다하는 슬기를 壬戌年을 보내며 생각해 본다.

이제 머지 않아 正義로운 民主福祉國家에의 힘찬 行進을 계속해야 할 새해!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장소에서 가면 다시 오지 않는 時間 속에서 最善을 다하는 努力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詩人이 찬미했듯 "東方의 밝은 빛"으로 昇華되리라.



新 年 辭

參謀總長
空軍大將 金 相 台

親愛하는 將兵 및 軍務員 여러분!

「內實과 躍進」을 다짐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本人은 먼저 「完璧한 制空態勢 確立」에 헌신적인 努力을 경주해 준 將兵 및 軍務員 여러분의 노고를 衷心으로 치하하면서, 空軍家族 여러분과 家庭에 신의 가호와 祝福이 가득하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격변하는 國際情勢와 經濟的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의 國家는 착실하게 內實을 다지고, 힘찬 전진을 거듭해 왔읍니다.

특히, 全斗煥 大統領 각하의 아프리카 4개국 및 캐나다 순방은 일로 躍進하는 祖國의 참모습과 성장된 國力을 世界에 과시한 것이었으며, 아시안 게임에서 북괴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綜合 3위 목표를 달성한 것은 우리의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었읍니다.

우리 空軍도 國産戰鬪機 제공호를 생산하여 作戰任務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空對地 및 空對空 戰鬪訓練場을 완성했고, 防空體制 자동화사업 추진, 각종 作戰施設과 장비의 개선보강 및 최대의 訓練으로 실전 전력증강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 등 괄목할 만한 發展을 이룩하였음을 확신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재삼 치하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將兵 여러분!

금년 역시 國際情勢는 경제적 불황 속에서 강대국 간에는 군비경쟁 및 군사대국

화 그리고 自國의 實利追求 우선정책에 의해 개발도상국가는 어려운 고통을 받을 것이며, 군소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밀착된 친중공 노선을 걷고 있는 북괴는 보다 강력한 세습왕조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주변 군사정세에 편승, 기습적인 무력남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한 領空防衛態勢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읍니다.

本人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일년지계를 세우는 새해의 벽두에서 금년도를 空軍戰力 향상을 위한「內實 躍進의 해」로 삼고, 제공통일 목표달성을 위해 일로 정진하고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주적 領空防衛를 위한 戰力建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科學 및 항공무기 체계 발전과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북괴의 공중도발을 즉각응징, 보복하여 초전필승을 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군력 건설은 우리의 당면목표입니다.

따라서 신예 전투기의 生産 및 구매추진, 기지건설과 장비의 개선보강 등 각종 전력증강사업을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성과 장래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創意的인 努力을 경주하여 自主的 領空防衛를 위한 戰力建設에 最善을 다해야 하겠읍니다.

둘째, 全勝을 保障할 수 있는 最上의 戰備態勢를 유지해야 하겠읍니다.

장차 예상되는 戰爭은 우수한 空軍力을 앞세워 야간 및 악천후를 이용한 기습공격이 될 것이며 초전의 승패가 전승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가 초전필승의 制空態勢를 確立하기 위해서는 적 침공에 대한 조기탐지능력 향상과 최고의 임전태세를 유지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 및 악천후 상황 등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우리가 지닌 최상의 能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 전투요원과 후방지원 요원들에게 實戰과 같은 最大의 맹 훈련을 실시, 강한 精神力과 自信感을 부여하고, 각종 장비의 최상상태 유지와 전 요원의 정예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겠읍니다.

세째, 國防資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겠읍니다.

現代戰은 군수지원전이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國民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어려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군수관리를 통한 物資節用과 豫算管理를 이룩해야 하겠으며, 인적과실에 의한 무위의 전력손실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安全管理를 강화하고, 合理的인 人力管理를 통하여 戰力强化 및 軍의 사기진작과 團結을 도모해야 하겠읍니다.

네째, 能動的이며, 創意的인 指揮管理體制를 確立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空軍은 고성능, 고가의 장비와 고도로 전문화된 요원을 유기적으로 조직화

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보다도 전문적인 지식, 유능한 指揮管理能力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모든 指揮官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규정 절차에 따른 合理的인 指揮管理로 재임시의 공적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강력한 團結과 높은 사기, 엄정한 軍紀綱을 確立해야 하겠읍니다.

다섯째, 새시대 새 軍人像을 定立해야 하겠읍니다.

軍人의 精神姿勢는 곧 國家와 社會의 安全保障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國民의 軍隊로서 충성스러운 國家觀과 時局觀을 確立하고, 사기와 自信感을 함양하여 싸워 이기는 강한 精神力과 사생관을 확립해야 하겠읍니다.

또한 國家施策에 솔선수범하여 意識改革運動, 三大否定心理 追放 및 公務員 倫理憲障을 實踐하고, 反共敎育 및 經濟敎育 등 精神敎育을 强化 실시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는 멋지고 강한 새시대 새 空軍像을 定立해야 하겠읍니다.

親愛하는 將兵 및 軍務員 여러분!

일일지계는 새아침에 있고, 일년지계는 원단에 있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制空統一」을 위해 「內實躍進」을 이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할 것을 촉구하면서, 將兵 및 軍務員 여러분들의 건승과 家庭에 幸運이 깃들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1983. 1. 1.

日本의 歷史歪曲이 주는 敎訓

文 道 彬 〈서울新聞 論說委員〉

하겠다.

에 새로운 決意와 각오를 다져나가야

고 온 국민이 한데 뭉쳐 오직 國力培養

우리는 투철한 民族史觀을 再定立하

1. 日本의 역사왜곡이 던진 波紋

日本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마침내 다시는 이 땅에 日帝强占시대와 같은 민족적 치욕을 불러들여선 안된다는 다짐을 구현하는 독립기념관 건립운동을 비롯한 범국민적인 克日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日本은 그들의 2世교육용 역사교과서에서 日帝의 韓半島와 中國침략 부분을 「침략」대신 「진출」로, 「탄압」을 「진압」으로, 「출병」을 「파병」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의 옛 過誤를 사실과 다르게 美化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3·1독립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하고 일본군에 의한 중국의 南京대학살사건의 책임을 중국군에 轉嫁한 부분 등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옛 罪業에 아무리 관대해지려 해도 관대해질 수가 없다.

그들로 보자면 그것이 단순한 낱말의 수정일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韓國국민으로서는 피가 逆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에 대한 美化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權회복을 위해 日帝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우리의 先烈들과 죄없이 끌려간 徵兵 및 徵用희생자들의 영혼을 모독하는 중대한 역사의 왜곡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현 爲政者들은 그들의 2세 국민들 앞에 지난날의 죄업이 부끄러울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탕위에서의 교육이라야 2세를 위한 참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구나 남의 나라를 침략한 史實을 왜곡하여

2세국민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인류의 平和를 위해 國際的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 日本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터지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自由中國·中共 등 「아시아」의 被侵國들은 물론 全世界의 여론이 일제히 일본을 聲討하고 나섰던 것이다. 또 「나치」의 죄악상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오늘의 西獨교과서가 왜곡시정의 보기로 제시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日本정부는 당초 교과서 왜곡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시해 버리려던 자세였다. 즉 文部省(문교부)의 첫 반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입각한 교육적 배려의 檢定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일본의 國內문제이기 때문에 外國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수정할 수는 없다』는 이른바 內政干涉論에 입각한 냉담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閣僚는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오히려 日帝의 韓國식민지화가 당연한 것이었던양 强辯하면서 安重根의사를 「암살자」라고 부르는 妄言까지 告함으로써 우리의 국민감정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이리하여 급기야 日本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세계의 여론은 일본의 의도가 교과서 왜곡문제의 차원을 넘어 軍國主義 망상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는 심각한 外交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일본정부는 그들대로 많은 論難을 거듭한 끝에 지난 8월 26일 일본교과서의 문제된 부분을 일본정부의 책임아래 시정하겠다는 공식담화를 발표하고 같은 내용의 外交覺書를 우리 정부에 보내오기에 이른 것이다.

2. 日本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시정에 관한 공식태도는 우리가 기왕에 예상했듯이 鮮明하고 明快한 답변은 못되었다. 우리 정부가 「8·3備忘錄」에서 촉구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에 미흡함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밝힌 바 「정부책임아래」 既存檢定分은 85년에, 新規검정분은 84년에 수정하고 몇가지 경과조치를 장치한다는 문맥에는 猶豫되고 留保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인 함정을 의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日本정부의 공식태도가 우리의 뜻에 매우 모자라지만 시정의 기준을 「韓·日기본조약 정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일본측 약속을 주시하면서 그 약속이 어김없이 지켜지도록 우리의 外交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일본측 태도를 문제해결의 결과로 보지 않고 최종목표를 향한 한걸음의 전진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도 민족감정이 불같이 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여론은 그대로 이제부터의 진전을 지켜보는 把守의 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이번의 「통일된 견해」를 내놓기까지에는 그들대로 많은 迂餘曲折이 있었으며, 그 밑바닥에는 역사왜곡의 故意性이 아직도 상당히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현단계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얽힌 底意는 간단히 말해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政治·經濟·文化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이 일고 있는 이른바 「復古무드」에 발맞추어 일본 교육당국이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國家觀을 심어주어야겠다는 판단을 갖게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차대전 후 줄곧 自國의 安保를 美國에 떠맡긴 채 세계 각국과 貿易전쟁을 일으켜 가며 오로지 돈벌기에만 열중하여 세계 제2위의 經濟大國으로 부상한 日本에는 최근 확실히 새로운 變化의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自衛隊戰力의 증강, 平和憲法의 개정움직임, 天皇制부활을 주장하는 極右세력의 활보, 교과서 개편에 의한 軍國주의적 역사교육의 시도 등등이 그것이다.

우선 정치=군사적으로 볼 때 일복은 최근 수년간 蘇聯의 급격한 軍備증강이라는 주변정세를 배경으로 군사력을 현저히 증강시켰으며 앞으로도 이 증강추세를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집권 自民黨은 지난 7월 7일 黨內憲法조사소위원회에서 그들이 소위 平和憲法이라고 일컫던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① 군대로서의 自衛隊보유, ② 內閣總理大臣(首相)의 자위대지휘 감독권 강화, ③ 防衛戰爭의 合憲化 등을 明文化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로부터 1주일 후인 7월 14일에는 自民黨 防衛관계자 연석회의에서 GNP(국민총생산) 1% 이내로 설정된 防衛費上限線을 철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對政府건의안을 채택했다. 그런가 하면 美國이 일방적으로 日本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美日安保條約을 雙務조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집권당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경제면에서 보면 2차대전 이전까지 군사침략에 의한 領土확장에 주력해 오던 일본은 戰後부터는 경제침략에 의한 經濟大國 건설에 총력을 다해 왔다.

韓半島의 1倍半 밖에 안 되는 日本의 경제는 81년 현재 1조3백96억억달러의 GNP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GNP의 10%, 美國 GNP의 2분의 1, 우리나라 GNP의 17배에 해당된다.

日本이 敗戰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오늘날 이같은 經濟大國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個體보다 集團을 우선시하는 국민성 先進기술을 재빨리 흡수 소화한 기술혁신 등에 더해 安保의 無賃乘車, 6·25 戰亂중의 特殊景氣라는 幸運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영토전쟁이 아닌 경제전쟁에서 「경제적 동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쌓은 富가 이제는 軍國주의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적으로는 平和主義가 차츰 물러가고 軍事大國으로의 變身을 모색하는 復古주의 무드가 국민의식 속에 크게 만연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軍國주의 찬양영화 「大日本帝國」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人氣를 끌고 있는가 하면, TV에서는 2차대전의 罪業을 美化한 「다큐멘터리」物들이 연일 放映돼 국민의식을 왜곡된 復古무드로 이끌고 있으며, 戰後세대를 사이에는 日帝시대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軍歌가 신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右傾向호름은 이제 斷續的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日本이 경제적으로 大國이 되기는 했어도 정치적·사상적으로 아직 과거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 不幸한 일이다. 더구나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방향을 국제적 차원에서 協力, 共存하는 未來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復古주의적 방향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미화 합리화하는 과거지향적

인 내용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은 日本의 장래를 위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3. 克日의 다짐을 國力培養으로

어쩌면 지금 日本은 막강한 경제적 富를 바탕으로 한 復古的 향수로 인해 앞으로 나갈 進路에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언필칭 내세우고 있는 바 「과거에 준 고통을 반성하고 近隣諸國과의 友好와 親善을 추진한다」는 外交이념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협력과 공존의 국제사회에서 스스로의 자위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2차대전에서의 敗戰이 그것을 實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日本의 간교한 외교자세와 무성의한 對韓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의 뿌리깊은 對韓오만과 우월감을 또 다시 目睹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교과서 왜곡사건에서 시정의 시기만 탐했을 뿐 방법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으나 이번만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기실 이제까지 韓日관계에는 이번의 교과서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난 65년의 國交正常化 이후 크고 작은 문제가 자주 있어왔다. 그때마다 일본의 對韓멸시태도는 우리의 국민감정을 크게 자극했다. 그러면서도 양국간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국민들의 감정의 熱氣가 지나고 나면 本質的인 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유야무야되고 말아온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시간이 가면 식어지기 일쑤인 감정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冷靜을 되찾아 각자의 마음 속에 투철한 民族史觀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그 바탕 위에서 온 국민이 한데 뭉쳐 오직 國力培養에 힘써 나갈 결의와 각오를 새로이 다져야 하겠다. 이번 역사왜곡사건에서 우리가 얻은 敎訓은 실로 넘볼 수 없는 國力만이 국제사회에서 큰 發言權을 형성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日本정부의 역사왜곡 是正公約이 우리 국민의 熱火같은 여론과 우리 정부의 國力에 바탕한 강력한 시정촉구를 받아들인 外交的 成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국민과 정부의 이 일치된 意志와 勢力을 문제해결의 최종목표에 이를때까지 추호도 늦춤이 없이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하겠다.

全斗煥대통령은 일전의 제37회 光復節 경축사에서 바로 이 점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촉구했다. 즉 힘없는 민족이 외치는 平和와 自尊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다는 世界史의 교훈에 비추어 8·15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異民族 지배의 고통과 모멸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和合團結하여 國力伸張을 향한 역사적 長征을 이 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힘없는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세계사의 교훈을 거듭 되새기고자 한다. 1905년 日本과 美國간의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이 그해 韓國과 日本간의 굴욕적인 乙巳보호조약을 가져왔고, 1945년 西方연합국과 蘇聯간의 「얄타」협정이 대전 후 東歐제국을 공산권에 송두리째 예속시키고 만 사실을 어찌 과거지사로만 보아 넘길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우리는 日帝의 지배하에서 겪은 갖은 고통과 수모를 새삼 명심하고자 한다. 36년간의 日帝지배하에서 우리 민족이 그들의 총검아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잃었고, 우리

고유의 이름과 언어마저 빼앗겼으며, 강제 징용된 동포들이 아직도 共産圈에서 望鄕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민족적 비극인 南北分斷도 日帝의 强占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또한 어찌 몽매에도 잊을 수 있을 것인가.

全대통령은 그같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보장은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보다 더욱 잘 사는 나라,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부는 역사왜곡에서 나타난 日本의 對韓偏見자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國民團合과 國力培養노력에 결집, 국제적 지위향상이란 긴 안목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적 座標를 극명하게 밝힌 것이라 하겠다.

弱者에게 오만하고 强者에게 무릎꿇는 것이 日本의 屬性임을 안다면 그들이 감히 얕잡아 볼 수 없는 힘을 기르는 것이 克日의 길임은 너무도 自明함을 깨닫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 각성을 높이 일깨워 오늘 이 시점을 國力伸張의 역사적 長征을 향한 장엄한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재삼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다.

<名言·名句>

악한 일일수록 그늘에 숨어 있기를 싫어하며, 선한 일일수록 겉에 나타나기를 싫어하나니 그러므로 악이 나타난 자는 재앙이 얕으되 숨어 있는자는 재앙이 깊으며, 선이 나타난 자는 공이 적으되 숨어 있는 자는 공이 크니라.

惡忌陰 善忌陽 故惡之顯者 禍淺 而隱者

禍深 善之顯者 功少 而隱者 功大 <菜根譚>

아프리카 經濟開發 協力의 意義와 展望

이제 아프리카 進出에의 깃발은 올랐다. 利益을 셈하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빈틈없는 長期戰略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서둘러서……

宋 起 東
<韓國經濟新聞 論說委員>

새로운 視角 속의 阿大陸

실상 우리는 여태까지 아프리카大陸이라면 우리와는 별 인연이 없는 지구 저쪽의 密林 속에 파묻혀 있는 未開의 別世界, 곧 한 마디로 「未知의 대륙」이라고 단정, 외면해 왔음을 시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전번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 巡訪은 우리 外交史에 파격적인 一大轉機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도 남는다. 한 마디로 우리에게 있어 검은 「未知의 대륙」이던 아프리카를 잠재력 있고 장래성 있는 「未來의 대륙」으로 부각시켜 놓았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親知와 互惠에 바탕한 「熟知의 대륙」으로 손을 맞잡은 실로 역사적인 그 意義를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한다.

제5공화국 수립 후 레이건美行政府가 출범하자마자 첫번째로 방문했고, 이어 우리의 이웃인 아시안 諸國을 순방, 國基를 굳힌데 이어 세번째 頂上外交의 대상으로 이 「未知의 대륙」인 아프리카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태껏 한국외교의 황무지라고 불려온 이 아프리카 땅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처음이며, 더구나 東아시아 국가원수로도 처음으로 밟았다는 이 새로운 行蹟에 세계의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南北대결이라는 숙명을 지닌 우리로서는 제3세계의 중심지인 이 지역의 外交的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고, 특히 현실적으로 북한에 비해 2대 1의 외교적 열세에 처해 있어 이의 극복이 중요한 당면과제임은 물론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구나 이번 순방이 그때 9월의 바그다드 非同盟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졌다는 그 時機的 배려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實效

外交」라는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제3世界外交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새로운 章」을 연 것이다. 이는 곧 고식적인 낡은 테두리를 훌훌 벗어던진 우리 새時代의 新鮮함과 박력을 펼쳐 보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외교적 측면보다는 그 폭을 넓혀 「潛在性의 대륙」, 또는 「可能性의 대륙」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 무진한 「將來性」에 뿌리를 둔 韓·阿經濟協力時代의 구체적 개막이라는 脈絡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하겠다.

먼 장래 내다보는 布石을

未知의 땅, 아프리카大陸은 우선 그 크기로도 압도당한다. 그 면적만도 약 3천만km²로 美國·中共 그리고 印度를 합친 것 만하다.

이집트·리비아·알제리아 등 地中海에 면한 북부의 이른바 「아랍 아프리카」를 제외한 사하라사막 이남의 「黑아프리카」만도 그 인구가 3억8천만이며, 임청난 天然資源은 그대로 잠자고 있어 미래의 세계 자원공급원이자 또한 潛在市場으로서 갈수록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地理的 조건에 앞서 우리는 아프리카가 걸어온 歷史的 발자취를 간단히 훑어 볼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는 본시 오랜 역사를 통해 王國과 酋長制의 部族社會로 이어 내려왔다. 7세기경 아랍人의 침입으로 이슬람文化의 영향이 컸지만 이는 북부 아프리카의 오늘날 「아랍 아프리카」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다 19세기 産業革命이 끝나자 英·佛 등 서구국가들은 새로운 경제단계에 접어들면서 고무·棉花·코코아 등의 농산물과 金·銅 등의 광산물의 공급지로서 아프리카를 필요로 하게 되어 급기야 植民地바람은 거세게 불어닥쳤다. 드디어 1890년에는 북부 아랍圈은 물론 중남부의 「黑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전역이 유럽제국의 植民地로 分割 統治케 된 것이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 20세기중엽부터 原住民들의 反植民地운동과 내셔널리즘의 대두로 이른바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리던 1960년 이래 무려 50여 아프리카國家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쟁취했었다.

그리하여 유엔議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一大 제3勢力圈을 형성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이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70년이 넘는 압박과 치욕의 역사를 뼈에 새기고 있음을 우리는 재삼 인식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동안 독립에 뒤따르던 정치적 혼란은 거의 가라앉았고 이제는 國家建設이라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前近代的 落後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살아있는 舊宗主國人들의 입김과 전통적인 黑人部族사회의 不合理性 등 숱한 難題들이 가로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對阿經濟協力을 꾀하기 위해서는 보다 長期的이고도 巨視的인, 그러면서도 「一貫性」과 「持續性」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곧 「먼 將來를 내다보는 진지한 布石」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우선은 友誼의 架橋부터

최근 들어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元首와 각료, 그리고 공무원과 기술자에 심지어

등민들까지도 대거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經濟開發計劃과 눈부신 技術개발, 심지어 새마을運動에 이르기까지 아무 것이나 배울 것은 몽땅 배워가겠다는 新生독립국들의 의욕에 넘친 국가건설의 後軍들인 것이다. 그들은 옛날 宗主國이었던 선진국들보다도 先發開途國인 한국을 모델로 삼아 자기 나라를 도약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분석된다.

비록 여러가지 여건은 다를지라도 그 지나온 역사적 배경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戰後에야 植民地의 사슬에서 풀려났던 한국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 하는 경험과 지식의 열쇠를 배우자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거기엔 다분히 옛날의 支配國이었던 先進 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共感과 일종의 親和感이 배여 있음을 이해하고 또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經濟協力이란 단순한 생활便宜와 눈앞의 이익이나 우선 따지자는 그러한 交易이 결코 아니다. 먼 내일을 바라보는 港灣·도로·철도·通信 등 社會間接資本 확충에 政策의 절대적 優位를 두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어쨌든 이번 全대통령 순방 때 함께 수행했다 다녀온 사람들은 異口同聲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經濟協力이나 進出에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同伴者」라는 좋은 인상을 심으면서 차근차근 協力기반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口號는 「천천히 서두러라」

우선 우리는 國家건설의 열기에 차있는 그들 나라들의 經濟開發計劃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阿洲巡訪 이후 「제2의 中東」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中東지역의 한때 요란스럽던 建設수출이 조금씩 퇴조해가는 조짐이 보이는 이때 이에 대신 다가선 아프리카 市場이기에 그러한 말은 조금도 어색하게 들리질 않는다. 사실상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같은 순탄한 協力만 이뤄진다면 「제2의 中東붐」으로 기대해도 좋을성싶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한탕主義」의 배격이다. 아프리카 市場은 한때 너도 나도 발만 붙여 놓고 보면 길이 트이게 마련이라는 흥청한 그때 中東붐과는 크게 양상이 다른 것이다. 이는 각계의 진출 노력이 결코 一時的 商魂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中東 다음에는 아프리카」라고 덤벙대며 國威에 먹칠하는 법썩거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아뭏든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성공적인 진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長期進出戰略 속에 그들의 歷史와 文化·民俗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폭넓은 연구가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피압박민족으로 억압과 설움을 당해 왔고,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그 後遺症이 눌어붙어 있는 이들 국가들은 지금도 西歐의 독점적 진출과 이익추구를 달갑잖게 여기고 있으며, 일부 舊宗主國人들의 技術面에서의 텃세나 입김 등을 어느면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을 법도 하다. 이는 반대로 우리와는 역사적 共感은 물론 相扶相助할 수 있는 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곱아 볼 수 있는, 다분히 我田引水格인 하나의 想定에 불과하며 실

상은 우리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는 자칫 역효과를 빚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다는 나쁜 인상을 결코 주어서는 안 되며 後進國의 입장을 속깊이 이해할 줄 아는, 「고생과 설움」을 함께 뼈저리게 느껴왔던 같은 弱小國이었다는 同隣相助意識을 심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는 式의 당장의 歡心作戰을 그들도 결코 원치 않고 있다.

그들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대규모 建設프로젝트에서부터 소규모의 工場건설이나 技術제공, 그리고 資源의 공동개발 등 거의가 장래성 있는 協力을 요청해오고 있음을 알아야 겠다.

이러한 資源개발이나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을 위한 建設프로젝트 등 목직한 經濟開發協力 말고도 아프리카大陸은 우리의 商品輸出市場으로서도 또한 잠재력이 無限하다.

작년의 경우 우리의 對阿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고작 2.7%에 불과한 5억8천만달러, 수입은 2억달러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규모는 점차 늘어날 展望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아직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적으로 未開發상태다. 물론 가봉國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80년에 3천달러를 넘어선 나라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79년에 평균 410달러선에 겨우 다다랐으며, 최근 그들의 성장률도 연평균 3% 미만이었다.

그들은 아직은 일부 產油國을 제외하고는 購買力이 저조하기는 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긴 안목으로 엄청난 잠재력과 그 무한한 「將來性」을 겨냥, 당장의 이익을 셈하기보다는 開發利益에 共同 참여하여 아프리카에 발판을 굳히는 빈틈없는 長期戰略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제 아프리카 進出에의 깃발은 드높이 올랐다.

여기에 口號를 내걸자.

조금은 어색한 표현이지만 『천천히 서둘러라』라고.

親和와 互惠에 바탕두고

어쨌든 이 未知의 大陸 아프리카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未來의 市場」이며, 「可能性의 大市場」임엔 틀림은 없다.

地球村의 가장 많은 天然資源을 간직한 채 1세기 전에는 列强들의 强占과 약탈의 희생물이 되었고, 불과 20년전부터 잇따라 獨立國은 되었으되 혼란과 饑餓와 질병은 아직도 완전히 가실 줄 모르고 있다. 나라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黑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에 뒤따르던 內亂도 종식되고 사회질서의 틀이 잡히 명실상부한 國家건설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제국은 그들 資源의 外國支配 排除를 다짐하고 있다. 한 마디로 「暗黑의 大陸」에서 「光明의 大陸」에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는 舊宗主國人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 있고, 독특한 黑人部族사회제도의 알력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 지도층 아프리카人들 사이에는 「아프리카니제이션」이라는 말을 흔히 주고 받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人의 민족적 故鄕이다」는 信念, 곧 아프리카大陸을 아프리카人의 힘으로 통합,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려는

念願과 行動을 뜻하고 있다. 말하자면 「未來의 大陸」은 이제 스스로 진정한 自我에 눈을 떴다는 의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문제는 조속한 國家건설이요, 효율적인 資源개발이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번 全대통령의 시기적절한 아프리카 순방의 그 효과를 極大化할 수 있는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과 연구가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全대통령이 主唱한 「南南協力」의 구체화를 위해 共感帶에 바탕한 「開發前線」의 구축을 서둘러야겠다. 여기엔 정부와 민간기업의 보다 긴밀하고도 짜임새 있는 共同長期戰略이 요긴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어쨌든 새로운 「韓·阿協力時代」의 막은 올랐다. 自我에 눈뜬 그들은 이제 교만하고 거드름피는 그 어떤 技術제공이나 協力도 원치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처지를 진실로 이해해 주는, 信賴로 맺어진 協力을 바라고 있다.

그러기에 아프리카 經濟協力진출에는 「同伴者라는 認識」이 그 첫번째의 열쇠임을 새삼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名言·名句>

옛 벗을 버리지 말라. 새로운 벗은 옛 벗을 당할 수 없느니라. 새로운 벗은 새 술과 같은 것. 오래되면 기쁨으로 마실 수 있겠기 때문이다. <아포크리파>

하루도 자그마한 일평생이다. 날마다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일어남이 그날의 탄생이요, 신선한 아침마다 짧은 청년기를 거쳐 자리에 누으면 그날은 죽어 버린다.

<A. 쇼오펜하우에르>

西獨의 政治教育

서독의 정치교육의 성격은 기존하는 지배체제가 가진 모순을 알려줌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미래의 주인으로써 바른 판단과 바른 행위에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박 순 영
<연세대 교수·철학>

I. 서 론

교육행위는 언제나 사회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기관으로서의 교육체계는 성장하는 세대들로 하여금 기존하는 사회에서 요청하는 제규범과 가치관이나 기술을 습득케 하여 미래의 사회적인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며 나아가서 사회적인 과제를 스스로 인지토록 하는 의도를 수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위의 교육행위의 원칙과 대체적으로 구별되지 않지만 정치교육은 기존하는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의식을 내면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의 특수한 과제는 기존하는 지배체제와 권력구조와 행정기구 등 일련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이에 각 개인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시키는 의도적인 교육이다.

이 때문에 기존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정치교육의 보수적인 성격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현대국가는 이러한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성장하는 세대에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는 지배체제의 사회현실에 대처하는 정치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구성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모순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습득케 하고 이에 따른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유지, 기존문화에의 보존, 사회에 타당한 규범과 행동양식 등을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결되기 힘들다. 어떻

게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정치교육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 정치교육의 역사

정치교육의 이념은 그 이론적인 근거에서 설명될 수 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원들은 그들의 관심과 이익추구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체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별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이익추구를 규제할 수 있고, 또 개인을 교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교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국가는 공동체의 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 이외에 국민을 도덕적으로 성숙케 할 과제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토마스 홉스는 자기 보존의 본능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을 국가의 힘에 의해서 통제하고 교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모두가 기존하는 국가체제가 국민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정당화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존하는 체제에 국민을 적응시켜야 한다는 정치교육의 보수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정치교육은 국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행동규범을 설정했고 체제의 기존하는 정당성이 주입되거나 생활훈련에도 전이되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문헌이 처음 나타난 것은 프랑스혁명과 1848년 사이였는데 1797년에 쓴 「국민교육하의 기초」에서 슈테파니는 「시민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소속된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그의 사회적인 삶과 직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습득케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혁명이 도화선이 된 유럽국가의 불안정 이후 모든 유럽왕전들은 내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했기에 더욱 정치교육이 강화되었다.

프러시아제국에서나 바이마르공화국 그리고 히틀러의 집권시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정치교육은 한 마디로 지배체제를 변호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1945년 2차대전이 종료되고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고 나서 서독은 독자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선택과 개방의 여지가 없이 거의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입식 정치교육은 질적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권위적인 강요 대신에 설득력 있는 대화의 관계로 정치교육이 변화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그 원칙이 실제로 정치교육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서독의 정치교육의 목적은 민주적 시민을 기르고 시민은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자유스런 자기 실현을 보장받게 되었다.

특히 1946년 서독의 총선거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추종하거나 그에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인 민주주의 이념의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1952년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본부」라는 정치교육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이 기관은 다시 1963년 「중앙정치교육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히틀러의 독재를 체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익히게 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몽적인 과제를 정치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다. 이러한 계몽에 우선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이성적인 통찰력과 비판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며 이들의 판단이 사회전체적인 연관에서 유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회현실의 해석에 대한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1960년에는 정치교육에 심리학과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특히 발달심리학 등의 보조적인 인접과학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교육은 새로운 교육의 차원에 돌입하게 되었다. 60년대의 정치교육이 대처할 현실적인 과제는 바로 학생운동이었고 70년대엔 테러리즘이 중대한 갈등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45년 이전의 정치교육이 단순한 「적응의 교육」과 「습관들임」의 교육이었고 이제는 지배체제의 권위적 강요를 넘어선 「사고훈련」의 개방적인 교육이 되었으나 청소년의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더욱 난관에 빠지게 되었음을 정치교육관계자들은 반성하게 되었다.

3. 정치교육의 내용

서독의 정치교육의 내용은 1974년에 새롭게 조정된 「연방정치교육연구소」의 중요과제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치교육의 과제는,

(1)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국민의 정치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2) 민주적 의식을 견고케 하며,

(3) 정치적인 작업에 참여하는 자발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구체적으로는

(1) 현실적 계도에 도움이 되는 정치과정의 요소와 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주도록 한다.

(2) 정치적 문제의식과 정치적 판단력과 자발적 판단력을 교육시키는데 주력한다.

(3) 전체 사회의 연관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4) 자유민주주의 법치 및 사회국가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긍정하도록 이끌며 시민의 국가와의 일체감을 갖도록 노력한다.

(5) 정치행동에 대한 자발성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한다.

(6) 민주주의 규율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민주적 방법에 익숙되도록 힘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연방정치교육연구소는 시민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도 눈을 돌리게 해준다. 왜냐하면 이 기구는 이제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서독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짓서의 정치교육교과서는,

① 기본권의 문제
② 국가와 공동사회에서의 다원주의
③ 정당관계에 대한 이해
④ 연방공화국의 의회제도
⑤ 현재의 사회정책
⑥ 연방공화국의 경제질서와 경제정책
⑦ 노동의 세계(고용주와 노동자)
⑧ 분단된 독일
⑨ 나치즘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
⑩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서의 전체주의적 지배의 위험
⑪ 민족의 공존
⑫ 후진국 원조의 문제

1972년에 나온 니더작센주의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교과서에서는

① 직업사회에 있어서의 자율적 결단
② 사유재산의 문제와 사유재산정책
③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기초
④ 도시의 문제와 도시환경계획의 과제
⑤ 국제무역
⑨ 평화의 문제(예로서 중동문제)
⑦ 환경보호문제의 기존

서독의 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연구소가 설정한 원칙에 따라 각 지방정치교육연구소가 지방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교재내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다양하나 그 원칙은 통일되어 있다.

4. 정치교육의 내용원칙

정치교육이 각 지방에 따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정치교육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되어 있다.

(1) 민주화와 인간화

서독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존립한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사회적인 삶의 인간화와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 실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 지배체제는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욕구를 평등하게 충족시키고 또 불필요한 국가조직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인간화를 의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민주화한다라는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참 여

정치교육의 일반적인 인지교육과는 달리 사회인식의 토대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천교육이다.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갖고 행동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모든 시민이 정치적 책임을 바르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기인하고 있다.

(3) 계몽과 이데올로기

먼저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여건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인의 삶이 전체사회적인 삶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해 주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삶과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모르게 빠질 수 있는 독단의 늪에서 헤어나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이데올로기의 유혹과 여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일이 없도록 계몽하는 것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4) 가치판단의 문제

가치관, 도덕의식 등은 정치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정치교육은 절대로 가치 중립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은 윤리교육, 인간교육, 덕성교육과 연결된다.

(5) 정치교육의 방법

서독의 정치교육은 단순한 주입식의 정치학습이 아니고 또 완성된 지식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형성의 토대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 여기에 교육방법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교육에 동원되는 모든 보조과학들인 심리학, 사회학 또 모든 인접 사회과학들

의 도움을 통해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정치교육에서는「무엇」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어떻게」를 중요시해야 한다. 대체로 정치교육의 방법론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지식획득, 인식, 태도이다.

(1) 지식획득 : 지식정보, 객관적인 사실인지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동시에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게 해 주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인 사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면 이들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어떤 의도에 의해서건 선입관과 편견이 잠재해 있지 않은 지식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은 서로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때때로 갈등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2) 인 식

합리적인 사고와 행위에 대한 준비태세의 확립 또는 협동적인 행위에 대한 준비태세 또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와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의 민주화과정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인식케 한다.

(3) 태 도

정치교육이 하나의 실천교육이라고 한다면 정치교육은 결국 태도형성에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서독의 정치교육의 방법은 원칙에 있어서 설득과 대화와 개방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태도 형성 자체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참여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6. 서독의 정치교육이 주는 의미

서독의 정치교육은 기존체제의 적응이나 체제변화자체를 의도하고 있지만 민주적인 원칙에서 미래지향적이다. 이러한 서독의 정치교육의 성격은 기존하는 지배체제가 가진 모순을 미리 안겨주고 그들 스스로가 미래의 주인으로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위에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록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학생운동과 반체제운동이 이러한 정치교육의 원칙에서 생길 수 있는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동적으로 청소년을 길러내는 것보다는 능동적인 참여인을 기른다는 적극적인 의미 때문에 서독의 현 체제는 자발적인 지원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밝은 면을 개방시키는 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는 다른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바가 분명 있으리라 생각된다.

✳ ✳ ✳

올림픽 理念을 생각한다.

올림픽의 이념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의 이데올로기가 없는 한 올림픽의 노력은 그 존재 이유가 없으며, 그 교육적, 심미적 및 윤리적 입장도 잃게 될 것을 알고 있다.



張 周 鎬
<YMCA 부총무, 대한올림픽委 집행위원>

근대 올림픽이 처음으로 아테네에서 개최된 지가 금년까지 햇수로 86년이 된다. 인류 역사에 비하면 86년간의 시간대는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그간 24회 대회를 거듭해온 근대 올림픽 경기는 짧은 기간 동안 올림픽 운동으로서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1894년 삐에르드 꾸베르땡 남작이 조심스럽게 올림픽 운동의 부활을 제창했던 것은 진정한 올림픽 정신 아래 지구상의 모든 종족과 인류가 올리브 왕관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게 되는 장엄한 미래의 모습을 예견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1896년 4월, 대리석 스타디움에서 5만여 관중의 환호 속에 개막된 역사적인 근대 올림픽 제1회 대회는 마라톤에서 희랍의 루이스 선수가 우승을 하므로 희랍 국민을 열광케 하였으며 이로써 아테네 사람들은 진정으로 전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경쟁하는 올림픽 경기 부활의 의미를 실감하였던 것이다.

제1회 올림픽 경기에는 13개국으로부터 285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었으며, 지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에는 1만 여명의 선수, 85개국의 국기가 올림픽 스타디움을 수놓듯이 휘날렸다. 다가오는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때는 140여개국의 1만8천 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는 150여개국으로부터 선수 1만5천여명, 임원 5천여명 합계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스포츠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림픽 운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의 경기 기록도 더욱 놀랍게 향상되어 갔고 참가 선수들의 수나 경기종목도 점차 증가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은 올림픽 운동이 절대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량적인 발전 못지 않게 올림

픽 운동의 기본적 목적의 참된 내용 즉, 올림픽 이상의 현실적인 실현이 화려한 업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서 올림픽 정신이나 올림픽 이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올림픽 운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의 체육 교육적 가치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 교육적 공헌이 지대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듯 올림픽 운동은 온 인류에게 올림픽의 이상을 보급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는 올림픽 운동의 원리가 계속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올림픽의 지나온 업적을 기리고 미래의 바람직한 영향을 기대하면서 온 세계인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화의 상징으로 또 다른 올림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꾸베르뗑의 올림픽 운동 이념

꾸베르뗑 남작의 목적은 세계 모든 나라가 체육과 스포츠 경기를 국가적 계획으로 장려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그들이 적절한 감독하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면 그 성격 형성과 인격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훌륭한 시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각성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올림픽 운동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며, 이는 선량한 성격과 강인한 인격을 가진 균형있게 발달한 개인의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올림픽 경기에서 온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구애 받지 않고 전문가의 감독을 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들이 지닌 신체적 잠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만 이를 달성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질적인 보장과 여러가지 편익을 제공하면서 특수 훈련을 시키면 고도의 신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신체적 능력을 가진 개인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운동 경기에 참가시키려 한다. 이와 같은 개인들이 충실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다. 이들은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부나 직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도한 민족주의, 경기에 대한 오해, 올림픽 운동의 목적에 관한 근본적인 오해 등에 기인된다. 올림픽 경기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필요한 열의를 불어 넣을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온 국민의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좋은 태도를 보이려면 먼저 젊은이들을 운동에 참여시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되, 이를 억지로 밀고 나가면 아니된다.

1964년에 당시 국제 올림픽 위원회 부런디즈 위원장은 꾸베르뗑 탄신 100주년 기념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올림픽 경기의 부흥은 꾸베르뗑 계획의 제 1 단계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 경기는 정부와 교육자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관심까지 불러 일으켜서, 사회의 부정을 일소하고, 날로 번져가는 물질 만능주의를 타파하며, 건강과 도의심을 파괴하는 공업 중심적 경제구조와 도시생활의 폐단들을 바로 잡

아가는 과업에 도움이 될 신체단련과 아마추어 스포츠에 관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올림픽 경기는 엄격히 국내적이었던 고대 그리이스의 이념을 모든 국가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국제간의 친목과 친선을 증진시켰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놀라운 성공을 거둠으로써 오늘날에는 쿠베르땡의 꿈을 더 넓게, 더 많이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올림픽 경기는 하나의 수단이며,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금메달만을 획득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는 틀림없이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신량한 인격의 함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운동을 통하여 심신의 장점을 개발시킨다는 고상한 이상을 지닌 건전한 젊은이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이득의 충족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 챔피언의 집단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는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경계를 하더라도, 무지와 부질없는 열광에 사로잡혀 그릇된 영향을 받아서 나쁜 길로 빠져들기 쉬운 젊은이들을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아마츄어 이데올로기

따라서 우리는 올림픽 운동의 또 다른 원리인 아마츄어의 지위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올림픽 운동을 부흥시키기 시작한 때로부터 아마츄어의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안건은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의사일정에 빠짐없이 들어 있었으나, 이제까지 적합한 정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림픽의 이념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츄어의 이데올로기가 없는 한, 올림픽의 노력은 그 존재 이유가 없으며, 그 교육적, 심미적 및 윤리적 입장도 잃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올림픽 운동으로부터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올림픽이 없더라도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창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림픽 운동의 지원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아마츄어 운동 경기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납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젊은이는 자기의 신체적 건강과 체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쳐놓더라도, 자기의 업무 실적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도 클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다. 운동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태도를 보이려고 개인적으로 노력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쿠베르땡씨는 그의 격려사에서 "불행하게도, 아마츄어 경기는 무미건조한 규칙이 아니라, 느낌이며, 영혼의 상태이다. 우리가 아마츄어 경기를 좁게 정의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츄어의 의미는 여러모로 적용될 것이다. 아마츄어 경기를 정확히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말 그대로의 아마츄어 경기이고, 어느 것이 아닌가를 가리기는 별로 어렵지 아니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순수한 아마츄어 정신을 열렬히 지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격한 아마추어 경기의 실시를 주장하였던 브런디즈씨는 1966년 4월 25일에 국제올림픽 위원장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직업 스포츠는 근본적으로 관객을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지만, 아마츄어 스포츠는 자기의 건강, 복지, 자기만족, 기쁨과 즐거움 등을 위하여 심신을 단련하는 선수 자신에게 속한 것이다. 아마츄어는 자유인이지만 고용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올림픽의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생활화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올림픽의 이념을 강화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자연히, 아마츄어의 이데올로기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제시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올림픽 이념의 실천

올림픽 운동은 올림픽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국가, 종족, 개인 등을 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확립된 원칙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재 대올림픽 가족에 합류하지 아니한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누구나가 올림픽의 이데올로기가 지니고 있는 참된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조력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꾸베르땡씨가 올림픽 경기의 부흥을 생각한 당시에는 여러 종목의 군소운동 단체들 사이에 상당한 경쟁의식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여러 스포츠 종목별 선수들 사이에는 적대감까지 도사리고 있었으나, 올림픽 경기가 부활되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각 종목 스포츠는 올림픽 이념의 참된 교육원칙을 준수하는 한, 개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똑같이 유리한 영향을 준다는 바른 원칙이 지배하여 왔다. 각 개인은 자기의 선택, 능력, 사고방식 등에 따라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스포츠를 선택하고, 어느 종목의 스포츠에 열중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체육과 경기에 관한 국가적 계획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국가는 가장 건전한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올림픽 경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종목의 스포츠가 이에 포함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 외에도 재정과 조직 문제 역시 올림픽경기가 계속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더구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올림픽 경기종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스포츠에서도 올림픽 운동의 이념이 성실하게 실천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올림픽 경기가 부활되기 전에도 국제경기가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국제운동 경기를 통하여 여러 국가에서 선발된 운동선수들이 서로 평화롭고 다정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꾸베르땡씨의 노력은 이제 충분히 결실을 보게 되었다. 사실상 국제경기는 국민 사이의 친선과 우호관계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이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국가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 준다. 국제적 운동경기가 너무 많으면 경기 때마다 국가의 위신 유지를 지나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운동선수들의 지나친 경쟁열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지나친 운동열과 아마츄어 경기의 엄격한 규칙을 지키지 아니

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고대에는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었는데, 지금은 4년마다 개최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장소를 달리한다는 것이 전과 다르다. 이러한 원칙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올림픽의 이데올로기를 세계 도처에 고루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가지 문명이 개최되는 각 경기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올림픽 경기는 실질적으로는 본래의 성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나, 경기를 주최하는 시와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올림픽 이념의 실천 방법이 다소 달라지게 된다.

그 외에도, 올림픽 경기를 세계 여러 곳에서 개최함으로써 올림픽 운동의 이념을 실증하게 되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선발된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점잖게 경쟁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각국 사람들에게 승자에게는 박수를 치고, 승자이건 패자이건 모든 참가자들의 의협심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며,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배우고, 운동을 통한 단련, 용기와 결단, 자기 수양 등의 가치를 평가하며, 자기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간단히 말하면 이와 같이 올림픽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곧 완전한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 된다.

고대의 올림픽 경기는 실제적으로는 평화스러운 축제이었으며, 전쟁이나 분쟁에 관계 없이 4년마다 어김없이 개최되었다. 이것은 바로 휴전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었다. 그런데 금세기의 올림픽 경기는 86년 동안에 불행히도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번 연기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이라는 관념과 틀림없이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올림픽 경기에 대하여도 결번 없이 일련번호 순으로 회수만은 그대로 부여하였다. 올림픽 경기의 연기가 올림픽 운동의 요인들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올림픽의 이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적어도 일시적이나 휴전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올림픽의 원칙과 올림픽 경기

올림픽 운동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조건하에서 경기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를 위한 규칙들은 올림픽 스포츠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하여졌으며,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는 기간 중 이러한 규칙들이 만족스럽게 지켜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참다운 올림픽 이념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기의 동일한 조건보다는 오히려 경기를 위한 준비 기간 중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는가를 조사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 메달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승리를 얻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며, 이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하게 된다. 하루 중 더 많은 시간을 훈련에 보내고, 더 많은 정력을 훈련에 쏟는 선수가 하루 중 여가시간에만 훈련을 하고, 대부분의 활동을 공부나 일에만 기울이는 선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는 것이 통념이다.

위에서 말한 바에 의하여 두 부류의 운동선수 중 어느 쪽이 올림픽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는 명백하다.

최근에 이러한 악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선수들이 조직화된 훈련장에 상주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고, 이제까지 규칙은 모든 위반사항에 확대 적용되지도 아니하였고, 모든 경우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올림픽 운동과 모든 스포츠에 관한 규칙은 경기자들의 성의와 스포츠 지도자 및 심판들의 정직에 근거한 것이다. 규칙을 세부 사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마른 규칙만으로서는 신의와 정직을 지키기도 어렵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올림픽 정신을 신양하기 위한 교육의 문제라고 본다.

올림픽 운동 이념과 높은 성적이나 경기 기록을 성취하는 것과는 서로 반대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올림픽 운동의 기본은 개인으로 하여금 될 수 있는대로 가장 좋은 성적을 얻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올림픽 운동은 목적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몇년 동안에 과학이 올림픽 경기면의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운동선수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연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발견하며, 과학의 힘을 빌어서 경기 기록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과학자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무결한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인간의 육체적 기관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간을 실험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올림픽의 이념에 따라 여러가지 스포츠가 창안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된다.

올림픽의 이데올로기는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에 전념하는 것, 훈련의 규칙을 지키는 것, 윤리적인 생활방식, 근면, 단련, 동료 운동 선수와 그 가치의 존중,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등 교육적 목적에 도움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되게 이끄는 요소들을 가르쳐 준다. 이러한 요소들을 엄격히 지켜가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올림픽 운동 이념의 요인들과 다른 경기원칙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인간의 사회가 존재한 때로부터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관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목표로 삼아왔던 "선량한" 시민을 만들어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국가의 소사회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동포의 가치를 인정하며, 연장자를 존경하고,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자연 뿐 아니라, 인간사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시민들을 얻는다면, 우리는 당연한 결과로서 완전한 인간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올림픽 운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믿고 "참" 올림픽 이념, "참" 올림픽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생활화 하도록 하는데 88 서울 올림픽의 보다 큰 뜻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아프리카 外交의 意義와 成果

바야흐로 國際化時代를 맞고있는 우리는 挑戰하는 民族답게 우리 앞에 展開된 소중한 機會를 最大한 活用하여 民族雄飛의 꿈을 착실히 開拓해 나아가야 하겠다.

金 寅 植

1. 序 言

第5共和國 出帆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開放性과 積極性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自主外交政策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外交史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美國과 西歐 중심의 依存外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自主的인 力量으로 非同盟圈과 共產圈에까지 겨냥하는 開放的이고도 多邊的인 外交活動을 積極 展開해 나가기 始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가 外交政策面에서 일대 轉換을 기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國際情勢의 격변과 國際環境의 挑戰 속에서 民族의 自主的 生存과 活路를 開拓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오늘날 理念이나 體制, 그리고 名分이나 同盟의 次元을 넘어 國家實利 第1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世界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힘에 바탕을 둔 自主性을 確立하고 그에 따른 外交政策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全斗煥大統領閣下께서 지난 81년 1월 12일 새해 國政演說을 통해 『民族의 힘을 기르는 外交』즉 自主, 積極外交를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認識과 判斷의 바탕 위에 展開된 우리의 自主外交는 지난 81년 2월 全斗煥大統領閣下의 成功的인 美國訪問을 비롯하여 같은 해 6월의 아시안 5個國 巡訪, 그리고 금번 아프리카 4個國과 캐나다 訪問으로 이어지면서 안으로는 國民的 和合과 團結을 創出하는 한편 밖으로는 5大洋 6大洲에 「새時代 韓國의 像」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外交基盤을 크게 擴充해 나온 것이다.

이러한 外交的 努力에 힘입어 우리는 지난 81년 2월 印度 뉴델리에서 개최된 非同盟 外相會議에서 韓國問題를 擧論하여 우리를 窮地에 몰아 넣으려던 北傀의 策動을 분쇄할 수 있었으며 또한 最近에는 北傀의 獨舞臺나 다름없던 레바논과 이락, 리비아 등과 새로운 外交關係를 樹立했던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우리 나라가 86년 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것은 刮目할 만한 外交的 快擧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우리 外交의 積極的인 姿勢는 全斗煥大統領閣下의 訪美, 아시안 巡訪에 이어 금번 아프리카와 캐나다까지 연장된 外交旅程에서 충분히 立證된 것이다.

2. 韓·阿 協力時代 열다

신비의 아프리카大陸이 드라마가 아닌 실질적인 우리의 政治的, 經濟的 파트로 부상하였다.

사실 그동안 대다수 國民들은 아프리카를 살기 힘들고 文明이 뒤진 미개의 大陸으로만 여겼었다.

그러나 이번 全斗煥大統統閣下의 아프리카 4개국 巡訪을 계기로 우리는 아프리카가 결코 未開한 大陸이 아니며 이 나라들이 各 분야에서 잘 살기 위해 活氣차게 努力하는 躍動의 大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韓國에 대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政治指導者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아프리카 사람들은 韓國이 지구의 어느 곳에 자리잡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와 아프리카 두 지역 國民들은 다같이 한 때 植民勢力의 희생자였었으며 또한 오늘날 近代化를 추구하는 開發途上國家라는 點을 깨닫게 되었다.

다만 韓國은 일찍 植民時代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아프리카는 이제 일어서려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歷史 때문에 한국은 일방적인 經濟的 利益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近代化의 선배이자 동시에 協力者로서 상호 共榮을 추구하는 진정한 同伴者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이러한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 韓·아프리카 두 지역 사이에 精神的 共感帶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값지고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금번 對아프리카 外交는 그동안 北傀의 歪曲宣傳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잘못 비쳐졌던 韓國과 한국인의 像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일대 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先發開途國인 韓國이 그들 國家發展의 미더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는 點에서 더할 나위없이 보람찬 일이었다고 하겠다.

3. 平和統一 外交

또한 對아프리카 外交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成功의 하나로는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에 대한 積極的인 지지를 얻은 점이라 할 수 있다.

6천만 韓民族의 숙원인 南·北統一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중 國際社會에서의 지지획득은 大統領閣下께서 수차 언급하셨듯이 80년대 중 통일성취를 위해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엄숙한 歷史的 과업을 達成하기 위

한 外交的 努力의 일환으로 展開된 금번 全斗煥大統領閣下의 頂上外交는 北傀가 유일하게 韓國을 外交的으로 압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點에서 처음부터 중요시되었다. 全斗煥大統領閣下께서는 금번 5개국 巡訪을 통해 한반도의 統一은 武力이 아닌 對話를 통한 平和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努力을 强調함으로써 공감을 얻었다.

특히 우리의 6.23선언에 따른 南·北韓동시 유엔가입 政策과 南·北韓最高당국자 회담 제의를 포함한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방안 등 구체적 問題에 관해 이들 國家원수들의 積極的인 지지를 얻어낸 것은 對非同盟 外交의 커다란 수확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성과는 이들 國家들의 「對話를 통한 國際問題 해결」이란 주장과 부합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國家들이 한 때 北傀의 歪曲비방, 선전 때문에 한반도問題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던 過去를 감안하면 이번 大統領閣下의 巡訪外交를 계기로 韓國의 統一政策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認識하게 됐으리라는 點에서 앞으로 「신념에 찬 한국지지세력」을 확고하게 심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우기 이들 國家가 非同盟會議, 유엔 등 國際무대에서 莫强한 실력을 행사하는 黑아프리카 45개국의 중심 멤버이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意義는 더욱 큰 것이다.

구체적으로 OAU(아프리카 團結機構) 議長인 모이 케냐 대통령은 平和統一을 위한 韓國의 努力과 이니시어티브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對話政策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나이지리아의 샤가리 대통령과 봉고의 가봉 대통령도 「韓國民의 의사에 따른 南·北 유엔동시가입 努力을 積極 지지 환영하고 유엔과 非同盟會議에서 韓國의 정당한 입장을 계속 성원하고 지지할 것」을 공동성명을 통해 强調했다.

이같이 巡訪國 頂上들이 統一問題에 관한 한국입장의 지지를 공동성명으로 明文化한 것은 對阿 특히 非同盟 外交에 있어 커다란 기점과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81년 全斗煥大統領閣下께서 아시안 5個國 巡訪으로 넓혀진 統一外交의 영역을 아프리카로 擴大시킨 우리 外交의 획기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强國인 이 4個國은 우리의 統一政策을 강력히 지지하는 응원국으로서 앞으로 다른 아프리카 國家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北傀의 위장평화전술은 더 이상 國際社會에서 먹히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 틀림 없다.

4. 南南의 開發前線

그리고 全斗煥大統領閣下의 아프리카 4個國 巡訪에서 제시하신 開發途上國간의 開發前線 제의는 앞으로 우리의 經濟協力外交에 基本的인 골격으로 부각되었다.

大統領閣下께서는 이미 등정에 앞서 出國성명을 통해 ○ 異民族에 의한 植民統治 ○ 영속적인 빈곤 ○ 끊임없는 對內的 분열과 갈등 등의 고통을 같이 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開途國간의 協力强化가 自由·平和·繁榮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는 點을 强調하셨었다.

이는 開途國간의 南南協力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方法이라는 點에서 開發前線 제의의 참뜻을 찾을 수 있다.

全斗煥大統領閣下의 開發前線구상은 이미 지난 81년 6월 아시안 5個國 巡訪 때에도 巡訪國 頂上들로부터 진지한 同感을 얻었고 실제로 이들 國家들과의 協力을 위한 제반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미 조금씩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結實을 보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의 發展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번 全斗煥大統領閣下의 開途國간의 協力强化 强調는 韓·아시안의 協力關係를 韓·아시안—아프리카라는 3角協力 次元으로 확산시켰다는 意味도 내포하고 있다.

사실 亞·阿지역의 後進國, 開途國들이 2次大戰 以後에도 계속 先進國의 그늘에서 구조적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開發前線 제의는 歷史的인 전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45년 2次大戰 以後 아시아를 기점으로 번지기 始作한 政治的인 獨立은 60년대 아프리카 諸國의 獨立을 정점으로 거의 實現되었다.

그러나 이들 新生獨立國들은 길게는 2백여년 짧게는 십수년 동안의 被植民의 기간 동안 資源의 被奪은 물론 植民國家의 愚民化 政策으로 近代化의 기회를 철저히 봉쇄당했다.

2次大戰後 1백여 개가 넘는 國家들이 獨立했으나 아직도 이같은 被植民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인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구조적 빈곤은 社會不安과 政治不安으로 연결되어 연속적인 빈곤의 순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빈곤극복과 經濟發展을 빨리 이룩했던 나라의 하나가 韓國이기 때문에 아시안이나 아프리카 諸國들은 韓國을 開發 모델로 주시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韓國과 같은 先發開途國에서 開發경험을 직접 배워야 한다는 認識은 全斗煥大統領閣下의 訪問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됐고 開發前線구축 구상에도 各國이 공동성명을 통해 積極的으로 共感을 표시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된다.

5. 韓·아프리카 經協

한편 經濟的 측면에서 보면 韓·阿 共榮이란 共感帶의 基盤을 造成했다는 사실이 총체적인 특징으로 꼽힌다.

東部아시아國家 指導者로서는 처음인 全斗煥大統領閣下의 아프리카 巡訪이 우리 外交의 步幅擴大를 뜻한다면 經濟的으로는 同類意識의 實體化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인한 것이 그 成果로 평가된다.

韓國은 開發의 경험과 技術을 축적한 先開發途上國이고 아프리카는 天惠的인 資源의 寶庫이며 양자 모두가 經濟繁榮을 同時에 추구할 수 있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같은 양자의 强點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 同伴者로서의 協力强化는 共榮이란 토대 위에서 더욱 응집력을 갖게 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일방통행식 힘의 논리로 수탈을 일삼던 것이 植民時代의 특징이라면 過去를 지닌 國家간의 교류는 당연히 互惠性을 지녀야만 協力이 成立되게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韓·阿 同伴共榮時代는 최소한 개막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며 한 가지 자로서 서로를 잴 수 있는 신뢰분위기를 造成하기 시작했다고 풀이될 수 있다.

韓·阿 4個國 사이에 이야기를 주고 받은 프로젝트가 現實化될 경우 우리의 企業쪽에 별

어질 액면가는 20억~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81년 對아프리카 교역량이 수출 5억 8천만달러, 수입 1억1천5백만달러 등 모두 6억 9천5백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금번 全大統領閣下의 巡訪의 成果를 한 마디로 입증하는 數値임이 분명하다.

特히 黑아프리카 最大 工業國인 나이지리아와 벌인 商談은 各種 建設工事 참여시 수주액이 15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여 우리에게 있어 제2의 中東이 어디인가를 명시하는 大作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韓·나이지리아 頂上간에 논의한 내용은 아부자 새 首都建設事業, 重電기기 제작수리공장 建設, 營農技術지원, 농기계기술協力, 鐵道 및 차량수출, 建設技術協力 등 많은 분야에 폭넓게 펼쳐있어 韓·阿의 호혜적인 同伴協力은 실천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나이지리아 다음가는 교역대상국인 가봉에서 따낸 大型프로젝트는 가봉 횡단 鐵道建設참여, 우라늄·石油·철강·망간 등 광물자원 개발사업, 오웬도港 建設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기관차, 객화차 및 선박의 연불수출, 전자제품, 피혁제품 및 자동차 조립공장 등의 합작問題가 논의되고 水產物 가공을 중심으로 한 어업협력 强化 등도 합의되었다.

나이지리아나 가봉에서 따낸 大型프로젝트 외에도 各國에 技術人力의 진출영역을 확장한 것은 81년 東南亞 巡訪에 이어 韓國이 기술수출의 모범국임을 또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케냐에서 敎育, 農, 畜, 水產業, 제조업, 의료, 관광, 科學技術분야 등에 전문가와 技術者 교환을 통해 經濟協力을 擴大, 촉진키로 합의한 것은 이를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세네갈은 양국 頂上간의 意氣投合을 바탕으로 個別業體간 商談을 통해 發電과 精油설비 등 30개 품목의 수입을 希望해 왔다.

그러므로 韓·阿간의 精神的 유대까지도 근접시킨 금번 大統領閣下의 아프리카 巡訪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이 지역개발 진출에 牽引車와도 같은 活力을 불어넣은 것이라 하겠다.

6. 맺는 말

開化期 近代化의 지각생이었던 우리 韓民族은 거센 歷史의 물결에 휩쓸려 植民地時代의 굴욕과 고통을 체험했고, 또 그것이 遠因이 되어 지금 우리는 分斷의 悲劇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0년대부터 타오르기 始作한 民族의 에너지와 潛在力의 분출로 우리의 國力은 한반도의 좁은 영역을 뛰어 넘어 海外로 뻗고 또 넓어지고 있다.

全斗煥大統領閣下의 아프리카 訪問을 계기로 이제 아프리카大陸 진출은 우리 民族史에 本格的인 挑躍의 章을 열게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 나라는 바야흐로 개방된 國際化時代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挑戰하는 民族답게 우리 앞에 展開된 이 소중한 기회를 最大한 活用하여 民族雄飛의 꿈을 착실하게 開拓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는 금번 全斗煥大統領閣下의 巡訪길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國民 모두가 땀흘려 쌓아온 우리의 國力이 自主·積極外交의 바탕이 되며 活力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地理的으로 멀고 서로 잘 모르고 있던 아프리카가 오늘에 와서 우리의 大統領을 열렬히 환영하고 우리와의 協力을 갈망하고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한 마디로 사람에게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外交에는 「國力이 날개」라는 것을 우리는 금번에 實感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5大洋 6大洲에 우리의 自主外交力量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바탕을 넓히고, 活力을 북돋아 줄 수 있는 國力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國力伸張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民族史上 길이 빛날 民族興隆의 새 歷史를 創造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民族雄飛의 일대 轉機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오늘의 時點에서 世界史의 당당한 主役이 되는 榮光된 그 날을 내다보면서 和合의 마음과 開發의 意志를 다시 한 번 굳게 가다듬어야 하겠다.

<이솝우화>

가죽장사와 부자영감

부자 영감이 사는 집 옆으로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가죽 장수가 이사를 왔다. 가죽 장수가 온 날부터 부자 영감은 가죽 냄새 때문에 골치를 앓게 되었다. 가죽 냄새는 참을 수 없이 고해서 부자 영감은 늘 찡그리며 투덜대다가 가죽 장수를 불러 당장에 이사를 가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자 가죽 장수는 죄송하다고 굽신 대어도 영감이 듣지 않는 걸 알자 내일이라도 집을 구해서 떠나겠으니 그렇게 알고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 이튿날이 되어도 가죽 장수는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 영감이 왜 이사를 않느냐고 묻자,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니 곧 구하는 대로 나가겠다고 가죽 장수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했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가죽장수는 집을 구하지 못해 이사를 못한다고 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매한가지였다. 부자 영감이 재촉을 할 때마다 곧 집을 구하는 대로 떠난다고만 했다. 이렇게 한 달이 가고 두달이 갔다. 그러는 동안에 가죽 냄새를 늘 맡아 온 부자 영감은 이제는 전처럼 그렇게까지 못 견딜 지경은 아니었다. 코에 냄새가 배서 싫은 줄도 잘 모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죽 장수를 이사 가라고 야단도 치지 않게 되었다. (나쁜 일도 참고 견디는 동안에 습관이 되어 싫어하지 않게 된다. 나쁜 일도 늘 하고 있으면 나쁜 일 같지 않게 생각되는 것이다.)

바른 民族史觀定立의 必要性 (上)

— 우리 民族國家의 主體性과 固有文化 創造活動을 밝힘 —

柳 洪 烈 〈文博·前成均館大 大學院長〉



지난 7月下旬부터 우리 나라와 日本國 사이에서는 우리 나라 역사에 관한 日本 敎科書의 歪曲事實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論爭을 벌리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民族史觀 定立의 必要性을 切感하게 된다. 이러한 바른 民族史觀의 定立은 먼저 우리 民族國家의 主體性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民族과 國家와의 관계와 우리 歷代國家의 主體性과 固有文化 創造活動을 다음과 같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우리 民族國家

1. 民族과 國家

人間은 社會的, 理性的, 宗敎的 動物로서 작게는 血統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룩하고 크게는 民族을 단위로 한 國家를 이룩하여 문화를 創造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그의 집을 떠나서 살 수 없음과 같이 그 나라를 떠나서 살 수 없는 存在이다. 이러한 뜻에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國家는 인간 최고의 집」이라고 말하였다. 인류는 지구상의 각 대륙으로 分布하여 그 지역의 氣候, 土質, 産物 등의 영향을 받아 皮膚色이 서로 다른 여러 人種을 形成하고 이 人種들은 다시 여러 갈래의 민족으로 나뉘어 각각 나라를 세우고 특유한 문화를 창조하는 한편, 興亡盛衰의 발자취를 남기었다.

이와 같이 흥망성쇠의 자취를 남긴 東西 여러 민족의 문명을 종합적으로 비교 연구하여「歷史의 연구」라는 名著를 지어낸 현대 영국의 역사 철학자 토인비는 인류사상 諸民族文

明의 發生 消滅過程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文明은 환경으로부터의 挑戰과 內部로부터의 이에 대한 應戰이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응전에 실패하였을 때 문명은 멸망하고 성공하였을 때 維持 發展한다.』

이러한 토인비의 史觀에 비추어 볼 때 인류사상에 발생하였던 문명은 自然的 또는 人間的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에 응전하여 실패함으로써 거의 멸망의 길을 밟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찬란하였던 古代 그리이스·로마문명을 비롯하여 漢族의 黃河文明 등이 모두 異民族의 도전에 응전하여 실패함으로써 멸망하게 되었던 일로 證明될 수 있다. 사실상 인류사상에 발생하였던 어떤 민족의 국가나 문명이 수천년 동안 끊임없이 유지되고 발전한 史例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민족의 국가가 멸망하게 된 내부적 원인은 무엇에 있었을까? 그러한 史例의 하나를 로마大帝國의 멸망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8세기 최대의 역사가인 영국의 기본 <Gibbon, E.>은 「로마帝國의 衰亡史」라는 名著를 지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永遠의 都市」라고 불리우며 千數百年의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내부적 원인으로 ① 道德의 墮落과 ② 국민의 利己主義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서 道德의 墮落이란 특히 남녀관계의 淫亂한 행위를 뜻하며, 국민의 利己主義란 私利私慾에 사로잡혀 국민의 단결을 破壞하는 行爲를 뜻한다.

이러한 도덕의 타락과 이기주의는 작게는 가정을 파멸로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크게는 국가를 또한 그러한 길로 빠지게 한 원인이었다. 사실상 한 때 榮華를 누렸던 東西古今의 强大國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밟게 된 내부적 원인이 모두 이러한 두 가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蒙古 인종의 한 갈래인 우리 大韓民族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는 만주평야와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韓半島에 들어와 나라를 세운 이래 이 지역의 자연적 환경의 挑戰에 應戰하여 승리함으로써 특유한 문화를 창조하는 한편 우리 민족을 둘러싼 다른 민족의 거듭한 도전에 응전하여 또한 승리를 거둠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년 동안에 걸쳐 끊임없이 고유문화와 나라를 유지 발전시켜 오는 슬기를 보이게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대륙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奇蹟과 같은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有史以來 끊임없이 나라와 고유문화를 유지발전시켜 오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살길을 찾아 굳게 뭉쳐 自然的 또는 人間的 환경의 도전에 응전하여 슬기롭게 승리한 민족적 주체성에 말미암은 일이었다.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인 韓半島의 地勢는 그 면적의 7割 이상이 山岳地帶로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호랑이의 모습과 비슷하여 白頭山을 머리로 하여 그 등줄기가 東海岸으로 뻗어내려 太百山脈을 이루고 그 꼬리가 멀리 바다로 뻗쳐 濟州島를 이루었으며 등줄기로부터 여러 산맥이 마치 四肢처럼 서쪽으로 뻗고 이 여러 산맥 사이에 긴 강물이 마치 血管처럼 또한 서쪽으로 구비쳐 흐르며 곳곳에 기름진 평야를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韓半島를 가로지른 重疊한 높은 산맥과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강물과 펼쳐진 평야는 우리 민족의 보금자리로 되어 나라를 이룩하고 발전시키는 터

전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 이래 다른 민족의 거듭한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고유문화를 지켜주는 방패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 민족은 유사 이래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은 일은 있었으나 이 침략자들의 군대는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誘導作戰에 빠져 韓半島의 重疊한 산맥과 강물을 넘고 건느는 사이에 氣盡脈盡하여 武力으로 우리 민족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번번이 우리 민족의 굳센 반격에 부딪쳐 물러가고 말았던 것이니 여기에 우리 민족의 自主, 自立, 自衛를 바탕으로 한 主體性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主體性은 국가의 형태와 국토의 범위와 종교생활의 주체와 다른 민족 국가와의 관계 등으로 말미암아 시대적으로 모습을 다르게 나타내게 되었으므로 시대별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다음에 살펴보고자 한다.

2. 古代國家의 主體性

우리 民族史에 있어서 部族國家時代로부터 三國시대까지의 역사를 古代史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은 滿洲大陸과 韓半島를 활동무대로 삼고 山川을 경계로 하여 남북 각지에 원시적인 많은 部族國家를 세워 서로 국력을 다투며 祭天祭祖의 종교행사로 국민의 단결을 굳게 하여 보다 먼저 깨우친 중국 민족의 나라의 침략을 줄기차게 물리치는 사이에 그 문화도 받아들여 스스로를 깨우치게 하는 한편 部族聯盟國을 세웠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고대王國을 形成하고 이후 거듭 侵來한 중국 민족의 나라들과 굳세게 싸움으로써 민족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이 시대는 民族胎動期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부족국가로서 가장 먼저 굳세게 발전한 나라는 大同江流域에서 일어난 古朝鮮이었다. 古朝鮮의 建國者라고 말하는 단군은 하나님의 아들인 桓雄天王이 太白山에 내려와 곰을 女人으로 만들어 그와의 사이에 낳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자이었으니 이 建國神話로써 우리 민족의 開國始祖는 中國 민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天子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古朝鮮은 中國文化의 發祥地인 黃河流域과 往來하기에 편리한 곳에서 일어났으므로 일찍부터 그 靑銅文化를 받아들여 이웃의 여러 부족을 통합함으로써 部族聯盟國을 이룩하고 B.C 4세기경에는 그 영토를 만주의 遼河지방까지 펴게 되었으나 戰國時代인 B.C. 250년경에는 이웃에 있던 燕의 武將 秦開가 鐵製武器를 가지고 침입하여 淸川江 以北의 땅을 한때 차지한 일이 있었다. 이어 中國을 비로소 통일하고 B.C. 221년에 비로소 皇帝라고 일컫게 된 秦始皇帝는 우리 민족의 나라와 싸우기 위하여 B.C. 215년에 처음으로 萬里長城을 쌓게 하였으나 秦은 B.C. 206년에 漢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漢이 다시 대륙을 통일하게 되니 燕人 衛滿은 B.C. 195년에 1,000餘名의 무리를 거느리고 古朝鮮으로 亡命하여 準王의 信任을 받다가 이듬해에 準王을 남쪽으로 내쫓고 韓鮮王이 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우리 민족은 夫餘(滿洲), 濊貊(鴨綠江 中流地域), 眞番(慈悲嶺 以南 漢江 以北), 臨屯(咸南), 辰國(漢江以南의 三韓) 등의 部族社會를 형성하고 漢과의 交貿을 바랐으나 衛滿의 손자이던 右渠는 이를 방해하였다. 그러므로 B.C. 140년부터 처음으로 建元이라는 年號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漢의 7代 皇帝이던 武帝는 B.C. 108년에 衛氏朝鮮을 征伐하고 이 지방에 樂浪(淸

川江 以南 慈悲嶺 以北), 眞番, 臨屯(玄菟鴨綠江中流佟佳江流域)의 四郡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 漢四郡은 곧 우리 민족의 줄기찬 항쟁에 못이기어 B.C. 82년에는 眞番, 臨屯의 2郡을 없애고 B.C. 75년에는 玄菟郡을 북쪽으로 옮김으로써 高句麗라는 部族聯盟國의 성립을 보게 하였다. 이어 A.D. 30년에는 樂浪郡의 支配下에 있던 臨屯 故地에서 토착인 王調의 반란이 일어남을 기틀로 하여 沃沮(咸興지방), 東濊(咸南, 江原道 일부)라는 우리 部族社會가 일어나게 되고, 漢江 以南에서는 樂浪郡과 싸우기 위하여 馬韓(伯濟 등 54國의 聯盟體로서 京畿, 忠淸, 全羅道 地域), 辰韓(斯盧 등 12國聯盟體로서 洛東江 동쪽의 慶尙道 地域), 弁韓(狗耶 등 12國의 聯盟體로서 洛東江 서쪽의 慶尙道 地域)이라는 部族國家聯盟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三韓을 통솔하기 위하여 辰王이라는 總聯盟長을 두게 되었다. 辰王을 馬韓聯盟長으로 삼아서 目支國(稷山)에서 三韓을 통솔하게 하고 중국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만 두었다. 그러므로 三韓의 總聯盟體를 일찍부터 辰國 또는 蓋國이라고도 불렀다. 辰王이 자리잡고 있던 目支國은 韓半島의 中央地帶에 흐르고 있는 錦江流域에 위치하여 作戰上 要地로서 西海를 거쳐 大同江 입구에 있던 樂浪郡을 攻擊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이와 같이 漢四郡의 세력을 쳐 없애기 위하여 그 북쪽에서는 高句麗라는 部族聯盟國이 생기고 남쪽에서는 三韓이라는 部族國家聯盟과 이를 통솔한 辰王을 두게 되었으니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 민족은 自主·自立·自衛의 主體性을 남김없이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의 줄기찬 항쟁에 못이기어 漢은 樂浪郡 하나만을 남기게 되는 한편 玄菟郡故地에서 일어난 高句麗라는 部族聯盟國은 漢과 싸우기 위하여 6代 太祖王 때(A.D. 53)부터는 王位를 高氏一族의 世襲으로 하며, 從來의 部族長을 京鄕의 官吏로 삼으며, 모든 權力을 國王에게 집중시켜 보다 굳센 王國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高句麗 王國은 이후 漢의 玄菟郡을 자주 공격하여 이를 撫順지방으로 옮기게 하고 沃沮, 東濊를 복속시켜 淸川江 流域까지 南進하게 되니, 漢은 A.D. 204년경에 眞番郡故地에 帶方郡을 두어 그 세력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漢은 도리어 A.D. 220년에 멸망하고 이후 45년 동안 중국대륙을 魏, 吳, 蜀의 세 나라가 나누어 다스리게 되며, 그 후 晋이 다시 대륙을 통일하여 50여년 동안 다스리다가 A.D. 317년 이후 270년 동안에는 중국대륙이 5胡 16國 및 南·北朝의 分立으로 內亂에 빠지게 되니, 馬韓의 한 나라이던 百濟는 8代 古爾王 때(A.D. 234)부터 굳센 王國으로 발전하여 차차 馬韓지방을 통합하는 한편, 자주 樂浪, 帶方郡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樂浪, 帶方郡은 高句麗, 百濟의 挾攻으로 領土를 자주 잃어가던 끝에 高句麗의 공격으로 A.D. 313년과 314년에 각각 없어지고 그 땅을 高句麗, 百濟가 차지하여 이후 서로 국력을 다투게 되니, 이에 자극을 받아 韓半島의 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던 新羅라는 部族國家도 7代 奈勿王 때(356)부터 金氏가 王位를 世襲하는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高句麗, 百濟, 新羅라는 세 王國을 이룩하여 이후 서로 국력을 다투게 되었는데 이 세 나라에서는 漢武帝가 B.C. 140년부터 처음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年號의 제도를 받아들여 각각 고유의 年號를 만들어 씀으로써 主體性을 나타내게 되었다.

高麗時代(A.D. 1145)에 新羅王族의 후손이던 金富軾이 지은 三國史記에는 新羅에서 A.D 536년부터 550년까지의 사이에 만들어 쓰게 된 年號로서 建元·開國·太昌·鴻濟·建福·仁平·太和의 일곱가지만을 적고 高句麗·百濟의 연호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없으나 최근 발견된 金石文의 연구로 고구려·백제에서도 신라보다 먼저 고유의 연호를 만들어 썼음이 밝혀졌다. 그러한 고구려의 연호로서는 19대 廣開土王이 卽位年(A.D. 391)부터 쓰기 시작한 永樂을 비롯하여 20대 장수왕의 延壽, 23대 安原王의 延嘉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백제의 연호로서는 27대 威德王의 建興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우리 三國은 주체성을 나타낸 自主的 年號를 만들어 씀으로써 중국의 나라들에 대하여 동등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그들의 거듭한 침입을 크게 물리쳤었다. 그러한 사실은 270여년 동안에 걸쳐 내란에 빠져있던 중국대륙을 다시 통일하게 된 隋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하여 楊子江과 黃河를 연결하는 大運河를 파고(605) 萬里長城을 고쳐 쌓았으며(607) 113만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전후 16년 동안(598~614)에 네 번에 걸쳐 삼킬듯이 쳐들어오던 것을 크게 물리친 일과 隋의 뒤를 이어 다시 대륙을 통일하게 된 唐의 대군이 전후 15년 동안(644~659)에 또한 네 번에 걸쳐 쳐들어오던 것을 크게 물리친 고구려의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그 大國을 한때 極東地域에 멸치는 한편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를 또한 자주 공격하게 되니 신라는 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멀리 唐과 손을 잡고 가까운 두 나라를 공격하는 遠交近攻策을 씀으로써 마침내 660년에는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켜 민족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遠交近攻策은 이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거듭 쓰여지는 外交政策이 되었다.

3. 中世國家의 主體性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統一新羅時代로부터 後三國時代를 거쳐 高麗時代까지의 역사를 中世史라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은 주로 韓半島를 활동무대로 삼고 비로소 한족통일국가를 이룩하며 불교를 국가적 종교로 믿고 海外로 발전하는 한편 중국민족 이외에 새로 일어난 다른 민족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찬란한 불교문화를 이룩하게 되었으니, 이 시대는 民族形成期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신라는 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멀리 唐과 손을 잡는 遠交近攻策을 씀으로써 고구려의 동맥국이던 백제를 660년에 먼저 멸망시켰으나 뜻밖에도 唐은 백제땅에 熊津都督府를 두어 이를 그의 領土로 삼을 뿐만 아니라 663년에는 신라조차 鷄林大都督府라고 불러 그의 영토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신라는 唐軍이 백제를 정복한 다음 곧 그해부터 고구려를 공격함을 알고도 이를 도와주지 않는 민족적 주체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고구려의 독재정치가이던 淵蓋蘇文이 666년에 죽고 그 세 아들 사이에 莫離支(首相) 자리다툼이 일어나게 되니, 그 동생이던 淵淨土는 바로 그해에 12城의 동포 3,500여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내려와 민족적으로 뭉치는 주체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어 고구려가 羅唐軍의 공격으로 2년 후에 멸망하게 되고 그 땅에 唐의 安東都護府가 두어지게 되니 淵淨土의 아들이며, 고구려 마지막 임금

이던 寶藏王의 外孫인 安勝이 4천여호의 동포를 거느리고 669년에 신라로 내려오고 이듬해에는 고구려의 관리이던 劒牟岑이 唐의 官人을 죽이고 또한 南下함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의 30대 文武王은 670년에 安勝을 백제 땅이던 金馬渚(益山)에 살게 하여 고구려 왕이라 부르게 함으로써 고구려, 백제 사람들로 하여금 신라군과 더불어 민족적으로 뭉쳐 671년에 唐軍을 쳐 내몰고 백제땅에 所夫里州를 두게 하였다. 이러한 민족통합의 공로를 갚기 위하여 신라는 673년에는 백제인들에게 벼슬자리를 주고 674년에는 安勝을 報德王이라 부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신라가 백제 땅을 통합하여 민족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니 唐은 신라 文武王의 동생으로서 백제 정벌 때에 唐軍의 副摠管을 지낸 金仁問을 674년에 新羅王으로 삼아서 싸우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唐의 離間策도 金仁問의 불응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신라는 三國人의 힘을 모아 唐軍과 피눈물나는 싸움을 거듭한 끝에 676년에는 드디어 安東都護府를 滿洲로 내쫓고 大同江 以南을 차지함으로써 민족을 처음으로 통일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라의 민족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唐은 다시 이듬해(677)에 일찌기 그 나라에 잡혀가 있던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이던 寶藏王과 백제 義慈王의 아들이던 扶餘隆을 각각 朝鮮郡王과 帶方郡王으로 삼아 옛 땅으로 쳐들어가게 하려 하였으나 이것도 寶藏王이 도리어 만주에서 靺鞨族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며 扶餘隆이 신라를 두려워하여 쳐들어오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었다.

이와 같이 신라의 文武王은 三國人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민족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 이래 처음으로 민족을 통일하는 큰 일을 이룩하고 이후 25년 동안에는 唐과의 國交를 거의 끊는 한편 680년에는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일이 크게 이바지한 고구려의 安勝에게 그의 누이를 시집 보내며 683년에는 그에게 신라왕족의 姓인 金氏를 주어 서울 金城에 살게 하고, 686년에는 고구려 사람들에게도 벼슬을 주어 민족적으로 뭉치게 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민족을 통일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이던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唐에게 빼앗기게 되었으나 이 고구려의 옛 땅에서는 고구려 멸망 후 31년인 699년에 고구려 군관이던 大祚榮이 震國을 세우고 天統이라는 연호를 씀으로써 굳센 주체성을 나타내는 한편 唐과 싸우게 되었다.

震國은 高句麗의 굳센 주체성을 이어받아 926년에 契丹族에게 멸망될 때까지 228년 동안에 14명의 임금이 자리에 올라 大同江 이북의 고구려 땅을 다스려 한 때 海東盛國이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14명의 임금 가운데 10명은 모두 자주적인 연호를 만들어 썼었다. 그러므로 唐은 이 震國을 어루만지는 한편 新羅와 가까이함을 막기 위하여 762년부터 이 나라 임금에게 渤海國王의 稱號를 보내게 되니, 이 나라도 그 후 나라 이름을 渤海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渤海도 858년부터는 唐의 연호를 쓰며 文治에 기울다가 契丹族의 侵入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한편 민족을 통일한 신라에서도 33대 聖德王이 자리에 오른 702년부터 唐과의 국교를 다시 터서 거의 해마다 使臣을 왕래하게 하고 특히 728년부터는 唐의 國學에 유학생을 보내게 되니, 이들의 왕래로 차차 唐을 그리워하고 섬기려는 慕華事大思想이 文臣들 사이에서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780년부터 왕족들 사이

에서 임금의 자리다툼이 거듭 일어나게 되니, 왕족으로서 熊州(公州)都督을 지내던 金憲昌 父子는 822년에 그곳에서 長安國을 세우고 慶雲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므로써 文臣들의 事大政策에 반항하다가 4년만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성을 나타내는 운동은 51대 眞聖女王(887~897)이 음탕한 생활에 빠짐에 따라 다시 일어나 군인이던 甄萱은 892년부터 完山(全州)에서 스스로 임금을 일으켰다가 900년에는 後百濟國을 세우고, 왕족이던 弓裔는 894년부터 松岳(開城)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901년에는 後高句麗王을 일컫다가 904년에는 摩震國을 세우고 武泰라는 연호를 씀으로써 後三國時代를 나타나게 하였다. 이어 궁예는 이듬해에는 서울을 鐵圓(鐵原)으로 옮기고 연호도 聖册으로 바꾸며 911년에는 국호를 泰封으로 고치는 한편 연호를 水德萬歲로 바꾸었다가 914년에는 연호를 다시 政開로 바꾸며 스스로 彌勒佛이라고 부르고 부하를 의심하여 妻子까지 죽이었다.

이러한 궁예의 橫暴에 참다 못하여 그 부하이던 申崇謙들이 918년에 궁예를 내쫓아 죽게 하고 王建을 임금으로 받들게 되니, 왕건은 高麗國을 세우고 天授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며 이듬해에는 서울을 開京으로 옮겨 민족 재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후 475년 동안 우리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터전을 닦게 되었다. 왕건이 이와 같이 주체성을 크게 나타내면서 새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때마침 唐이 907년에 멸망하고 이후 53년 동안 중국이 내란에 빠지며 契丹族이 916년부터 나라(되의 遼)를 세우고 우리 민족의 나라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왕건은 먼저 민족 재통일에 힘을 기울여 後百濟의 공격을 거듭 받고 있던 신라를 은연 중 도와주면서 영토를 넓혀가게 되니, 신라의 56대 敬順王은 935년에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開京으로 가서 국권을 고스란히 王建에게 넘겨 주었다. 한편 이에 앞서 契丹族의 공격으로 渤海가 926년에 멸망하고 그 王子 大光顯이 934년에 수만 명의 동포를 거느리고 고려로 내려오게 되니, 왕건은 그에게 王氏姓을 주어 민족적으로 뭉치게 하고 936년에는 임금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던 後百濟를 쳐 없앰으로써 민족을 재통일하고 영토를 淸川江으로부터 永興지방에 이르는 지역까지 펴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후삼국 분열 이래 45년만에 다시 통일되고 왕건의 세째 아들이던 4代王 光宗도 光德(949~952), 峻豊(960~963)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씀으로써 주체성을 나타내었으나 때마침 滿洲에 세워진 契丹族의 遼國이 고려를 엿보고 있었으므로 960년에 중국 대륙에 세워진 宋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963년부터는 宋의 연호를 쓰게 되었다.

이러한 遠交近攻策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는 이후 북쪽에서 새로 일어난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거듭 물리치게 되었는데 그 첫번째는 993년부터 1019년까지에 이르는 27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침입한 契丹族과의 싸움이었다. 이 契丹族과의 첫번째의 싸움의 결과로 고려는 도리어 국경을 鴨綠江까지 넓히게 되었으므로 고려는 1044년에 이 국경 지대에 千里長城을 쌓아 국방을 굳게 하였다.

한편, 고려에서는 958년부터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科擧를 施行하여 文臣을 뽑아 쓰기 시작함으로써 976년에는 官吏들 사이에 文武의 兩班制度가 생기게 하고 이후 文臣들이 임금을 가까이 하여 권력을 잡게 되니, 이 文臣들 사이에서는 대륙의 나라에 대하여 事大政策을

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文臣 崔弘嗣들은 1107년에 武臣 尹瓘이 女眞族을 征伐하여 쌓게 된 함경도지방의 9城 조차 2년 뒤에는 여진족에게 내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1115년에는 全國을 세우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형님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다. 이러한 文臣들의 事大政策에 분개하여 西京(평양)의 중이던 妙淸 등은 때마침 王位를 뺏으려던 李資謙의 반란으로 開京의 王宮이 1126년에 불타버리자 仁宗으로 하여금 서울을 西京으로 옮겨 全國으로 쳐들어갈 것을 추진하다가 開京의 文臣, 金富軾 등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니 그는 1135년에 西京에서 大爲國을 세우고 天開라고 연호를 만들어 씀으로써 주체성을 보였다. 이 妙淸의 반란은 곧 官軍의 힘으로 가라앉히졌으나 이때 侍中(首相)이던 金富軾은 「以小事大는 先王之道」라고 말하여 主體性을 잃은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이후 文臣들은 임금과 더불어 놀이를 일삼고 武臣들을 몹시 천대하게 되니 武臣 鄭仲夫들은 참다 못하여 1170년에 문신들을 모두 죽이고 이후 89년 동안에 걸친 武臣政治時代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무신정치로 말미암아 고려는 쇠망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1196년부터 63년동안에는 崔忠獻의 가족 4代가 국정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몽고족의 成吉思汗이 1206년에 나라를 세우고 만주로 들어와 고려를 엿보게 되니 崔忠獻의 아들 崔瑀는 1229년부터 珞琥이라는 연호를 만들어 쓰면서 이에 대항하였다. 그러므로 유럽까지 정벌한 몽고족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에 이르는 29년 동안에 여섯번에 걸쳐 고려로 쳐들어오면서도 고려를 무력으로는 굴복시키지 못하다가 柳璥 등이 1258년에 崔氏政權을 무너뜨리고 高宗에게 정권을 돌린 다음 王子를 몽고에 보냄에 따라 이후 고려의 주체성을 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려는 1351년에 恭愍王이 자리에 올라 몽고 배척운동을 일으키고 함경도지방의 국토를 회수하게 될 때까지 몽고족에 항쟁하게 되었으나 이어 1368년에 중국대륙에서 明國이 일어나게 되자 고려는 明과 가까이 하는 遠交近政策을 쓰다가 武臣 李成桂에게 1392년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4. 近代國家의 主體性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李氏王朝의 建國으로부터 25대왕 哲宗 때(1863)까지에 이르는 472년 동안의 역사를 近世史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오늘까지에 이르는 100여년 동안의 역사를 最近世史라고 볼 수 있다. 近世시대의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활동무대로 삼고 朱子學을 국가적 종교처럼 받는 한편 불교를 비롯한 다른 사상을 배척하며 주자학에서 우러나온 忠孝思想과 節槪思想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忠誠하고 義理를 지키는 선비의 길을 북돋우며 처음으로 國文을 만들어 씀으로써 民族文化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한편 儒敎文化를 발전시키고 倭族, 胡族의 侵入을 물리쳤으니, 이 시대는 民族文化暢達期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最近世시대의 우리 민족은 日本帝國의 强要로 비로소 그와 더불어 不平等의 修好通商條約을 맺고 經濟的 侵略을 받게 됨에 따라 淸國과의 衝突을 일으키게 되어 政客들 사이에서는 獨立黨과 事大黨이 생기게 하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淸日·露日戰爭을 치르는 사이에 日本에게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苦難을 겪다가 8·15의 解放을 맞았으나 美·蘇 兩軍의 進駐로 국토는 兩斷

되고 南·北에서 각각 政府를 세우며 同族相爭의 6·25를 겪은 다음 아직 민족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시대는 民族受難期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은 끊임없이 爲政者 또는 民衆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朝鮮王朝의 建國者이던 李成桂는 고려말기에 있어서 등고족이 세운 元의 영토로 되어 있던 함경도지방에서 元의 軍官을 지내던 집안의 後孫으로서 恭愍王의 排元政策에 呼應하여 함경도 지방의 失地를 회수하는 일에 앞장을 섰으므로 1368년에 세워진 明과 가까이함으로써 元과 倭寇를 물리치려는 遠交近攻策을 쓰다가 마침내 새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朝鮮王朝의 對外政策은 이후 대륙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事大政策, 倭族, 胡族에 대하여서는 交隣政策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對外政策은 國際的 安全을 위하여 取하여진 政策이었다.

事大政策이란 대륙의 나라의 연호를 쓰며 사신의 왕래로 文化的, 經濟的 交流를 함으로써 국제적 평화를 꾀한 정책으로써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민족적 주체성을 지니고 强大國의 간섭을 받음이 없었다. 交隣政策이란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하여 자주 침입하던 倭族, 胡族에 대하여 해마다 쌀·콩·織器 등을 대줌으로써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한 撫摩政策이었다. 그런데 3代王 太宗은 胡族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하여 1410년에는 鏡城 이북의 함경도 땅을 한 때 그들에게 내 준 일이 있었고, 1417년부터는 東海의 보물섬인 鬱陵島의 島民들을 모두 육지로 데려와 이후 국민의 해상 활동을 엄금함으로써 倭族과의 紛爭을 없이 하려 하였다.

이러한 朝鮮王朝 初期의 事大·交隣政策은 4代王 世宗의 굳센 주체성으로 말미암아 크게 변경되었다. 世宗은 1420년에 集賢殿을 두어 古制度를 研究하게 함으로써 새 나라의 文物制度를 갖추게 하고, 正音廳을 두어 獨自的 文字인 訓民正音을 만들게 하며, 1425년에는 平壤에 우리 古朝鮮의 開國始祖라고 말하는 檀君의 祠堂을 세우게 하고 1429년에는 新羅, 高句麗, 百濟의 始朝廟를 세워 國家的으로 奉祀하는 主體性을 나타냈다.

한편 그는 1419년에 李從茂로 하여금 倭寇의 근거지이던 對馬島를 征服하게 하고 北方의 胡族에 대해서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한 치라도 줄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1433년부터 鴨綠江, 豆滿江 流域에 살던 胡族을 토벌하게 하여 두만강가의 함경도 국경지대에는 6鎭을, 압록강가의 평안도 국경지대에는 4郡을 둠으로써 국토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倭人들에 대하여서도 1443년에 癸亥約條를 맺고, 해마다 그들은 배 50척이 釜山浦(東萊), 薺浦(熊川), 鹽浦(方漁津)의 3浦에만 와서 쌀, 콩을 각각 100석씩 가져가며, 3浦에는 각각 60명 이내의 倭人이 살 수 있게 하는 恩典을 베풀었다.

그런데 그 후 倭人들은 이러한 癸亥約條의 규정을 어기고 11代王 中宗 때에는 釜山浦, 薺浦에만도 각각 1,000여명의 왜인이 살며 물자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자 1510년에는 300여척의 배를 몰고와 釜山浦, 薺浦에서 소동을 벌이는 이른바 3浦의 亂을 일으켰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3浦의 倭人들을 모두 내쫓고 그들의 왕래를 못하게 하니 2년 후 왜인들은 3浦의 亂의 主謀者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와서 죄의 용서를 빌었으며, 그들과의 사이에 곧 壬申約條을 맺어 해마다 25척씩의 배가 薺浦(1544년에 釜山浦로 변경)에만 와서 100石의

쌀, 콩을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朝鮮政府의 倭人에 대한 物資供給量이 約條를 고쳐 맺음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 때마침 日本은 武士들 사이의 싸움으로 약 100년 동안에 걸친 戰國時代를 나타내고 明과의 貿易을 탐내고 있었다. 이러한 日本의 內亂을 가라앉히고 1590년에 全國을 통일하게 된 豊臣秀吉은 明을 공격함으로써 貿易의 길을 찾고자 하여 1592년에 갑자기 朝鮮으로 侵入함으로써 壬辰倭亂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뜻밖의 倭亂을 맞이하여 朝鮮의 14대 王 宣祖는 義州로 피신하여 明의 援兵을 청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순신은 거북선으로서 倭船을 大破하여 그 氣勢를 꺾게 되고 전국 각지에서 義兵이 벌떼같이 일어나 왜병을 격파하는 主體性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왜병은 明將沈惟敬이 提議한 和平交涉에 呼應하여 4년 동안 싸움을 멈추었다가 그 交涉이 깨어지자 1597년에 다시 쳐들어와 丁酉倭亂을 일으켰으나 朝鮮軍과 明軍의 反擊으로 稷山에서 大敗하고 豊臣秀吉의 死亡과 더불어 물러가게 되었다. 이 倭亂의 결과로 朝鮮은 한때 日本과 國交를 끊고 있었으나 豊臣秀吉의 뒤를 이어 日本을 統一하게 된 德川家康의 거듭한 要請으로 1609년에는 己酉約條를 맺고 해마다 20척의 倭船이 釜山에 와서 100석의 쌀, 콩을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恩典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日本의 德川幕府는 이를 고맙게 여겨 이후 그 將軍이 바뀔 때마다 朝鮮의 通信使 一行 수백명을 釜山에서부터 모셔다가 日本을 구경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1811년까지 이르는 200년 동안에 12회나 있었다.

朝鮮王朝는 倭亂을 치른 다음 丁卯(1627)胡亂을 겪고 胡族이 세운 淸國에 대하여서도 事大政策을 쓰게 되었으나 이 胡亂은 각각 겨우 두 달 사이에 끝나게 되었으므로 義兵이 일어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丙子胡亂 때 義州府尹을 지내던 林慶業은 그 후 明의 副摠兵이 되어 胡軍과 싸우다가 1644년에 잡히어 그들의 온갖 誘惑을 물리치고 목숨을 잃게 되고, 胡軍에게 잡히갔다가 귀국하여 王位에 오른 孝宗은 1653년에 우리 나라에 漂着한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Hamel)들을 軍官으로 써서 淸을 공격하기 위한 北伐計劃을 推進하며, 그 후 羅須佐, 尹휴들이 또한 北伐을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이러한 北伐計劃은 모두 실현을 보지 못하고 1712년에는 淸의 요청으로 白頭山에 定界碑를 세우게 되었다. 이 定界碑에는 西로는 鴨綠江을, 東으로는 土門江을 兩國의 국경으로 삼는다는 글이 새겨졌으므로 이후 우리 國民들은 牧丹江의 上流인 土門江 以東의 間島地方을 우리 나라의 領土라고 주장하고 移住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白頭山이 우리 나라 영토 안에 있음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朝鮮王朝後期의 文藝復興期를 만들게 된 21代王 英祖는 1767년부터 白頭山의 山神을 國家的으로 奉祀하는 主體性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英祖와 그 뒤를 이은 22代王 正祖는 黨派를 초월하여 人材를 登用함으로써 實學과 國文學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主體性을 보이고 1765년에는 九月山의 檀君廟와 平壤의 東明王廟를 改造하여 奉祀케 하며, 1774년에는 金海 金首露王墓에 致祭케 하고 1786년에는 江東에 있는 檀君墓를 修治케 하였다.

그러나 正祖가 1800년에 갑자기 죽고 이후 60여년 동안에는 어린 임금들이 자리에 올라 정권을 그의 外戚들에게 빼앗김으로써 安東金氏(1800~1839), 豊壤趙氏(1839~1849), 다시

安東金氏(1849~1863)의 이른바 勢道政治라는 亡國的 世態를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血族中心의 勢道政治가 거듭되는 가운데 1863년에 12세의 나이로 임금의 자리에 오른 高宗은 그 아버지 興宣大院君 李昰應에게 정권을 맡김으로써 다시 그의 勢道政治를 낳게 하고 처음으로 西洋의 나라와 충돌을 일으켜 最近世史로 접어들게 하였다.

興宣大院君은 세계대세의 움직임에 눈이 어두워 철저한 鎖國政策을 씀으로써 때마침 國內에서 크게 퍼져가고 있던 天主教를 1866년부터 박해하고 이를 따지려고 江華海峽으로 들어온 프랑스 함대를 격퇴하며, 美國商船 General Sherman號를 大同江에서 불사르게 하고 이를 또한 따지려고 江華海峽으로 들어온 미국 함대도 1871년에 격퇴하는 한편 儒林의 根據이던 書院 600여곳을 거의 철폐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던 며느리 閔妃를 싫어하였다. 이에 儒林과 成均館 儒生들이 글을 임금에게 올려 大院君의 은퇴를 요구하고 閔妃가 또한 이를 걸들게 되니, 大院君은 1873년에 물러나 앉음으로써 閔妃 일족의 勢道政治를 나타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비로소 국정을 맡아보게 된 高宗은 日本의 武力的 威脅에 못이기어 1876년에 그와 더불어 不平等의 丙子修好通商條約을 맺음으로써 門戶를 개방하고 이후 경제적으로 日本의 侵略을 받게 되었는데 이 條約에서 朝鮮은 淸國의 年號를 대신하여 開國年號를 쓰게 되었다. 이에 청국은 새삼 朝鮮이 그의 屬國임을 주장하고 中間에서 알선하여 1882년에는 美國으로 하여금 朝鮮과 더불어 비슷한 條約을 맺게 하니 이후 朝鮮은 英國,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의 나라와도 비슷한 조약을 맺고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朝鮮은 1881년부터 日本 陸軍少尉 堀本禮造를 초빙하여 양반 子弟들에게 서양식 軍事教育을 시행하고 日本과 淸國에 각각 視察團과 技工學生을 보내어 見聞을 넓히고 새 技術을 배워 오게 하니 失職한 舊式軍人들은 1882년에 서울에서 이른바 壬午軍亂이라는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淸·日兩軍이 서울에 進駐하게 되며 政客들 사이에서는 日本과 본받아 開化하자는 獨立黨(開化黨)과 淸國에 의지하여 그 세력을 보존하자는 事大黨(守舊黨)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독립당의 洪英植 등은 日本의 힘을 빌어 1884년에 甲申政變을 일으켜 事大黨員들을 殺害하려 하였으나 淸兵의 출동으로 3日天下로 끝나고 徐載弼 등은 美國으로 亡命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과 淸國은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던 끝에 1894년에 일어난 東學革命운동을 기틀로 하여 마침내 싸움을 벌이는 한편 日本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甲午更張이라는 정치개혁을 단행하게 하고 이듬해에는 러시아를 가까이 하려던 閔妃를 죽이고 다음해부터는 建陽이라는 연호를 쓰게 하였다. 이에 高宗도 신변의 위험을 느껴 1896년에 러시아 公使館으로 옮겨가 이후 꼭 1년 동안 머물면서 鑛山開發權, 森林採伐權, 鐵道敷設權 등을 美國, 러시아, 프랑스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다.

이러한 高宗의 亡國的 處事를 보고 1896년에 美國으로부터 12년만에 귀국한 徐載弼은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국민의 독립정신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高宗의 還宮을 청원하니 高宗은 이듬해에 慶運宮(德壽宮)으로 돌아온 다음 국호를 大韓帝國, 연호를 光武라고 고치고 皇帝라 일컬으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한 일본과 러시아는 1904년에 싸움을 벌이고 이 전쟁에서 이긴 日本이 1905년에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게 되니, 高宗은 1907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李相卨 등을 보내어 乙巳條約의 無效를 주장하려 하게 하다가 자리를 아들 純宗에게 빼앗겼다. 이에 純宗은 연호를 隆熙로 바꾸고 日本에게 정권을 농간당하다가 1910년에 국권조차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발생 이후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하여 閔妃를 죽이게까지 하게 되니 그해부터 우리 민족은 각지에서 義兵을 일으켜 抗爭하게 되고 이러한 愛國운동은 乙巳條約 발표 이후 더욱 전국적으로 번져 민족의 주체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운동은 마침내 1919년의 3·1운동으로 발전하고 그 결과 大韓民國臨時政府가 세워졌다가 8·15의 해방으로 美·蘇兩軍의 進駐와 더불어 국토는 양단되고 南·北韓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달리 한 정부를 각각 세우게 되며 6·25의 共産軍 南侵으로 同族相爭의 비극을 겪은 다음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통일의 宿願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도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그것은 민족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 밑에서 이룩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大韓民國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이 北韓의 그것보다 뛰어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유사 이래 숱한 挑戰에 應戰하여 끊임없이 勝利를 얻게 된 즐기찬 주체성을 거울로 삼아 나라의 발전과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여야 하겠다.

<토 막 상 식>

세계 제1의 인구 최다도시는 中共의 上海로 1천만명을 넘고 있으며, 서울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0년도 유엔통계연감에 나타난 각종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도시별 인구(최근집계) : ① 上海(1천82만명), ② 멕시코시티(9백19만1천2백95만명), ③ 東京(8백44만8천3백82명), ④ 서울(8백36만6천7백56명), ⑤ 모스크바(8백9만9천명), ⑥ 北京(7백57만명), ⑦ 뉴욕(7백29만7천7백87명), ⑧ 런던(6백87만7천명), ⑨ 봄베이(5백97만명), ⑩ 리오데라네이로(5백53만9천1백명).

西欧 및 東欧의 共産主義

東유럽에서의 自由化運動이라는 것은 自由主義社會에서의 自由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李 聖 根
<國際政治學博士·明知大學教授>

1. 東유럽 공산주의의 特質

동유럽은 다른 공산국가들과는 달리 그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 서유럽과 공통된 역사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첫째로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동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사실상 카톨릭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대다수가 카톨릭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은 서유럽의 기독교적인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동유럽 공산권 중에는 한 때 자본주의가 상당한 정도 발전되었던 지역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의 공산국가처럼 그 종교적 배경이나 자본주의적 경험이 전혀 달랐던 국가들과는 문화적 감각을 달리한다.

세째로 동유럽의 공산국가 가운데는 2차세계대전 이후 그들 국가들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한때는 상당한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질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을 하였던 나라들도 있다.

그와 같은 정치문화의 배경은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을 하여 보지 못하고 곧바로 공산화된 기타 공산국가들과는 그 배경을 달리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은 현재 공산권에 편입되어 공산당의 일당독재하에서 국민들이 신음하고는 있으나 그 전통적인 문화의 힘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깔려 있으므로 국민들은 공산주의 압정에 저항하여 엄격한 스탈린주의에 일찌부터 반발을 보여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반발은 우선 소련공산당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났고 그와 같은 현상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비교적 공산주의 토착세력이 뿌리를 내렸던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에서였다. 그러나 토착공산주의자들의 뿌리가 없이 2차 대전종전과 더불어 소련의 군사적인 무력침략에 의하여 위성국가가 되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소련에 대한 항거에 못지 않게 자체공산

정권에 대한 항거도 그칠 줄 모르고 전개되어 왔다. 그와 같은 항거의 표시가 때로는 헝거리사태, 체코슬로바키아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사태처럼 전면적인 국민항거를 빚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자유화 운동으로 알려진 개혁주의 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

2. 東유럽 改革主義의 性格

일찌기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밖으로 소련에 대하여는 「사회주의로의 독자노선」을 부르짖고 소련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음을 선언하였고 안으로는 소위 생산체제에 있어서의 「유고슬라비아 모형」을 선언함으로써 기업체 내의 하층노동자들의 자율성 제기와 참여의식을 높임으로써 전체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보려는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유고의 개혁주의 물결 속에 소련의 스탈린체제가 붕괴되고 나서부터는 개혁의 물결이 다른 동유럽공산국가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첫번째 예로 헝가리에서는 「고물가」공산당 서기장이 앞장서 개혁을 선언하였고 그와 같은 운동은 폴란드로 체코슬로바키아로 그리고 동독으로 번져나갔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운동의 선두에 섰으며 체코나 동독에서는 지식인들이 앞장을 서는 형태를 취하였다.

당시 개혁운동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소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자는 것.

② 공산당의 국민에 대한 억압정책을 완화시키고 공산당 운영에 있어서도 독재체제를 지양하자고 주장한 것.

③ 폭력각시적인 선거과정을 개혁하고 정부의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많이 분산시키자고 하는 정치체제의 개혁.

④ 문화분야나 과학분야에서 좀더 자유를 허용하라는 것.

⑤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지 말라는 주장.

⑥ 자유주의사회와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여야 한다는 주장.

⑦ 경제분야에서 분권화를 통한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⑧ 공산주의도 사람의 탈을 쓴 공산주의라야만 한다는 주장.

대체로 이상에서 열거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 50년대 후반기 동유럽의 공산주의국가들에서의 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운동은 소련의 강력한 탄압정책에 의하여 좌절되지 않을 수 없었고 개혁주의 세력들은 무자비하게 숙청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본 동유럽의 자유화 운동 또는 개혁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산주의를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자고 하는 운동으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소련으로부터의 압제는 거부하였으나 소련과 벽을 쌓자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공산주의체제의 강압적인 학정을 비난하고 그 개혁을 부르짖기는 하였으나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유럽의 자유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사회에서의 자유의 뜻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을 인식하여야만 할 것이고 최근에 폴란드에서 전개되었던 자유화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마르크

스주의의 인간의 얼굴을 씌워놓자고 하는 개량주의에 그 한계를 두었음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3. 「유로·코뮤니즘」의 形成過程

「유로·코뮤니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0년대 후반기부터였다. 「산디아고·까릴로」(Santiago Carillo) 스페인 공산당서기장이 1975년 7월 「엔리코·벨링겔」(Enrico Berlinguer) 이태리 공산당서기장과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유럽공산당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서 같은해 11월에는 프랑스의 「마르셰」(Georges Marchais) 공산당서기장이 이태리공산당을 방문하여 양국 공산당의 진로를 협의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75년 후반기에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3국의 공산당 수뇌가 연쇄회담을 통하여 앞으로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선진산업사회에서 공산당이 당면한 문제와 그같은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공산당의 진로를 어떻게 수정하여야만 할 것인가를 고심한 끝에 발표된 결과를 가리켜 유로·코뮤니즘이란 별명을 붙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이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의 초점은 다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그들의 당 강령으로부터 삭제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포기」라는 점과 둘째는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4. 「유로·코뮤니즘」 改革主義의 內容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유럽 3개국과의 공산당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포기를 주장하면서도 소위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진입」에 관한 구체적 전술에 있어서는 각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즉 프랑스공산당의 사회당과의 정책제휴를 통한 집권정당으로의 발돋움전술과는 달리 이태리공산당이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당과의 「역사적 대타협」을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술의 차이는 각기 처한 사회의 정치문화적 풍토와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접어두기로 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수정노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프롤레타리아_독재」의 포기

유로·코뮤니즘의 전략적 특징의 하나가 소위 프롤레타리아_독재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공산당들의 주장이 그러하여 왔고 또 지금도 그러한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사회를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사회에서 고생하던 계층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독재정권을 세운다고 하는 상투적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산업선진국에 있어서는 마르크스가 생각하였던 비참한 노동자나 레닌이 생각하였던 처참한 농민들의 존재는 이미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선동하여 자유주의 사회를 파괴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그것은 자칫 공산당 스스로를 매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산당지권은 폭력적인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인 수단으로,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다수의석의 지배로 이룩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가리켜 의회주의 노선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들이 의회주의를 주장하고 선거를 통한 자유경쟁을 표방하는 이상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복수정당제도의 존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당독재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사회구성원 비율로 보아도 오늘날 선진산업사회에서 육체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다수가 아니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다수에 의한 독재라는 그들의 주장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마르크스가 생각하였던 자본주의의 미래상이 전혀 예측과는 달랐다는 점을 의미하며, 따라서 공산당도 획책묵은 낡은 수법으로는 선진산업사회에서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반대하는 것

유로·코뮤니즘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반대한다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소련의 대국주의적 횡포를 반대한다고 하는 자주노선의 표명인 것이다.

예를 들어 1968년 8월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자유화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그것을 압살하려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체코를 침략하였을 당시 소련은 그와 같은 침략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체코」에로의 침공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소련공산당이 「국제적 의무」라고 강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련의 횡포에 대하여 위협을 느낀 유럽의 공산당들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는 어떠한 지도당이나 지도국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후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5. 「유로·코뮤니즘」의 歷史的 性格

사실상 유로·코뮤니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은 이태리 공산당이었다. 이태리 공산당은 티토나 마찬가지로 일찌기 스탈린시대부터 이태리의 독자노선을 주장하였다. 당시의 이태리 공산당 지도자 또리야치는 만약 레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태리의 실정을 본다면 결코 제정러시아 말기에 레닌이 구사했던 10월 혁명과 같은 수법으로는 공산화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적절한 수법을 갖고 공산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스크바의 공식노선을 거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티토의 자주노선과 또리야치의 자주노선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즉 동유럽의 자주노선 내지는 개혁노선이란 어디까지나 집권정당으로서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공산당 내부의 문제이며, 서유럽공산당들의 자주노선 내지는 의회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사회 내부의 체제 내적 일개의 야당으로서의 공산당이라는 출발점의 차이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로·코뮤니즘의 수정주의적 입장은 자유주의사회에 있어서 산업의 발달과 복지정책의 발전이 변화시킬 내일의 사회상 속에 과연 공산주의세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될 것이며 또 그들은 선진산업사회의 적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치전략과 전술에 수정을 초래할 것인가 등을 예측해 보는데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6. 展　望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지구상에

는 약 90여개의 공산당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1981년 1월 1일 현재 7,671만4,546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와 같은 공산권이 공고한 단일세력으로 뭉쳐있지만은 아닌 것을 움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90여개 공산당 가운데 아시아의 7개 공산당 소련과 동유럽에 9개 공산당, 미주에 1개 공산당 등 총 17개의 공산당이 각기 일당독재의 집권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 나머지는 약 30개가 불법단체로 낙인찍혀 지하로 들어가 있고 약 40개가 합법의 테두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약 20개가 바로 유로·코뮤니즘에 속해 있는 공산당들이고 집권당 중 8개가 바로 동유럽의 공산당에 속하여 있는 나라이다. 한편 10억이 넘는 소련, 중공의 공산권은 그 인구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고 하는 슬로건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유로·코뮤니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슬로건의 포기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공산당이 활동한계와 좌절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生活의 知慧>

⊙ 딸꾹질이 생길 때

딸꾹질의 생리부터 알아보자. 횡경막의 경련으로 말미암아 호흡근과 성대가 동시에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숨이 방해되어 특수한 소리를 내는 증세를 딸꾹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딸꾹질을 멎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류는 지구상에 생겨난 무렵부터 딸꾹질 때문에 고민해왔는지 딸꾹질을 멎게 한다고 전해지는 방법에는 미신적인 것이 많다.

요컨대 횡경막의 경련이 원인이니까 그 경련을 멎게 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그래 의학적으로 수긍이 가는 방법으로는,

○ 숨을 다 내쉬고 나서 숨을 죽인다. ○ 혀를 손가락으로 잡아 빼내어 그냥 빼낸채로 둔다. ○ 컵에 담긴 물을 숨을 쉬지 않고 마신다. ○ 목 옆에 있는 근육을 손가락으로 누른다.

이 밖에도 등을 때려서 놀라게 한다든가 재채기를 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의 방법이면 대개 멎을 것이다. 흔히들 누군가가 깜짝 놀라게 하면 멎는다지만, 놀라게 해줄 사람이 없다면 못해볼 것이다. 그때 혼자서 딸꾹질을 멎게 하는 또 한가지 방법은 좌우측 어느 쪽 손바닥이라도 좋다. 그 손바닥과 반대쪽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듯이 주무른다. 이것만으로 딸꾹질이 멎는 경우가 많다. 언제 어디서나 남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재채기가 나오려 할 때는 어찌나? 그런 때는 먼저 코가 시근거린다. 재빨리 코를 잡고 다소 움직거려 준다. 그렇다면 하품을 멎게 하는 방법은? 혓바닥으로 웃입술을 핥는 방법도 있으나 심호흡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폴란드의 現實

—거기에는 光明이 보였다—

이 글은 뉴욕 매거진의 로렌스 웩슬러 記者가 81年 9月에서 10月에 걸쳐 폴란드 內에서 몸소 체험한 生活手記이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여러 가지 의문스런 의견을 내놓자, 영화제작자인 안드르제즈 초다코우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모순들이 있읍니다. 현재의 사정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현재의 상황은 모순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어떠한 대책도 몇 가지 모순은 면할 길이 없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유재산이 개입되지 아니한 경쟁방법, 즉 경쟁에서 패하더라도 무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읍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모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못해지지는 않겠지요. 아무래도 名單制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카롤 모드젤레우스키는 회관 밖에 있던 일단의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직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긴장이나 위기를 조성하면서 파업에나 의존하는 상황을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의사를 결정 과정에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읍니다.』

自由勞組 全國 週刊誌의 편집자인 타데우즈 마조위에키는 몇피트 떨어져 있던 다른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직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노동자들의 관심을 높여 주고 따라서 생산성을 올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일 노동자들이 노동자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면, 이들은 상황이 요구하는 희생을 기꺼이 바치려 들 것입니다. 소용없는 월급 인상이나 또는 자기들이 일해 보았자 배부른 것은 上典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희생은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것입니다.』

발코니에 앉아서 이같은 토론을 바라보면서 나는 루드비히 비트겐스타인이 쓴 글이 생각났다. 『哲學은 思考 속의 매듭을 풀어준다. 따라서 철학의 결과는 간단해야 한다. 그렇지만 철학하는 것은 철학이 풀어주는 매듭만큼 복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폴란드의 정치적 혁신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西方記者들이 지적하고 있는 자유노

조 개혁안들의 많은 모순점들은 실제보다 더 크게 비쳐지고 있다. 爭點을 파고 들고 보면, 결국 討論의 방향이 직장에서 진행 중인 민주화 과정에 쏠려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자유노조원들은 대체적으로 강력하고 결정적인 공장단위의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맞서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 경영진의 선택방법, 즉 명단제라는 제도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자들을 유능하고, 정직하고, 민감한 관리자로 대체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폴란드 경제를 구해 보려는 것이다. 제1차 회의가 절정에 달하면서 놀란 일은, 자유노조가 이 문제를 끝까지 추구할 태세인데 반해, 폴란드 공산당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共產黨은 上層의 人士들은 손쉽게 改替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가의 진짜 통치권은 당의 중간층 官僚들의 손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만 해도 타협이 가능해 보였다. 양측에서 다 같이 희망적인 징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드고즈쯔 事件이 발생하였다. 세 명의 自由勞組員들이 지방경찰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事件이 사태를 격화시켜, 타협을 방해하려는 中間層 官僚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하튼, 일은 그렇게 발전되었다. 여름 동안 政府는 노동자 직영에 관한 정부측의 새로운 法律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는 黨支配下에 있는 국회통과를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自由勞組의 네트워크도 『사회기업에 관한 法律草案』이란 독자안을 만들어 대항하였다. 의회에서의 투표가 다가오던 9월 8일에, 自由勞組 大會는 의회에 두 개의 선택안을 제출하였다. 즉 政府案을 철회하고 자유노조案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두 가지 案 중에서 택일시키자는 것이었다. 양자택일을 거부하는 경우, 자유노조는 독자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는 명약관화했다. 만일 政府가 이 국민투표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자유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 함축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할 길이다. 이제 남은 건 대결 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강당 밖 복도까지 들려왔다. 매기와 불안, 충천하는 사기와 임박한 위기에 대한 이 중적 감정의 새로운 무드가 大會場을 휩쓸었다. 어느 날 오후, 나와 존 단톤은 회관 밖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단톤이 말했다.

『이 大會는 내가 취재를 맡았던 뉴욕市 의회와 같죠. 회의 진행이 굼뱅이와 같이 느리지만 그렇다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는 없읍니다. 한눈을 파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며칠 후 이 大會의 제1차 회의가 중반에 달했을 무렵, 나는 그가 한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강당 밖 복도에 서 있으려니까 회장 내로부터 커다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기자실로 달려갔다. 기자들이 한 무리 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밀려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한다 말이오? 왜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필요로 해요?』 기자 중의 한 사람이 말했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격이죠』라고 또다른 기자가 말했다.

自由勞組는 방금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루마니아, 헝가리 및 소련

의 모든 공화국 노동자들에게 인사 편지를 보내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 편지는 일부 이렇게 씌여 있었다.』여러분들의 나라에 퍼져 있는 온갖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만명의 회원을 가진 정통성을 지닌 단체임을 여러분들에게 다짐해 두고 싶다.』『우리는 자유노조운동을 위한 투쟁의 험난한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우리 대표들과 만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

다음 날 아침 폴란드공산당기관지 트리부나 루드(Trybuna Ladu)는 이 서한 내용을 조목별로 공격하면서 서한 全文을 게재했다. 참으로 오랜간만에 처음으로 이 기관지는 거의 즉각적으로 매진됐다.

노조대회 제1차 회의가 2주간의 休會로 들어가려는 무렵, 폭발할 것이 폭발하고야 말았다. 모스크바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격렬했다. 모스크바의 석간지들에는 모스크바 郊外의 질(Zil) 貨物自動車工場의 工員들이 폴란드 자유노조의 거만한 각서에 대한 回信文을 채택하는 광경이 보도되었다. 다음날 맨체스터 가디언誌가 보도했다시피, 이 질(Zil) 서한은 『폴란드 사람들에게 蘇聯 덕택으로 그들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들은 자유노조의「선동자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직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東유럽 전체에 걸쳐 그 시절까지만 해도 비교적으로 관용적이었던 헝가리에서조차도 政府들과 언론인들은 이같이 규탄에 합세했다. 폴란드 공산당 정치국은 긴급회의를 열고, 며칠 후에 자유노조가 지닌 반사회주의적 요소와 경향에 대해 지금까지 가해왔던 공격 중에서 가장 격렬한 어조의 공격을 퍼부었다. 이로부터 수삼일이 지나자, 폴란드 공산당 정치국은 소련공산당 정치국으로부터 받은 강경한 어조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행동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蘇聯이 만약 폴란드 공산당이 조속히 이의 權威를 되찾지 못한다면 석유를 포함하는 중요한 자원의 폴란드 공급을 치명적일 정도로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징후가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가지각색의 소문들은 긴박한 재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폴란드는 필요로 하는 석유의 95퍼센트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같이 갑자기 확산된 긴장감은 모든 당사자들이 안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부각시켰다. 한편, 소련의 論評者들은 폴란드의 현재의 경제위기가「자유노조」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재앙적인 생산성 저하가 無政府主義的 정치활동과 목적없는 파업에 시간을 허비한 결과라고 자유노조를 비난한다. 보다 더 그럴듯한 설명은—이는 KOR(노동자변호위원회)의 쟌 리친스키가 펴낸 설명인데—어쨌든 폴란드는 관리면의 실책과 엄청난 外債 때문에 경제적 파국으로 줄달음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량을 사려고 늘어서는 시민들의 줄이 길어감에 따라 식량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自由勞組야말로 폴란드가 산산 조각나는 것을 가로막아 주는 그리고 이 나라가 대대적인 식량 폭동과 무정부상태에 휩쓸리는 것을 가로막아 주는 유일한 존재이다』고 주장한 쟌 리친스키는, 『국민들은 그들의 분노를 한 경로를 통해, 건설적인 비평의 형식으로 토론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많은 자유노조원들은 경제 위기가 전연 蘇聯 때문에 빚어졌다고 비난했다. 石炭이나 硫黃이나 또는 穀類를 실은 화물열차가 東쪽을 향해 폴란드를 떠날 때마다 폴란드 사람

들은 그들이 체념하고 있는 그들의 식민지적 운명을 그리고 끈질기게 달라 붙는 거머리같은 蘇聯에게 희생물이 되고 있는 그들의 처지를 돕시도 안타까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연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본인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견해만 아니라면 폴란드 자유노조의 견해에 同情的인 명성 높은 유럽의 언론인 다니엘 싱거이다. 『확실히 폴란드 사람들은 蘇聯 사람들에게 많은 물자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폴란드는 필요로 하는 天然가스의 95퍼센트를 그리고 鐵鑛石의 90퍼센트를 소련으로부터 얻고 있다. 『소련 사람들은 만약 그러한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일어났을지도 모를 완전 붕괴의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꾸이 그같은 실정을 감수해 온 것이다. 그러나 蘇聯 사람들의 인내심이 영구히 지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로 현재의 위기는 蘇聯 사람들이 對폴란드 석유 공급량을 어떤 임의의 수준으로가 아니라 폴란드 사람들이 現金이나 物物交換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정확한 양으로, 다시 말해서 이는 실질적으로 석유를 전연 공급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데 삭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것은 파국적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싱거는 설명한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의문은 남는다. 왜 自由勞組는 그런 행동을 취했는가? 어째서 이 노조가 온갖 종류의 挑發을, 특히 값싼 도발을 특히 反蘇 도발을 조심성 있게 회피하고 난 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대규모적이고도 쓸데없는 蘇聯을 괴롭히는 도발을 갑자기 감행하고 나섰을까?

이 勞組가 東유럽 國家들에게 보내는 決議文을 채택하기 며칠 전에 생긴 일을 나는 기억한다. 그날 대의원들은 전반적인 경제 위기 대책을 토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갑자기 점심식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긴 休會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서너명의 대의원이 버스를 몰고 30분 거리에 있는 웨스터플라테라는 곳에 다녀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다니스크港 어귀에 위치한 이곳은 42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처음 며칠 동안을 數的으로 월등히 열세인 폴란드 兵士들이 침공해 오는 나치 上陸部隊를 저지하면서 死鬪를 벌인 곳이다. 치열했던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이 방어전의 戰跡地를 기념하기 위해 그때부터 포탄으로 패인 벙커가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전적지 내 墓地 어귀에는 그때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빈 戰車 한 대가 놓여 있으며, 최근에 자유노조는 그 전차 옆에 수수한 十字架 하나를 세웠던 것이다. 그 대의원들은 이 十字架 아래에 花環을 바치기 위해 그곳을 다녀왔던 것이다.

내가 폴란드에서 보낸 마지막 날 오후, 나는 안드르제에 초다코프스키와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틀림없이 폴란드를 위해 좋은 해결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폴란드에서는 지금 경제활동이 너무나 부진하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은 생산성을 3퍼센트 증가시키기 위해 무척 애를 써야만 했을 것이다. 만약 폴란드가 정치 위기를 일단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생산성을 13퍼센트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나는 장담한다. 우리는 광물자원, 비옥한 농토, 고도로 발달한 工業基地, 예외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국민들……이러한 잠재적 財富를 갖고 있다. 어찌면 그 중에서

도 유별난 것이 우리 폴란드 사람들의 아직도 발휘되지 못한 創造力일 것이다! 폴란드 사람들은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햇빛 찬란한 고장에서 자라나 海邊에 가서 휴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몹시도 직장에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들 모든 요소를 통합된 경제 속으로 어떻게 혼합시키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정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성실과 능력을 믿는다면, 그들은 기꺼이 희생 당하려고 할 것이다.』

내가 폴란드를 떠난 후 몇 주일이 지났는데 폴란드로부터 전해오는 보도들은 이 나라가 전과 다름없이 정치적 난국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폴란드 政府는 일련의 가격인상 조치와 도발적인 구급조치를 통해 이 노조의 단결과 決意를 시험해 보고 있는 듯하다. 지난 몇달 동안 그리 해오던 것처럼 自由勞組의 전단을 배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체포되고 있는데, 마치도 當局이 고의로 일반시민들과의 대결을 촉발시키고자 시도하기나 하는 것처럼, 하루 중에 제일 붐비는 시간에 가장 번잡한 시내 광장에서 그들을 체포할 때가 자주 있다.

勞組本部의 통제를 받음이 없이 勞組支部들이 임의로 단행하는 파업들이 全國을 휩쓸고 있는데 10월 중순에 와서는 파업에 가담한 노동자들은 30만명이 넘는다. 蘇聯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폴란드共產黨은 1980년 8월 사태가 난 후에 에드바르트 기에레크를 대치한 바 있는 특징없는 관료인 스타니슬라브 카니아 제1서기를 내쫓았고, 카니아를 다시 보에치에크 야루젤스키 將軍으로 대치했는데, 야루젤스키는 이미 首相과 國防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건한 사람으로 알려진 야루젤스키가 국민들 사이에서 누리는 그의 모든 權威는 즉각 霧散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가진 바 제한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힘의 행사를 거부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바웬사는 自由勞組의 全國委員會를 다루고자 시도해 왔는데, 勞組大會에서 선출된 이 執行部署의 위원 107명은 대체적으로 바웬사 자신의 노선보다는 강경한 노선을 신봉하고 있다.

여러 사건들이 전개돼 나감에 따라 옵저버들은, 대결이 눈 앞에 닥쳐온 이 시점에서 책략의 제반 가능성이 얼마나 多樣한가에 대해 재삼 깨닫게 된다. 어느 때는 雙方이 이미 충돌해버린 듯이 보이기도 하나 충돌의 軌跡에 주의를 집중시켜 살펴 보면 極微의 간격이 尙存하며, 이 간격을 두고 雙方 모두가 긴장했다가는 또한 긴장을 풀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再定義하는데 바쁘다는 것이 밝혀지곤 한다. 양편의 온건파 지도자들은 그들의 상대편과 그들 자신의 출신구의 강경분자들을 다 같이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예를 들자면, 야루젤스키는 부분적으로는 틀림없이 힘을 과시하여 自由勞組와 대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軍隊를 출동시키기는 했으나, 수백이나 되는 農村지역 前哨진지에 파견된 3,4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으로 구성된 부대들을 출동시키는 방식으로 軍隊를 동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그의 蘇聯 君主들과 폴란드 共產黨 조직 내의 地方 强硬派들을 회유하기 위한 제스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당신들은 갖게 만련이다. 이와 비슷하게 바웬사도 부분적으로는 틀림없이 勞組의 團結과 決意가 확고부동하다는 사실을 과시하여 政府와 대결하기 위해 全面的인 1시간 파

업을 주장하는 부르짖음에 동의했으나, 보다 넓은 의도는 勞組 내부의 보다 더 과격한 분자들에 의해 단행되고 있는 일의 파업 조치의 증가 추세를 막으려는데 있다. 하루젤스키는 國會로 하여금 파업종식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키도록 함으로써 대응한다.

바웬사는 자유노조는 간신히 얻은 파업권을 결코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함으로써 이 결의문에 대응하나, 여기에서 그의 일의 파업에 가담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직장에 복귀할 것을 호소하는 몇 마디의 글을 담는다. 10월 말경에 가서는 바웬사의 權威가 다시 한 번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는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파업에 돌입하려는 공장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이 勞組의 결속을 거듭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되돌아가도록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3,4개월간의 겨울철에는 勞組員들의 좌절감이 높아져서 勞組 지도자들의 금간 權威가 더욱 침식될 것같은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문제는 지도층이 내년(1982) 봄까지 계속 지탱해 나아갈만큼 충분한 權威를 지닐 것인지의 여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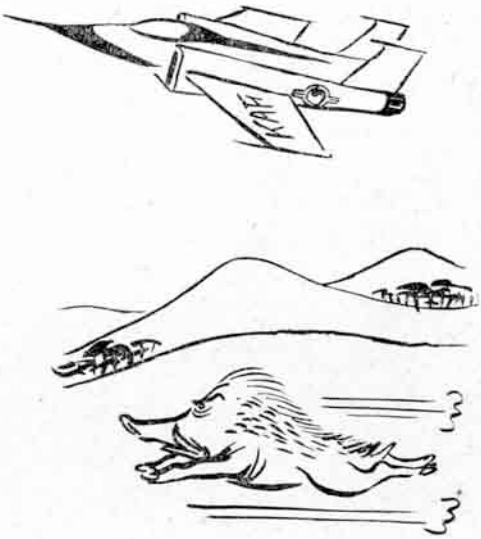
내가 바르샤바에 있는 한 친구와 전화로 대담했을 때 이 문제들을 거론하자 그는 말했다. 『당신들 美國 記者들은 항상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를 내밀거든……전에는 蘇聯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그들의 侵攻이 박두했다는 거였지. 이번에는 겨울이 문제인데, 우리에게 살아 남을 방도가 없다는 군. 하지만 두고 보세. 우리는 살아남을거야.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우리 폴란드가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을 거야.』

<고사·일화>

周나라 武王이 紂를 칠 때 새와 같이 생긴 큰 벌이 날아와 무왕이 탄 배에 앉았다. 무왕이 벌의 모양을 대장 기에 그렸다. 그리하여 주를 쳐서 이겼는데 그 후 이것을 蜂旗라고 하였다.

<拾遺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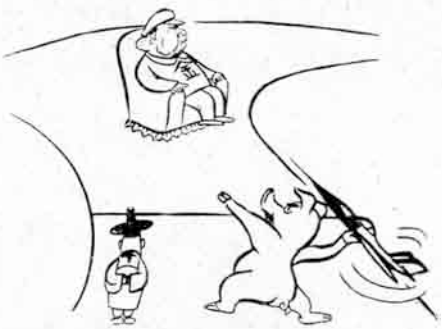
근하 돼지해



땅에는 멧돼지. 하늘에는 보라매.
의기충천 제공권을 한손에 틀어쥔다.



금년엔 모두 돼지꿈을 꿔서 만사
형통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브레즈네프 다음으로 보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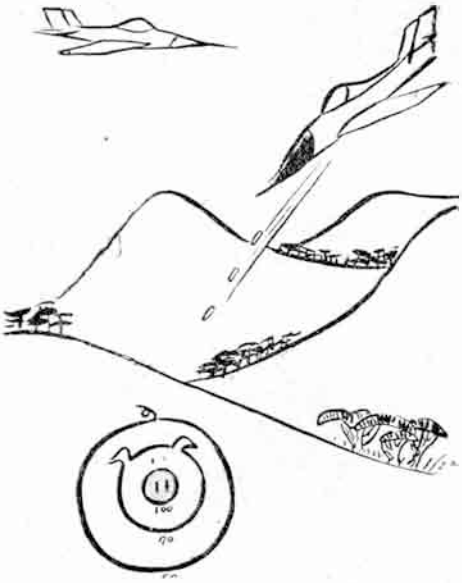
올해의 유행은 두말할 것 없이
돼지 코와 돼지 꼬리 부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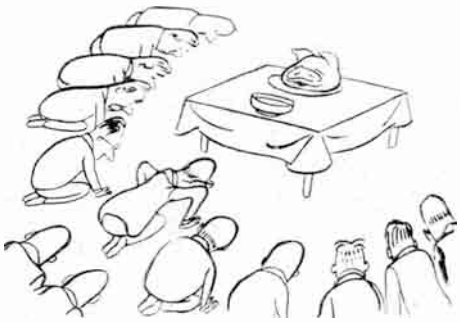
돼지 저금통이 사랑을 받게 될듯……
특히 신혼 부부에겐 필수품

신년을 점친다





돼지표적을 쓴 다음부터
사격실력이 월등히 향상된다.



올해도 절 많이 하쇼
좋은 일 많이 이루게 해 줄테니



세계 소시지계에 큰 이변이 생긴다.
한국산 순대가 등장, 해의 시장을 석권한다.



올해는 돼지띠의 아가씨가
데이트 및 결혼 상대로 최고 인기



건강산업은 호경기를 이룬다.
영양 과잉으로……

이란·이라크戰爭의 敎訓



崔 良 洙 譯

이란—이라크군 간의 전쟁에서, 전쟁초기에 이라크군이 장악한 바 있었던 이란의 Khorramshahr 항구에 대한 주요한 전투로 이란군은 다시 이 항구를 재탈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라크군은 이 도시에 Muhammarah란 새로운 명칭을 부쳐왔으며, 이 명칭은 「피의 전투」를 뜻한다. 그 이후부터 이 도시에는 계속 이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이란측도 이에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고, 전투시 많은 사상자 수와 이라크의 명칭을 연관시켰으며, 「피의 도시」로 이를 불렀다. 이 도시를 재 탈환하기 위하여 전쟁 중에도 이란측은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왔을 수도 있다.

이라크군이 점령한 영토를 재 탈환하기 위하여, 이란군은 Khorramshahr 전투시 3단계의 공격목표를 세웠다. 금년 초에 이란과 이라크군 간에는 새로운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왔으나, 이란군의 실제적인 공격시기는 금년 2월 Shush-Dezful 지역의 이란군 병력집결지에 대한 이라크군의 사전공격으로 지연되었다.

이와 같은 공격의 결과로서 이라크군은 1981년 12월에 상실하였던 Boston읍을 재 탈환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막대한 사상자를 내었고, 거의 1개월 후인 지난 3월 19일에 이란군이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다.

Hiram Johnson씨는, 1917년 미상원의 연설에서,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보고된 인원손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가장 강력한 3개 만국가(Gulf State) 중 2개국(기타 국가는 파키스탄) 간에 있었던 21개월 간의 이번 재래식 전쟁에서, 양국은 사상자와 부상자, 노획품 및 파괴된 적 병력 및 장비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하였다.

이와 같이 불확실한 수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양측의 믿기 어려운 낮은 비용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양측은 어느 국가도 중립국의 Journalist나 또는 군 Observer들의 전투지역의 접근을 한결같이 허용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양측의 주장은 확인이 곤란하다.

초기 전쟁단계

만전쟁(Gulf War)은, 1980년 9월 22일에 발발하였다. 국경지역에서 수차에 걸쳐 심한 충돌이 있은지 몇 개월 후에, 이라크군 부대들은 4갈래로 공격을 하면서 국경을 횡단 공격을 하였으며, 이란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라크군의 2개 기갑사단(전차 약 500대, 주로 소재 T-54/55 및 T-62 전차였으나, T-72 전차도 몇 대 있었으며, 불란서제 AMX-30 전차도 약간 있었음)과 1개 산악사단으로 Qasr-e-Shirin성과 Mehran성, Khuzistan성 그리고 Khorramshahr-Abadan섬을 각각 공격하였다.

국경지역에 있는 도로는 이라크측에 대하여 남·북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란의 산악지역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있다.

이라크군은 이란군의 가능한한 반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경지역에 있는 몇 개의 소도시와 산악요충지를 점령할 필요가 있었다.

이라크군의 일부 산악사단은 정측면공격이 동시에 Baghdad 동쪽 약 160km 지역에 있는, Qasr-e-Shirin성을 압축 점령하였다. 당시 일부 산악사단들은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하여 40km 이상 전방으로 전진하였다. 나머지 산악사단도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Mehran성에서 똑같은 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2개 진격작전은 전체 이라크군의 공격 중 가장 훌륭하게 수행된 공격이었으며, 또한 이란군의 참모기능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작전개념을 수행할 수 없게 한 것 같다.

종교적 및 민족적 배경

전반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 Arab인과 Persian인 간에는 또는 Shiah와 Sunni-Muslim인 간에는 애초부터 애정이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2가지의 반감은,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Sunni 민족이고 거의 모든 Persian 인들은 Shi'ah인이라는 사실로 화해가 되었다.

문제는 20세기에 Persian(후에 이란인으로 호칭)인의 확장주의와 군사력의 확장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만국가(Gulf Country)에 있는 지배적인 집단과 불화 속에 있는 신앙 및 인종 집단들의 존재로 더욱 복잡하여져 왔다.

이 외에도, 만국가들 중, 많은 국가에는 Shi'ah 집단들이 있으며, 이 집단들은 이란 Style의 "이스람교회"의 혁명을 위하여 전달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Kuwait, Saudi Arabia, Bahrain, Qutar 및 아랍제국의 통치자들에게 근심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집단안보를 자극하여 왔다.

정치적 배경

가장 심각한 영토합병은, 1925년에 이란이 Khuzestan성을 획득하였을 때와 1975년에 알제리에서, 이란과 이라크 간에 조인된 협정의 일부로, 이란이 Shatt al-Arab 항로에 대한 제반 원리를 갖게 되됨으써 이라크측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에 Saddam Hussein이 알제이협정을 거부한 것은, 일부는 이란정부가 1979년 혁명 이후 연약해진 결과에 있었던 것 같고, 또 일

부는 Shah정권이 획득한 모든 영토는 반환하게 될 것이라는 Ayatollah Khomeini의 성명에 대한 반응에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반하여, 이란정부는 영국이 만(Gulf)에서 철수하기 바로 전에 장악하였던 Tunbs와 Abu Musa 지역을 반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Shatt al-Arrb에서의 전에 갖고 있었던 항권(Navigation Rights)을 이라크측에 반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라크측의 목적

1980년 9월에 발발하였던 이라크측의 전쟁의 목적은 3~4 가지가 있다고 서방 정보분석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첫번째 목적은 Khomeini혁명의 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Saddam Hussein왕은 Ayatollah Khomeini정권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였다. Hussein왕은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의 미국인 인질사건의 결과로 야기되었던 위기를 다소 경감시키고자 원하고 있었던 미국인들로부터 은밀히 용기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한다.

두번째 목적은, Hussein은 회교신학파들에 의하여, 숙청되고 있는 이란 군부를 약화시키고, 국지적으로 이란세력을 크게 감소시키기를 원하였으며, 이는 이라크를 주요 만(Gulf) 지역의 세력으로서 남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하였을 것이다.

세번째 목적은, 이란의 영토를 장악함으로써, 이라크측은 Khomeini가 약속을 하고도 반환을 하지 않는 Shatt al-Arab에 대한 항권의 회복을 위한 흥정력을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네번째 목적은, 1925년에 합병되었던 Khuzestan 지역의 여러 지역의 반환이었다.

이와 같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된 이면에는 군사적 및 정치적인 다른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성에 거주하는 320만의 주민 중 Khuzestan 성의 약 200만 주민은 아랍인이었으며, 혈족과 언어의 유대관계로 주민들은 침략하는 이라크측의 편에 서게 되었다.

또한 이란의 유전 및 유전시설의 약 80%가 이 성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유전 및 시설의 나포는 휴전을 위한 협상에 큰 구실을 하였을 것이다.

좌절된 이라크의 기대

이라크측의 정보는 최초부터 정확치 못하였다. Khomeini가 권력을 잡도록 한 강력한 혁명세력이 약화될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많은 회교신학파들도 IRP의 통치에 반대감정을 충분히 일으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라크측은 너무 빨리 공격하여 이란정권을 붕괴시킬 수가 없었다.

또한 반대세력의 중심세력으로 행동할 수 있는 망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우기 이라크측이 공격할 당시의 이란군에 대한 숙청은, 불과 여단장급 수준에만 실시되었다. 중요한 전투초기의 공격규모는 중대급(Combat Team) 및 대대급(Battle Group) 수준이었다.

이란부대들의 지휘구조는 대부분이 회교신학파들이 손대지 않은 완전한 상태였으며, 따

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라크군은 너무 빠르게 공격하여 이란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하였더라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이라크측이 소련교관들의 지시를 따랐더라면, 이란측의 각종 약점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란군을 포위하여 분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제2제대에 의하여 적의 저항에 의한 고립지역을 최소한 억제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라크측의 실수

따라서, 전쟁초기단계에서, 충분치 못한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기습의 자산이 낭비되었다. 이란군의 공격력은 전쟁이 시작된 지 약 72시간 후에 저지되었으며, 결코 전략적 이니시에이티브를 회복할 수 없었다.

참모계획도 또한 Hussein왕을 실망시켰다. 이라크군의 행동을 관측한 요르단장교들은, 이라크군은 모든 군이 알맞게 협조할 능력이 없으며, 3군의 협동이 크게 결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신 Platform(선박 및 항공기)과 각종 무기체제로 잘 무장한 공군 및 해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양측은 어느 측도 이 부대를 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한 해상교전도 없었으며, 공중공격은 1대의 항공기로나 2~3대의 항공기 정도로 실시하였다.

특히 많은 미국의 Phantom(F-4D/E 및 RF-4E)과 F-5, F-14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란에 넘겨 준 월남전에서의 경험의 이점을 갖고 있는 이란측은 Linebacker-Style의 공격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양측의 공중지원은 거의 모두가 Gunship 헬리콥터에 의존하였다.

또한 이라크의 참모들은, 그들이 싸울 지상조건을 평가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면에서는 공중의 지원을 받는 중전차대형이 군작전에 최상책인 중동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도 같이 지상조건이 불리하였으며 일부 시사평론가들은 "Tank madness(미친전차)"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지상조건은 1973년에 이스라엘을 실망시켰듯이, 1980년에는 이라크를 크게 실망시켰다.

Khuzestan성과 Khorramshahr-Abadan섬을 공격하였던 2개사단은 중기갑부대였다.

또한 계획관들은 지상과 위수도시를 장악하기 위하여, 제2제대병력을 투입하는데 실패한 것 같다.

전차사단들은 Khuzestan성의 평평한 지형을 횡단하여, 질주하였으나, 아랍주민들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도주하여 도시를 탈출하였다.

더우기 Khorramshahr-Abadan섬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Oil Pipeline망과 시설물의 방해를 받게 되어, 이란군의 대전차팀에 쉬운 목표물이 되었다.

Khorramshahr전투의 교훈

Khorramshahr를 위한 전투에서는, 이라크군은 도시를 함락하기 위하여, 초병의 포격에

크게 의존하였다. 시가전은 경험있는 보병과 많은 기갑부대의 부족으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란군은, 이라크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혁명근위대(Revolutionary Guards)를 이동할 수 있었다. 이는 분명히 이란육군에 대해서는 유익하였다. 이라크군은 이란군에 대해서는 귀찮은 존재였던 신앙광신자들(훈련이 잘 되지 않은)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혁명근위대가 FIBUA (보강된 지역에서의 전투) 전투에서의 많은 사상자를 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이란군은 군기술의 통합을 요하는 작전에 정규군을 투입하였다.

이라크군은 마침내 도시를 함락하였으나 이라크군의 진격은 기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라크군은 그들의 의도를 Abadan섬으로 바꾸고, Karun강을 횡단하여, 고무보트로 교량을 가설하였으나, 도시와 섬 전체를 장악할 수도 없었다.

역시 보병의 부족은 중대한 Handicap이었으며 수주일 후에 이란군은 섬의 대부분을 탈환할 수 있었다.

소모전(War of Attrition) 교훈

이라크군은 최초 72시간 이내에 전의를 상실하였다고 한다. 전의를 상실하였다는 말은 시기상조의 표현이기는 하였으나, 전투개시 최초 3일 안에 이라크측이 주요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결정없이 거의 2년동안 전쟁을 증지해온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란측은 대대급 수준 이상으로 반격이나, 반격침투작전을 계획할 수 없고 이라크측은, 모험을 할 의사가 없는것 같은 상태로 전쟁은 소모전으로 변하였으며, 이는 그들의 o.r.s. 에 가능한 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될 것 같다.

현재까지의 전쟁단계에서 배운 몇 가지 교훈을 일부는 전형적인 것이며, 다른 몇 가지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있었던, 1973년 10월전 이후 NATO와 바르샤바조약군이 추측한 추론을 입증한 것이었다.

전형적인 교훈은, 첫째, 싸우기로 결정한 후에는, 지휘관은 기갑부대와 보병부대를 알맞게 혼성하여, 다소 많은 사상자가 있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부대에 충분히 위임을 하여야 하고, 둘째, 지상은 탄환하여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병부대이며, 보병부대만이 산악지역에서나, 보강된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작전할 수 있고, 세째, 군대의 동기와 사기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란인들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있었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광신에 가까운 신앙적인 열정에 의하여 동요되고 있었다.

한편, 이라크측은 분명한 동기가 없었다. 정치적인 Leadership의 "Persian"의 모험주의에 대하여 Arab 본토를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도록 이라크인들에게 권유하기 시작하였던 때는 불과 1982년 초였다.

네째, 이라크 지휘수단(Generalship)은 양호하였지마는, 보다 하급부대의 지휘수준에서는 군대는 Leadership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 참모업무와 정보평가는 만족한 상태가 아니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정보와 참모임무가 중요하

다는 것이다.

마지막 교훈은, 철저한 방어 중대급(Combat Team) 및 대대급(Battle Group) 수준의 잘 편성된 대형의 전투는 교착상태에까지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고, 재편성하여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 손실면에서의 대가는 크다는 점을 이번 이라크의 공격에서 알게 되었다.

서독주재 영국군의 보다 새로운 각종 교리와 Bundeswehr의 새로운 교리를 위하여, 이번 전투에서 배운 보다 새로운 여러 가지의 교훈은 장려되어야 한다.

방어된 도시와 촌락은 중기갑대형의 부대에 대해서는 죽음과 같은 것이며, 보병의 대전차팀은, 보강된 지역에서 제공하는 엄호 하에 쉽게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다.

가장 훌륭한 대전차무기는, 이제는 다른 적의 전차가 아니고, 대전차미사일로 무장한 보병요원임이 제4차 중동전에서 배운 여러가지 교훈 중의 한 교훈이다.

Khorramshahr과 Abadan지역 근처의 전투에서 이 교훈이 상당한 정도까지 재차 확인되었다.

Susangerd전투

이 단계에서는 주기적으로 전투를 하고는 있었으나, 전쟁은 막바지에 다달하였다. 양측은 전선을 조정하였으나, 1981년 1월 5일 이란군이 2갈래로 공격을 개시하였을 때까지 주요한 교전은 거의 없었다.

이란정부의 권력투쟁은, 이란 육군이 완전한 전투준비가 되기 전에 총참모장으로서 공격명령을 하도록 Abol Hasan Banisadr대통령을 자극하였다.

3개연대의 1개기갑사단(약 300대의 전차로 주로 영국의 Chieftain MBT 전차와 미국의 M60AI 전차로 편성)과 1개 공정연대를 편성하여, Bani-Sadr대통령은 Susangerd의 도시로 진격하도록 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이라크군을 그들의 진지로부터 격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전투에서는 전방에 대한 훌륭한 정보로 이라크군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라크군은 Kharkeh강 쪽으로 몇 km 철수하여 Hoveizeh-Kut-Dube Said 지역에서 3개 기갑연대로서 "매복진지(Ambush box)"를 구축하였다.

이라크군은 퇴각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던 이란군은 매복진지로 돌진하였다. Susangerd 전투는 4일간 계속되었으며, 이 전투는 사실상 쌍방의 2개 기갑사단의 전투로서, 하나는 서방측의 장비이고, 하나는 소련장비이다.

양측의 Gunship 헬리콥터가, 전장상공에서 작전을 하였으며, 전투초기에는 이란의 F-4기는 근접공중지원을 하였다. 우수한 기술과 훈련으로, 이라크군은 전투를 승리하였으며, 사기가 저하된 많은 이란군들은 전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라크군은 미국의 M60AI전차의 성능보다 영국의 Chieftain MBT전차의 성능에 더욱 인상을 받았으나, 소련의 장비 특히 T-72전차가 가장 우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란군은 퇴각하였으며, 이라크군은 이들을

얼마 동안 추격하여 이란 영내로 약 60km까지 침투하여 들어갔다.

이것은 이라크군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반갑지 않은 승리였다. 이란군은 약 150대의 MBT 전차를 파괴 및 노획당하여 손실하였으나, 이라크군은 Hip 및 Hind Gunship 헬리콥터와 같은 기타 장비는 물론, 약 100대의 전차를 손실하였다.

Susangerd 전투의 패배로 이란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혁명군위대의 지위가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Bani-Sadr대통령의 실각에 영향을 주었다.

교착상태

1981년 내내 양측은 소수의 충돌을 계속하였으며, 기상이 허용할 때에는 계속 전선을 조정하였다. 그러나, 장비의 손실과 Oil 총수입의 급격한 감소의 영향으로 전투의 치열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또한 이란측은 세계의 여타 나라들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하였다.

이란이 일부 고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군사원조방식에 있다. 정교한 장비의 정비 및 사용은 미군인이 실시하여 왔으며, 이란인들은 모든 무기체제에 대해서 아직 훌륭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지의 저장방법도 쉽사리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비축물자의 정비 및 교체도 잘 하여 주지 않았다. 많은 부품과 기타 품목들을 저장 장소에서 분실하였다.

이란은 감소되는 일부 외화를 사용하여, 공개무기판매시장에서 각종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미국방성은 이란이 제3국을 통하여 무기를 구입하는 한, 미국장비의 판매에 대한 시선을 이란으로 돌렸지마는, 브라질과 특히 이스라엘 등지에서 많은 장비를 구입하였다.

이란의 이상한 동료(Bedfellows)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아랍속담이 있다. 이와 같은 속담에 따라 Khomeini의 이란정부는,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아 및 이스라엘과 공통된 원인을 발견하였다.

1981년 한해 동안, 이 국가들은 이란에게 각종 부품과 대치부품 및 완전한 체제 그리고 훈련 등을 제공하였다. 구라파국가 및 소련과의 거래로, 이란의 몇 가지 재건설 및 재개발 계획에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도록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예멘공화국에서도 도움이 있었다.

이란은, 일본, 미국(1982년 초 이후) 및 동구라파의 새로운 구매국들에게 판매한 Oil 판매의 총수입으로, 수입한 금액을 상당히 지불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판매는 OPEC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종종 판매되었고, 이란의 오일 수출량은 매일 70만에서 1백만 배럴까지 달하였다.

이라크에 대한 지원

1981년 중에 유사한 위치에서 이라크는 그 자신을 발견하였으나, 금년 초에 시리아가 송유관을 차단할 때까지 시리아의 북쪽 코너를 통하여 터어키로 들어가고 있는 육로 송유관을 통하여 이란보다 더 많은 Oil을 수출할 수 있었다.

장비의 대치와 새로운 구매기금을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소규모 만(Gulf) 국가들이 도와 주었다.

또한, 요르단은 지원병부대의 급파로 직접적인 군사원조를 제공하여 왔으며, 요르단은 오랜 기간동안 Saddam Hussein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유일한 아랍국가였다.

부품과 Hardware는, 이집트, 요르단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공하였다. 이라크는 이란의 전력과 혁명적 이스람 정통파 기독교에 대한 Khomeini의 두뇌수출에 반대하여, 그들 자신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

이란군의 반격

1982년 초에, 충분히 장비의 손실을 보충하고, 많은 해외동맹국들을 획득한 후에, 양측은 대대적인 춘계공세로 한판의 치열한 전쟁을 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란군은 그들 자신의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반면에 이라크는 확실한 전략적 목적도 없는 끝없는 전쟁에 점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이라크의 지도자들은, 1980년 9월 이후, 적어도 2회 정도 전쟁의 목적을 변경한 듯하며, 이에 따라 이라크군은 혼돈하게 되었으며, 이는 "Master Principle of War"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라크군은 금년 2월에 이란군의 여러 집결지를 공격하여, 이란군의 공격을 지연시켰고, Bostan읍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라크군은 3월 17일에 더 많은 이란군의 집결지를 공격하였으나, 이란군도 3월 19일 Shush-Dezful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할 수 있었다.

한국전 이후, 잘 알려진 전술을 이용하여, 이란군은 이라크군의 방어진지에 혁명근위대의 대병력과 10대 지원병들을 투입시켜 방어진지를 탈환하였다.

이라크군은 많은 포로를 잡았으며, 100명의 이란군을 사살하고 많은 장비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이라크의 제4육군은 심한 피해를 입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란군은, 이라크군의 이 퇴각을 큰 승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장과는 달리 이란측이 크게 승리한 것도 없고, 이라크측이 크게 패한 것도 없는 것 같다. 양측의 손실은 극심하였으며, 이라크 육군은 국경에까지 도달하였지만, 이라크의 제4육군은 이란군과 직면해 있는 이라크내의 방어진지까지 후퇴하여 재편성하였다.

이란군의 전술목적

이란군의 제1단계 공격에는 2가지의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 첫째, 작전을 협조 및 지휘하는 육군과 더불어, 혁명근위대에 의한 인해전술의 사용이었다. 아마 이와 같은 낭비전술은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Milan 및 Sagger ATGW 대전차미사일을 사용하는 이란육군의 대전차초계부대에 의하여 이라크의 많은 전차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제4차중동전에서, Sa'ad El-Shazly대장의 값진 아이디어를 재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란군의 제2단계 공격은 전투 중인 Ahwaz 지역에서, Khorramshahr 지역을 향한 도로를 이용한 맹공격이었으며, 이 지역은 5월 중순에 도달하였다.

제3단계 공격은 현재 이라크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의 탈환작전이었으며, 이 도시는 1주일 후에 겨우 탈환하였다.

전 망

이라크군의 Khorramshahr 전투에서의 패배는, 전쟁의 종말이나 휴전 및 협상을 하게 될 전환점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러나 Saddam Hussein 정권은 적어도 당분간은 붕괴될 것 같지 않다. 이는 1967년 6일전쟁 이후 Nasser를 중심으로 그러했듯이, 아랍인은 역경의 시기에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데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라크군의 패배로 Khomeini Style의 이슬람혁명의 공포에 놀란, 기타 온건파 아랍국가들(특히 이집트)을 뭉치게 한 결과가 되었다.

만약에 이란육군이 이라크 영내로 계속 진격한다면, 요르단 및 이집트 지상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크며, 강대국들을 자극하여 이란이 협상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 같다.

장비물자 선용하여
제공통일 이룩하자.

未來의 戰術 戰鬪機



尹 炯 基 譯

NATO는 완전히 새로운 고성능 전술기인, F-15, F-16, Tornado, A-10 및 Harrier GR5 (AV8-B)기 등으로 새로이 재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의 양상은 새로이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설계개념에서 실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신무기를 도입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차기세대의 전투기의 설계에 주의력을 집중할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1995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 미래의 유인전술기에 대한 몇 가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공중전의 개념을 토의할 때에는, 확실한 여론적인 의견을 얻는데 항시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우리들이 전면전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에서, 더욱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여론적인 의견을 얻기가 더욱 곤란하여 지고 있다.

과거 35년 동안 NATO의 공군은 어느 공군도 적과 공중전을 한 바 없으며(월맹지역에서 미공군을 제외하고는), 또한 1940년대 이후부터 그리고 한국동란의 초기단계 이후부터 미군은 어느 군도 적의 지속적인 공중공격 상태 하에서 전투를 한 바 없다.

따라서 미래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난날의 교훈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불확실한 각종 요소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위협의 변화

독자들은 구라파전장에서 NATO에 대한 각종 위협을 잘 알게 될 것이지만, 그 위협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에 바르샤바조약군의 공군력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음이 분명하다. 바르샤바 조약군은, 주야간에 NATO의 깊숙한 영공지역에서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속거리와 무장하중 능력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전술기를 개발하여 왔으며, 또한 각종 방공체제를 전개하여 왔다.

더우기 지휘 및 통제망의 유연성이 향상됨에 따라 바르샤바 조약군의 각종 장비의 현대화가 뒤따르게 되었다.

앞으로도 바르샤바조약군은 모든 분야를 계속 보강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저고도 목표

물과 교전할 수 있는 레이다, 전자광학장비 및 Laser sensor의 능력을 계속 보완할 것이다.

컴퓨터기술과 전자장비 소형화에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적인 신속한 발전은 공격기와 방공용 Sensor, 유도체제 및 Counter-measures의 향상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레이다 분야에 있어서는 양진영 간에 유지될 균형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피동전자광학 체제는 고고도에서는 기상의 영향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저고도에서 방공용으로 많이 사용될 것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동 전자광학체제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될 때에는 아공군은 중고도 및 고고도에서 작전할 수 밖에 없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구라파에서 조우되는 평균기상조건에서, 여러 가지의 목표물 포착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특히 소형 이동목표물에 대하여 각종 포착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밀리메터레이다의 개발로 이점을 보완할 수 있다.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더불어 공격과 방어간에 새로운 기술의 균형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여 왔음을 군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저고도에서나, 고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항공기의 전자장비 및 무기를 이상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중엽 이후부터 각종 무기로서 레이저광선의 사용의 가능성이 인식되어 왔으며 육안 및 전자광학 Sensor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출력이 비교적 낮은 레이저 무기가 가까운 장래에 개발될 것 같다.

각종 구조물에 피해를 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다 강한 형의 레이저무기가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대기권 내에서 레이저의 효과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확산, 흡수 및 이온화문제는 레이저광선의 몇 km의 거리 밖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우기 레이저광선은 기상에 의하여 약화될 수도 있으며, 일반적인 다른 발사체보다 대응수단(Counter-measures)으로 쉽게 무력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우수한 추적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레이저무기는 기존 방공무기보다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레이저무기의 소개는, 현 체제를 대치하지는 못하고 보충무기로 사용될 것 같다.

항공기와 미사일 관계

미래의 공군력에 대한 어떠한 논쟁에서도, 유인항공기의 생존력에 대한 문제는 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항법 및 터어미널 유도체제는, 적진 깊숙이에 있는 비행장이나 기타 주요 고정시설물을 공격하는 유인항공기의 대용무기로서 간주될 정도까지 Stand-of 미사일의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재래식 미사일은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보다 비용 대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파괴력과 정확도 및 생환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만족하여야 한다.

그 예로서, 재래식 순항미사일은 유인항공기와 똑같이 적의 방공체제에 취약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하중과 Countermeasures 및 방공제압능력의 최적균형 외에도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간의 최적균형을 유지케 하면 적의 공격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균형을 결정하는데는 전술기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알맞게 고려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계기준과, 전자장비/무기의 적합성을 감안해 볼 때, 항공기는 우선 순위에 따라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항공기는 이동목표물을 발견 파괴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신속히 화력을 집중하는데, 다시 말해서, 기습공격을 저지하고 기갑부대의 돌파작전을 저지하는데 신속히 화력을 집중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래식 미사일은 일부 공격임무용으로 보다 비용 대 효과적임이 입증될 수는 있지마는 가까운 장래에 유인항공기의 보충무기로서 사용될 뿐, 이를 대치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전술공중작전에서, 조종사는 가장 유연성 있는 자원이라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으며 이 말은 사실이다. 각종 시나리오상의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EW가 탁월한 부분으로 사용될 복잡하고 혼돈되는 전투 및 유동적인 지상작전사항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볼 때, 항공기에서 조종사를 제거시킨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간주된다.

미래전투기의 각종 특징을 토론하기 전에, 전통적인 각종 전술공중임무를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

바르샤바조약군은, 교리상 기습공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NATO군이 완전히 기동 및 전개할 수 있기 전에 기습공격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NATO군이 질적으로 약간 우세하기는 하나, 바르샤바조약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특히 전쟁 초기 단계에서 공군력의 사용이 절대로 필요할 것이다.

바르샤바조약군이 그들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까지 바르샤바조약군을 저지시키고,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대 기갑전술을 사용하는 지상군과 잘 무장된 공격지원항공기를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유인항공기와 미사일의 혼합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전투지역 상공에서 공중우세를 획득하여, 적이 아군의 영공에서 자유로이 작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련이 성능이 보다 우수한 대지공격기와, 공중우세전투기를 계속 소개하고 있으므로, 바르샤바조약군이 그의 비행장을 소개시켜, 우리에게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출격회수를 감소시키는 일이 점점 중요시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격대공임무(OCA : Offensive Counterair)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시 될 것이다.

미래의 어떤 전격작전에서는 목표물에 관한 정보의 적시 및 정확한 요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공위성은 평시에는 가장 값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전시에 이를 공격할 수 없음이 문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의 Output는 시기의 적합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정교한 Stand-off Sensor로 무장한 우수한 항공기는 바르샤바조약군의 전투기와 장거리용 미사일에 주요 목표물이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적 영역에 일부 제한된 일부 지역만 Cover하기 위하여 FEBA선 훨씬 후방에서 비행하여야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영역을 침투할 수 있는 보충적인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정확한 무인기와 Wide-angle Sensor가 개발되고 있으며, 비록 고가이기는 하지만 이들 무인항공기의 취약성을 상당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Stealth기술을 포함한 각종 자체보호기술을 이용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Jamming과 기타 Counter-measures에 체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Data Link 방식은 실시정보를 Pass하고 항공기가 격추된다 하더라도 정보의 분실의 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 같다.

그러나, 1990년내 후반에 무인기가 FEBA선 훨씬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것이라면, 자체에 방공제압무기를 장착하게 될 것이며, 소모용이 아닌 다른 임무용으로 사용될 RPV는, 유동적인 전투상황에서 중요한 전술적 목표정보를 입수하는 유인항공기보다 더 비용 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항공기와 무인기는 상호 보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항공기는 적의 보다 깊숙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사용될 것이며, 무인기는 FEBA선의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사용될 것 같다.

장래의 항공기 설계

미래의 전술기에 필요한 주요한 각종 성능을 감안해 볼 때, 전체무기체제의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시초부터 항공기와 기상(機上)의 각종 체제 및 각종 무기는 서로가 양립할 수 있고, 제반 요구에 긴밀하게 필적되어야 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이들 체제의 취약성을 최대로 감소시키면서, 치명성과 유연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의 임무효과는 적이 군사력에 의하여 그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적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단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2가지의 주요한 요인 즉, 항공기의 이용성과 항공기의 능력은, 임무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구라파에서 어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에는 NATO의 주요 비행장들은 바르샤바조약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목표물이 될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그들이 공중우세를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요 활주로가 산개될 것이므로, 이용성면에서, 확실히 재래식 고정익 항공기보다 STOVL기가 여러 가지의 큰 이점을 제시할 것이다.

항공기의 능력(파괴능력 및 소티율)은 보다 복잡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STOVL기의 하중 및 항속거리능력은, 앞으로 실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 예로서 AV8—B기는 Harrier기보다 거의 2배나 향상되었다. 그러나 STOVL기는 작전상 최대의 유연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STOVL기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원상회복력과, 점점 효과적인 적의 OCA 능력의 효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우수한 가능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단기 재래식 작전이 될 대규모 구라파전에서 신속한 전진을 위한 주요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임무의 효과면에서 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요인을 NATO군의 공격지원부대에서 STOVL기를 중심으로 여러 각도로 그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전반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앞에서 어느 정도의 공중우세를 획득하기 위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초기 전투단계에서 NATO가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전쟁 초기부터 훌륭한 공중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전장지역에 대해서는 더우기 공중우세가 필요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공격과 방어간에 상호작용은 점점 더 복잡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균형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공중우세 전투기로서도,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는 대지공격기를 설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중우세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항공기의 민첩성은, 공격지원임무시 성공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각종 무기를 투하하지 않고도 적의 방공망을 피하여 적 전투기의 공격을 저지시키는 임무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속도가 빠른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동성이 우수한 항공기의 필요성이 점점 감소될 것이라고 종종 말하고 있으나, 항공기의 민첩성이 10% 증가함은, 미사일성능의 약 20% 증가와 대등함이 철저한 연구결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더우기 향상된 IFF체제는 치열한 구라파의 중앙지역에서의 공중교전을 도울 것이 분명하며, 밀집된 전자전환경에서, 작전하는 항공기의 수는 초기의 식별을 계속 곤란하게 할 것이다.

주요시 되는 여러 가지의 이슈를 강조하기 위하여 미래전투기의 각종 임무와 능력에 대하여 언급하여 왔다.

미래의 어떤 전투기체계는, 야간 및 전천후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레이다와 피동 전자광학센서분야가 개발되면 전술기는 야간 및 전천후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센티미터 및 밀리미터 레이다를 모두 개발할 수 있으며, 이 레이다는 ECM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방사를 제어한 것이다. 동시에 지형추적과 Ground mapping 및 방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Mutti-mode 능력의 이와 같은 레이다는, 미래의 다목적 전술기용으로 이상적일 것이다.

피동 Sensor는 적외선 신호를 사용하는 군사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이상적이다.

전자광학장비는 상당한 야간 및 전천후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공중자산을 최대로 유연성 있게 사용하고, 적이 공중공격에서 계속 피해를 입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장비의 선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연성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간단한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짓고자 한다. 이 기사에서는 전략적 침투기와 특수 방공용 항공기는 고려치 않았으며, 이들 항공기는 이 기사의 영역 밖에 있는 것 같다.

전술공중전에서는, 대공, 후방차단, 정찰 및 공중지원에 대한 각종 요구가 계속될 것이며, 전자광학방공체제의 사용으로 보다 낮은 영공의 사용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지만, NATO는 금지하도록 된 유인항공기로서, 이와 같은 각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한편, 미사일과 RPV는 어떤 목표물을 공격 및 정찰하기 위한 매우 적합한 비용 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미사일과 RPV는 유인 항공기에 대하여 충분히 보충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적에게는 또 하나의 몇 개의 어려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재래식 ALCM은, 비록 소련 내부에 있는 목표물이라 할지라도, 대공목표물이나 기타 주요 고정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기의 유효항속거리를 확대할 수 있다.

유연성은 공군력의 주요한 요소이며, 전술전투기는 공격 및 방어능력이 있어야 한다. 24시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우수한 민첩성과 전자장비는, 또한 설계상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끝으로 STOVL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르샤바조약군의 OCA 능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보다 탁월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전술기를 개발하는데에는 평균 인플레율 이상으로 비용면에 있어서 현재의 실질적인 증가를 억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NATO 공군과 항공기 제작회사들은 이와 같은 면에서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체와 전자장비 및 무기기술 면에서, 새로운 각종 물질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앞으로 항공회사측이 제공할 수 있는 가격수준으로 각종 새로운 무기체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되리라는 몇 가지의 고무적인 징후가 있다.

우수한 공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실패의 대가는 더욱 클 수도 있다. 이는 효과적인 공군력이 없이는 적의 공격을 방해하거나 필요시 저지할 수 있는 동맹국의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

最新 航空用 複合材料

尹 龍 鉉 譯

1. 머리말

엔지니어가 고안할 수 있는 모든 設計에는 반드시 그 제품에 使用될 材料의 特性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어떤 재료의 특성을 모르고서는 그 材料의 응용이란 不可能하다. 아무리 理論的으로 가능한 기계장치의 설계지만 현존하는 재료로써 적합치 않은 경우에 한계에 부딪치는 사례가 많다.

高强度의 가벼운 로케트선체의 외피재료, 섭씨 수백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가동될 수 있는 電子裝置, 또는 핵반응의 조절 등 機械, 電子, 航空, 原子工學 등 全 工學分野에서 새로운 재료를 設計에 이용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개량된 特性을 가진 새로운 재료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工業發達의 열쇠가 될 것이다.

航空工學에서 항공기의 주구성 물질로 알루미늄이나 알미늄합금 물질을 그동안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F-14의 앞전에 티타늄합금을 사용함으로써 空氣力學的 熱傳達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重量도 줄일 수 있었다.

최근 들어 탄소와 붕소섬유물질에 수지를 혼합한 항공기용 복합재료나 각종 합금 그리고 세라믹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재료들이 공학의 새로운 時代를 열고 있다. 특히 복합재료는 현재 선두주자로서 그 특성인 중량, 강도 및 견고성을 고려해 볼 때 항공기 설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기 형태의 새로운 개념을 낳게 되리라고 오래 전부터 예측되어 왔다.

이제까지 공학은 어떤 기계장치를 설계할 때 사용이 가능한 재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므로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지만 최근의 보다 가볍고, 강하고 질기며 효율적인 복합재료의 出現으로 기계설계의 폭을 훨씬 다양하게 하였다. 또한 가볍고 견고함을 重要시하며 開發했기 때문에 항공기 設計에 있어서는 중량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研究開發이 向後 10년 以內에 놀라운 發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 복합재료란 무엇인가?

복합재료는 약 40년전 접합제 (Binder)로 강도를 높인 Fiberglass가 開發되고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약 20년 전에 붕소 (Boron)와 흑연 (Graphite)으로 만든 섬유가

상업용으로 등장(Debuts)하면서 섬유복합재료 개발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몇몇 새로운 Fiber가 이러한 새로운 중요 목표로 첨가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복합재료가 고급복합재료라고 알려졌으며 일반적인 意味로 사람들은 종래의 Fiber Glass 보다 더 높은 강도(Stiffness)가 있으나 밀도는 더 낮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복합섬유재료는 흑연(Graphite), 붕소(Boron), 규소(Sillicon), 카바이드(Carbide), 반토(Alumina)와 같은 섬유질을 포함한다. 또 다른 범주에 속하는 고급섬유복합재료는 Kevler(Dupont社의 상표이름)로 일종의 Aramid섬유라 한다.

以上과 같은 고성능 섬유복합재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分類하게 된다.

첫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탄소섬유(Carbon Fiber)다. 이것은 비결정(Amorphous) 이거나 흑연(Graphite) 成分을 지닌 것으로 상표로 불려질 때는 흑연섬유라고 한다.

상업용 Carbon Fiber Polyacryloitrile(PAN) 섬유로 만들거나 Pitch(원유정제 때 사용되는 (Catalytic Crackers에서 發見되는 찌꺼기)로 만들어진다.

PAN은 Pitch보다 품질이 나은 재료고 이것의 원료값 또한 1파운드(½kg)당 18불에서 500불 사이의 값이며 평균가격은 약 30불 정도다. 그런데 초기에 인조견사(Rayon)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탄소섬유에서 사용하는 원료였다. 이것을 2,800°C까지 가열하여 가공했을 경우 1파운드당 최소 1,000불에 달하는 價格이었다.

한편 Pitch는 Carbon Fiber의 새로운 원료로써 이것은 PAN 보다 상대적으로 더 싼 Carbon Fiber의 원료로 추천되긴 하지만 제품의 질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않다. 다 같은 Carbon Fiber이지만 PAN Fiber는 보다 Strength하고 Pitch에서 뽑아낸 Fiber는 Stiffness가 높다.

두번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Aramids라는 고급복합재료로써 이것은 Kevler와 같은 Aromatic Polyamide 재료로 매우 가벼운 섬유질이다.

세번째 범주는 붕소섬유질(Boron Fibers)로 이것은 텅그스텐 필라멘트(Tungstein Filaments)에 침전된 붕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性能은 좋으나 價格이 매우 비싸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범주 중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고급 섬유복합재료가 탄소섬유질(Carbon Fibers)과 붕소섬유질(Borom Fibers)이다. 이 두 섬유물질이 소개됨에 따라 이들 섬유물질은 금속물질보다 强度面에서나 견고성에 있어서도 더 우수함이 입증되었으며 이들 섬유물질로 보강한 플라스틱 물질도 아울러 개발하여 왔다.

대부분 금속물질의 전단응력계수(Shear Modulus) 對 탄성계수율은 대략 2.5이다. 그러나 탄소섬유질 및 합성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복합재료일 경우에 그 비율은 0.04~20이다. 이와 같은 수자상으로 보아서도 복합재료의 설계를 이상적으로 하기 위하여 탄소섬유질 플라스틱형으로 구성할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탄소섬유질합성 Panel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층은 Orthotropic Property가 있는 Prepregs(수지와 혼합한 탄소섬유질 테이프)로 만들어졌다.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들 각 층에 있는 Orthotropic property는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탄성계수가 섬유질방향으로 직접 작용하는 한편 제일 높은 Shear Modulus도 섬유질 방향의 45도에서 작용한다. 따라서 섬유질 Panel을 제작할 때는 전단력과 수직으로 받는 압력을 각 층별로 고려해야 한다. 이들 압력은 복합재료의 각 층별 구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설계 및 계산에 있어서 기술자들은 금속물질보다 각 분야별로 훨씬 높은 기술수준을 要求한다.

과거에 복합재료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된 問題點으로 대두되었던 사항들은 각종 요소의 구성, 계산기술, 안전성, 적재용량, 설계기술, 조립, 피로행태(Fatigue Behavior), 충격에 대한 강도, 침식, 부식, 온도행태(Temperature Behavior), 섬광에 대한 보호, 제반시험절차 등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감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복합섬유물질을 만드는 데 기본적인 규칙이 있었다. 그것은 부품을 제작시에 오직 한 가지 섬유물질로만 만들어야지 다른 금속물질과 결합해서도 안 되고 고정시켜서도 안 되었으나 이 문제 또한 해결되었다.

현재 복합재료를 제작할 때는 Epoxy, Phenolic, Polyester, Polysulfone, 혹은 Polyphenylene Sulfide 같은 재료를 어떤 틀(Matrix) 內에 섬유질과 같이 섞어 넣음으로써 만들어지게 된다. 제작자는 각종 섬유질이 그들 나름대로 갖는 장점들을 종합하여 서로 결합시킨 多種의 섬유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복합섬유재료는 조밀(Density)하고 강하고(Strength), 견고(Stiffness)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걸리는 하중의 用語로 표현되는 섬유복합재료의 강도(Strength)는 재래식 금속의 강도를 훨씬 능가한다고 Carbon Products Division의 교수가 發表한 복합재료에 관한 論文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 그 論文에서는 실제 이 복합재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그 성능은 단위무게당 그 이용가능한 강도(Strength)가 인정될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Union Carbide's Director H·N(BUD) Townsend 교수는 말하기를 어떤 면에서 Carbon Fiber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Strength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Stiffness에 있다고 한다. Materials Science Corp'에서 發表된 論文에 의한다면 Stiffness란 변형(Deformation)에 대해 재질이 견딜 수 있는 척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재질의 性能을 나타내는 간단한 척도로써 Specific Sitffness를 사용한다. 이것은 재료의 단위무게로 나눈 Stiffness를 일컫는다. 이것의 Fiber Modulus値가 3천만 내지 5천만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해서 고급복합재료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NACA' Langley Research Center의 Lauis Vosteen氏는 복합재료가 갖는 많은 장점들 중에 하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板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을 힘이 가장 많이 받는 쪽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Drive Shaft를 제작할 때 Torque

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쪽으로 섬유질의 각도를 조절하여 제작한다. 복합재료의 섬유질이 한 방향으로만 놓여 있다면 단일방향(Unidirectional)이라 하고 종횡으로 엮어졌다면 Bidirectional 혹은 Tridirectional이다. 그런데 복합재료 제작시는 실제로 그 섬유질 방향을 배열하는데 Unidirection으로 통상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부품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떤 형의 섬유질 배열이 필요한가를 개정하고 나서 그 부품이 가장 많이 힘을 받게 되는 곳을 고려해서 섬유질의 배열방향을 잡아 섬유가닥을 놓는다. 그런 다음 이 재료에 要求되는 적당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형판에 대해 들뜬 곳을 제거하기 위해서나 진공을 채워넣기 위해 대개 압력가마에 넣고 열을 가해 압력과 열을 높여주면 완전한 두께를 갖춘 부품이 완성되게 된다.

3. 항공산업에의 利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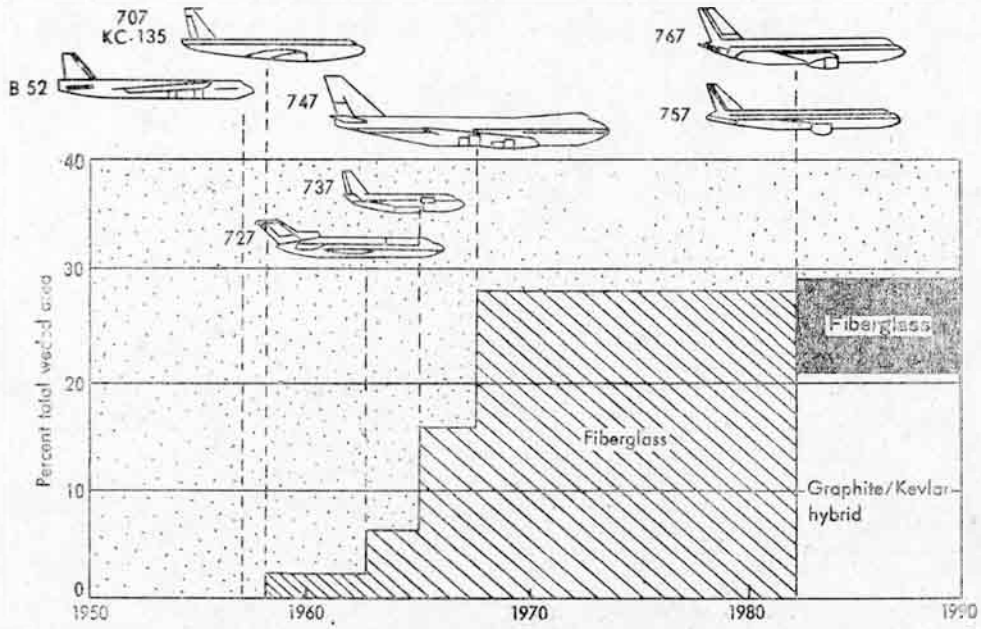
NACA나 美空軍 재료실험실(Airforce Materials Laboratory), 美國防部 그리고 정부기관과 같은 곳에서 항공우주산업에 利用할 고급섬유 복합재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고급섬유 복합재료가 무게가 매우 가볍다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항공우주分野에서 매력을 갖고 기술개발에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민영 항공기 제작회사인 Boeing Grumman, Lockheed, Northrop, McDonell Douglas 그리고 Lear FAN과 같은 會社에서도 민간항공기 및 군용기제작에 있어서 점차 Aluminum 재료를 탈피하고 복합재료를 사용한 항공기 제작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특히 Lear FAN Corp'에서는 5년전에 순전히 복합재료만을 사용한 비행기 개발에 착수하여 1981년 1월 1일 설날 그 원형기가 첫비행을 하였으며 약 일여년에 걸쳐 47회의 시험비행을 成功的으로 마쳤다. Learfan 2100이라 불리우는 이 비행기는 프로펠러는 Kevlar로 만들고 기체는 모두 Carbon Fiber로 만들었다. 실제로 이 항공기는 같은 크기의 재래식 항공기와 비교해 볼 때 항공기의 무게를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리베트(Rivet)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역시 항력 또한 적게 발생하여 연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연료나 기타 무장을 하지 않은 비행기의 자중(Empty weight)는 4,200파운드(1,905kg)로 자동차 무게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최대 이륙중량면으로 보아도 약 7,250파운드 (3,289 kg) 정도여서 총중량이 종래의 금속재료 항공기의 자중에 해당하는 무게다.

여객기를 제작하는 Boenig社에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Boeing 757과 767여객기에 항공기 구조의 3%에 해당하는 양을 복합재료로 대체하였다고 Boeing社의 재료기술부장인 J.C McMillan씨는 말한다.

항공기 구조물의 3%을 차지하는 이 복합재료의 양은 항공기 한대당 약 3,300파운드(1,497kg) 정도를 말한다. 만약 복합재료를 쓰지 않고 이것을 종래의 금속재료부품으로 제작하였을 경우에 4,400파운드(2,000kg)의 무게에 달했을 것이다. 이 3% 중 2.5%는 Graphite/



Structure usage trends in Boeing aircr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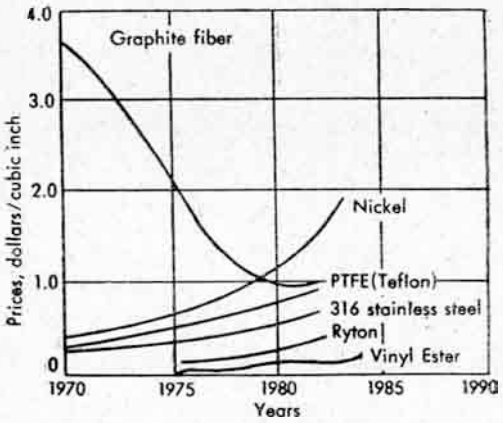
Epoxy, Kevlar/Epoxy 등이고 나머지 0.5%는 Fiberglass라고 한다.

12년 동안 생산해온 Boeing 747은 항공기 구조물 무게의 약 1%에 해당하는 무게를 Fiberglass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양의 복합재료가 계속해서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위의 도표는 Boeing社의 항공기에 복합재료를 사용할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여객기에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제작단가가 싸지 않다. McMillan씨의 설명에 의하면 알루미늄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종래의 항공기재료 값은 약 파운드당 3불 내지 5불이지만 Graphite/Epoxy 같은 복합재료의 값은 파운드당 50불 내지 70불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그러나 결국 이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싼 이유는 항공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운용면에서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Boeing機가 여객수송임무를 수행할 때 1파운드의 무게를 싣고 날기 위해 드는 연료비 및 기타 비용은 연간 약 20불의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항공기의 연료비용이 차지하는데 앞으로의 유류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연료가격을 기초로 해서 計算하여 볼 때 항공기 수명을 20년이라 보면 구조무게 1파운드가 증가하면 약 400불이 더 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복합재료를 써서 무게를 감소하는 것은 투자비용은 더 비싸지만 결국엔 오히려 비용 대 효과면에서 훨씬 이익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Boeing社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까지는 항공기의 재료에 복합재료를 65% 이상 사용할 계획이다. 다음 도표는 참고적으로 각 재료들의 가격변천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Nothrop 社에서는 美空軍과 계약 하에 복합재료로 만든 항공기의 동체, 날개, 수평 및 수직꼬리 날개를 생산하기 위해 제작공정을 자동화한 최신 시설과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기계들을 갖추고 있다. 이 공장은 약 325,000ft²의 시설을 갖춘 종합공단으로 금년 초에 많은 항공공학자들에게 공개되었다. 여기에서는 미해군의 F-18機의 일부 분품도 생산할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General Dynamic社에서도 公式的인 發表는 아직 없지만 상당한 技術水準이 축적된 상태에서 많은 항공용 부품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구라파 제국에 있어서 복합재료 기술을 살펴보면 독일의 Dormier A/C회사와 불란서의 Dassault-Brequet社에서 개발한 Alpha-Jet 항공기의 Speed Brake를 복합재료로 제작하여 성공한 것을 토대로 Dornier社는 독일 국방성의 미래 기술계획 하에 Alpha-Jet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소섬유질 수평안정판을 개발 및 제작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전에 이미 Alpha-Jet용 방향타도 미리 준비해 놓았었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은 매우 조직적임을 알 수 있다. 최초로 착수한 항공기의 Speed Brake는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구성품이므로 조종타 들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초기에 개발에 착수하고 점차 수직 및 수평안정판과 방향타, 보조날개 등을 차즘 개발한 다음 최종적인 목적은 탄소섬유질 날개를 제작하는데 있는 것이다.

Dornier社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날개와 동체 사이에 어떤 물체를 부착하는 예비적인 작업을 이미 착수하였으며, 이 부분에 탄소 및 붕소섬유질 물질과 금속을 혼합하여 결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Dornier社가 Alpha-Jet에 섬유질물질을 사용하여 개량기를 고안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Dassault-Brequet社는 Mirage 2000용으로 몇 가지 중요한 부품을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다른 Mirage機에 사용한 붕소섬유질 수평안정판을 제작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중요사항은 Drilling 때문에 섬유물질이 장애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질의 피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탄소섬유질의 견본과 구성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판명되었다.

과거 50여년 동안에 걸쳐 Dornier社는 유한요소(Finite Element) 기술의 도움으로 수학적 분석을 이용, 아무리 어려운 구조물도 광범위하게 분석해 낼 수 있었다. 마침내는 섬유복합재료에까지 이 유한요소(Finite Element)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섬유질 각층에 대한 압력과 반응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적재용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하중을 받을 때 구성품의 압력과 변형(Deformation)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들은 치수를 일일이 열거하기 위해 파괴응력(Failure Stress)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유한요소(Finite Element) 방법을 사용하면 최종적으로 부품을 파열케 하는 섬유질층(Layer)의 결함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의 모든 항공사에서는 그들의 종합된 기술을 동원 염가의 탄소섬유질 개발 종합계획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4. 전 망

이처럼 항공분야에 활발하게 연구개발되어 가고 있는 고급섬유 복합재료는 몇 가지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가격을 점차 Down시켜간다면 항공분야 뿐만 아닌 다른 비항공분야에서도 많이 이용될 것이다. 특히 최근 기이한 형태를 취하고 출현할 날이 머지 않은 전진익 항공기의 개발은 이 섬유복합재료가 가능하게 하였다.

세 세대의 전투기로 등장하게 될 이 전진익 항공기는 복합재료의 모든 장점과 전진익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끝으로 이 복합재료의 비항공분야에 대한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합재료 중 탄소섬유물질은 거의 "0"에 가까운 열확장계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선 및 위성의 구성물질로 사용하면 궤도상의 조건에서 열에 의한 변화의 염려를 덜어 주고 또 다른 분야로는 안테나 Reflector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동 안테나 Reflector는 태양열 방사 때문에 견고성이 높고 열에 의한 변화가 거의 없어야 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는 Dornier社가 Empacher보트제작회사와 계약하여 신형 2인용 보트를 개발하기로 되어 있다. 이 보트 제작이 성공하자 상업 및 공업용 각 제품에 파급효과는 날로 커가고 있다.

× × ×

現代戰下의 電子戰

成 信 模 譯

차 례

Ⅰ. 머리말
Ⅱ. 현대전자전의 종류
가. ESM
나. ECM
다. ECCM
Ⅲ. 전자전 전술
가. 방공체제
나. 공격기체제
Ⅳ. 맺는말

Ⅰ. 머리말

現代戰은 보이지 않는 戰爭으로서 이느 편이 보이지 않는 戰爭을 수행하는데 보다 우수한 能力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전의 능력 정도가 현대전의 가장 重要한 要素다. 1934년 英國에서 레이다를 開發함과 더불어 점차 電子戰에 대한 技術이 發展하여 오다가 2次大戰 영국과 독일 간의 航空機 攻防戰에서 소위 비임戰鬪(The battle of the beam)라는 명칭으로 本格化되었다. 이런 양상의 戰鬪에 관하여 최초로 크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英國의 윈스턴 처칠 경으로 그는 電子戰을 요술쟁이(Wizard war)라고 불렀다. 我軍이 발사하는 전자에너지를 效果的으로 사용하면서 적이 방사하는 전자기 에너지의 效果的인 사용을 방해 및 감소시킬 수 있는 전자장비와 전자기술을 군에 利用하는 「電子戰(Electronic Warfare)」이라는 말은 실제로 2次大戰이 끝나고서야 실제적인 발전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거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ESM (Electronic Support Measures)
- ECM (Electronic Counter Measures)
- ECCM (Electronic Counter-Counter Measures)

Ⅱ. 現代電子戰의 種類

가. ESM

ESM은 탐색, 방수(Intercept), 위치확인 및 알맞는 분석 등으로 적이 발사한 각종 전자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 活動의 주목적은 ECM과 ECCM작전을 수행하는데 必要한 모든 첩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 ESM은 적의 各種 전자기 방사를 포착하여 分析하는 일로 구성

된 SIGINT (Signal Intelligence)로 알려진 일종의 다른 電子活動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들은 수신장비만 사용할 뿐 어떠한 전자에너지도 자기 스스로 방사하지 않기 때문에 피동적 수단이며 ESM장비 또는 SIGINT체제가 설치된 Platform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큰 利點이 있다. 이들 ESM과 SIGINT 간에 근본적인 차이점은 ESM이 각종 전술작전에서 직접적으로 그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기 첩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전술작전이며, SIGINT는 역시 평시에 첩보를 수집하여 장차전에 사용하기 위한 전략적 임무이다.

오늘날 SIGINT의 체제에서는 各種 레이다 방사(ELINT)와 무선통신신호(COMINT)의 수집이 포함된다. SIGINT임무는 특수항공기나 함정 또는 各種 地上車輛으로 실시하며, 수집된 Data는 특수센터에서 分析하여 적군 및 잠정적인 적군의 조직과 전개 현황 그리고 각종 적성무기의 성능, 전개 전술(EBO)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통신정보는 통신목적으로 사용된 各種 외국의 전자기 방사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된 활동이다.

그런데 ESM은 전술적 차원에서 각종 적 레이다의 방사를 피동적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적의 위협과 존재를 탐지하여 시기적으로 중요한 경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무는 매우 重要하다. 또한 ESM장비는 작전 중 밀집된 ECM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알맞는 ECCM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 ECM

모든 레이다는 실한 간섭이나 재밍을 쉽게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Radar Display상에 이질적인 반응현상으로 나타난다. 각종 이질적인 반응은 그 수가 소수로서 실제 目標物을 닮을 수도 있으며 그 수가 많아 Display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즉 레이다의 性能을 電子的으로 간섭하는 각종 技術의 效果를 ECM이라고 부른다.

ECM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기 에너지의 방사를 포함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각각 능동 또는 피동 ECM으로 부른다. 간단히 말해서 능동 ECM은 재밍 및 기만과 같은 활동과 관계가 있고 피동 ECM은 Echo-simulator (Chaff)이다. 이는 Radar display상에 다수의 False echo를 發生시킨다. 능동 ECM은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알아보면 먼저 통신재밍으로 이는 한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전자기 방사를 사용하는 어떤 매개체(Media)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통신체제인 Voice형과 Graphic형 그리고 Data-link형으로 이들은 모두가 전자재밍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선항법체제인 Radio navigation system (LORAN, TACAN, VOR 등)도 재밍에 매우 취약하여 전시에는 이들의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레이다와 같은 비통신체제(Non-communication system)를 재밍하는 일은 여러 가지의 Implication 때문에 보다 복잡하다. 레이다를 재밍하는 목적은 目標物의 거리와 방위각에 대한 Data를 레이다가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은

적 레이다의 CRT (Cathode Ray Tube)를 재밍, 진 에코(True Echo)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전자기 에너지로 적 레이다를 방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Type의 ECM은 주로 전술에 따라 좌우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戰術은 Self-screening Jamming, axis-ECM escort Jamming, Stand-off Jamming 등을 들 수 있다.

첫번째의 Self-screening Jamming은 공격단계에서 항공기가 함정 또는 지상차량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다음의 axis-ECM escort Jamming은 다른 항공기를 호위하는 항공기에서 실시하며 이는 적 영공에서 임무수행 중 Jammer로써 항공기를 차폐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Stand-off Jamming은 Jammer를 장착한 초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적의 위협 밖에서 실시한다.

능동 ECM 중 다른 종류의 ECM은 기만수단이다. 즉 적이 전자장비로 수신한 Data를 잘못 해독하게 하거나 적의 전자장비 체제에 잘못 지시하도록 하는(False indication) 방법의 전자기파의 방사, 변화 및 반사방법이다. 이 方法에는 모방기만(Imitative deception)과 조작기만(Manipulative deception) 그리고 모의 전자기만(Simulative electronic deception) 등이 포함된다.

통신에 대한 전자기만은 적의 Circuit에 False message를 삽입시키거나 또는 Radio station에서 False message를 방송하는 方法으로 할 수도 있고 틀린 Message를 利用 전혀 다른 False network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레이다에 사용되는 기만은 False return을 生産하여 실제 목표물의 거리와 方向을 틀리게 하여 目標物이 實際速度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보이게 하여 목표물의 속도를 잘못 계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Echo simulator (Chaff)인 피동(Passive) ECM으로 이는 機械的 및 化學的 方法으로 分類되며 Chaff를 사용한다. Chaff의 크기는 적 레이다가 사용하는 파장의 절반이어야 하며 최근에는 Chaff를 나일론이나, Filament 또는 Fiberglass 등과 같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 적시에 자동적으로 살포된다.

이와 같은 Chaff는 전술상황에 따라 재밍이나 기만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Chaff가 대함미사일의 능동 유도장비를 혼돈시키기 위하여 함정에서 사용될 때는 함정이 채프가 채워진 탄약통을 발사하여 Chaff 구름을 형성하도록 하면 대함미사일은 잘못 Homing을 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Chaff의 효과는 바람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그 속도를 계산하여 레이다 조작사는 이를 쉽게 식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화학적 피동 ECM방식이란 항공기에 종종 사용되는 레이다 에너지 흡수물질인 페인트나 니스(Varnishe)를 말한다. 이러한 물질은 상당한 정도까지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높아져 전략폭격기 등에 이용하기도 한다.

다. ECCM

ECCM의 目的이란 적의 ECM의 效果를 무

력하게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技法은 機械的인 장비의 사용과 알맞는 조작 수단의 사용법으로 나눈다.

機械的 ECCM에 관한 모든 최신 레이다는 그 자체에 어떤 ECCM能力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다. ECCM은 적이 ECM을 할 때에 性能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회로를 적절히 조작하는 方法과 Parameter(주파수, 펄스율 등)를 變化시켜 실시한다. ECCM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은 실제로 무한할 정도로 많이 있다. 이는 人間이 ECCM 등 무수히 그 대응 수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잘 알려진 方法으로는 약 100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Jamming (Narrow and wideland)

○ 기만재밍 (Deception Jamming)

○ False Target (Chaff 등)

이와 같은 3가지 전자적 위협방식에 대한 레이다의 취약성은 레이다의 종류와 그 機能에 따라 다르며 재밍(ECM)의 전자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必要性에 따라 각종 ECCM의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 기술은 사용되는 ECM (재밍, 기만, 채프)의 종류와 또한 이와 같은 위협(탐색레이다, 화력조종레이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레이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ECCM기술이 적의 ECM효과로 간섭받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 중에 한 가지인 ECCM방식은 ECM장비에서 방사된 신호를 회하는 방식으로 레이다는 작동주파수(주파수 민첩성)를 신속히 변화시키거나 다른 주파수(주파수 변화)로 作動시키는 방법, 그리고 특수형의 안테나 주사방식을 사용하여 할 수 있다.

다른 중요한 ECCM기술방식 중 하나는 재머에서 방사된 각종 신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代表的인 예는 "Home-on Jam" 능력이 있는 미사일과 같은 것이다. 이때의 미사일 레이다의 ECCM능력은 재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재밍방사를 사용, 재머를 추적하고 재밍원(Jamming source)으로 미사일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덧붙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레이다 수신기(자동이득 제어장비)의 포화를 방지하고 레이다 신호와 재밍신호 등을 구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각종 ECCM의 기술은 레이다가 ECM환경에서 目標物의 위치를 확인하고, Radar screen에서 재밍의 효과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큰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기술이 적용되면 일단 적 목표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이다의 능력은 부득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ECCM의 기술은 부득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심한 ECM상황 하에서 레이다를 조작하는 조작사들을 훈련하는데 조작상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전자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우수한 Countermeasure방법은 그릇신호와 사실신호를 바로 구별할 수 있는 레이다 요원들의 식별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訓練方法을 제외한 몇 가지 유용한 ECCM방법은 Radar Silence를 채택하는 법과 이동 Radar station의 이용방법 및 어떤 ECCM방법을 사용하든간에 ECCM기술에 대한 어떤 형태의 첩보도 적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ECCM에 대한 보안유지를 하는 방법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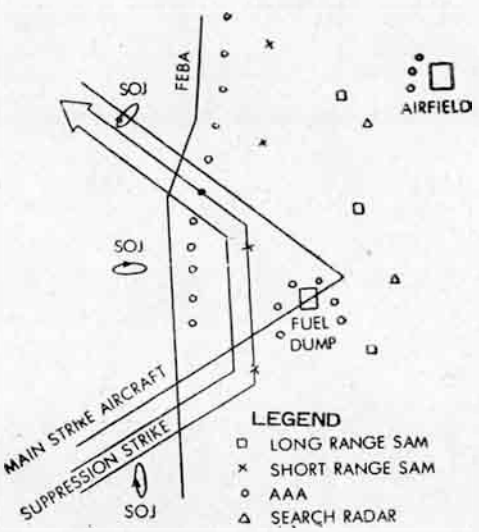
결국 ECCM은 적의 어떠한 電子戰狀況下에서도 我軍이 전자기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제반 활동을 포함하는 EW의 일종이다. 과거에는 침투하는 항공기가 ECM을 할 때, 방공레이다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종 ECCM방법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전자전에서의 ECCM은 C^3(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를 보호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Ⅲ. 電子戰 戰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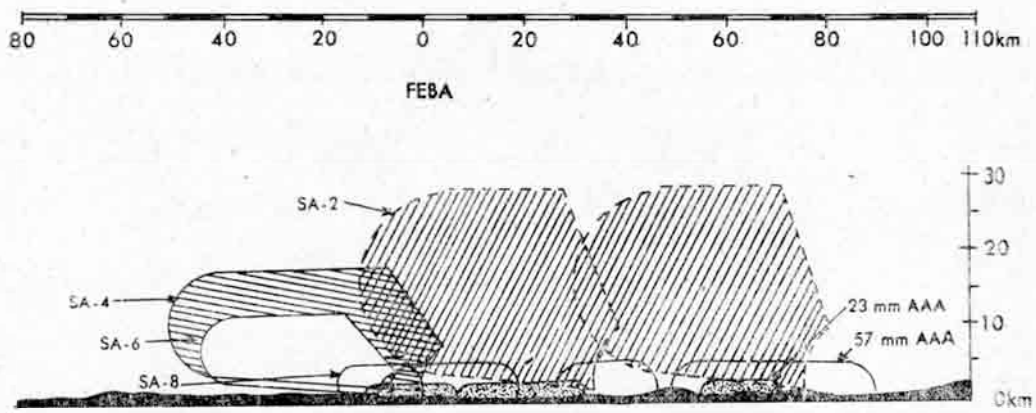
戰術的 次元에서 電子戰의 사용은 적 지상방어제압과 주로 관계가 있다. 모든 地對空 미사일은 거의 모두가 目標物을 포착하고 유도하는데 地上레이다를 사용한다. 그 외에도 일부 SAM은 Infrared sensor를 사용, 그 자체가 Terminal Homing 능력을 가질 수도 있으며 또한 地上과의 Command radio link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방식에서는 모든 유도신호가 Command radio link를 통해 전파된다. 월남전에서 美軍은 맨처음 地上기지 레이다를 선택하고 이를 재밍하기 위하여 경보수신기와 송신기를 가능한 한 많이 공격기에 장착하였다. 그 외에도 지상레이다를 더욱 혼돈시키기 위하여 Chaff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상레이다의 수가 증가하자 공격기의 조종사는 재밍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찾아내는 일, 정확한 주파수에 재머를 Setting하는 일, 그리고 목표물 레이다에 재머를 맞추는 일,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하여 목표물을 공격하는 일 등 조종사에게 너무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군은 이를 감안하여 전자전 목적으로 순수한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자전 임무용 항공기는 공격임무에 참여하여 필요한 재밍임무를 수행한다.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고도의 역학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임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이란 바로 전자전을 공격임무와 병용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1)과 같이 FEBA線 넘어 짧은 거리를 침투하여 적의 연료보급소를 파괴하려는 공격기부대를 가정해 보자. 이때 공격기 부대는 Stand off Jammer(SOJ)기나 같은 目的으로 방공제압 공격을 하는 Wild Weasel 항공기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림 1>



<그림 2>

가. 防空體制

탐색 및 GCI레이다는 방공체제의 기본적인 탐지장치로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주며, 이 자료에 의하여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

탐색 및 GCI레이다는 통제본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 연결을 시켜 준다. 통제본부는 요격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사용한다. 또한 여기에서 경계경보를 하여 주고 무기 Site에 대한 목표를 배정을 하여 준다. 각종 무기의 손상이란 방어하는 지역과 무기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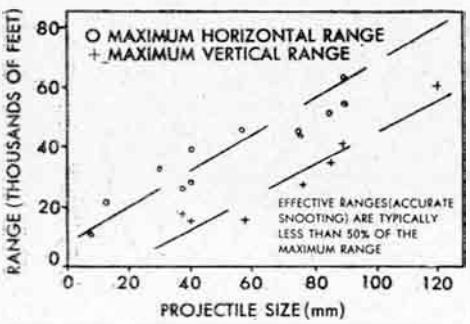
기갑부대와 같은 전투부대를 이중으로 엄호하는데 사용되는 통합무기체계는 다음과 같다.

○ SAM : 중거리용의 SAM체제는 기갑기습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개된다. SA-2와 SA-3 및 SA-4가 그 대표적인 SAM체제다. 이 SAM들은 목표물지역에 아주 가까이에 전개될 것이며, FEBA線 훨씬 앞 지역까지 엄호할 것이고 비행장이나 연료저장소와 같은 중요한 지역을 보호할 뿐 아니라 침입해 오는 적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 단거리용 SAM : 저고도 능력이 있는 대다수의 단거리용 SAM체제가 중거리용의 SAM체제 전면에 통상 전개되어 기갑부대나 중거리용 SAM에 필요한 저고도 공중엄호를 하여 줄 것이며 SA-6와 SA-8이 그 대표적인 SAM체제일 것이다.

⊙AAA : 많은 AAA부대가 기갑부대의 바로 후방이나 비행장, 연료저장소같은 중요 군사시설물 가까이에 전개된다. 기갑부대의 후방에 전개되는 AAA부대는 고도의 기동성과 ZSU-23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다. 고정된 시설물을 방어하는 AAA는 機動性이 높지 않을 것이며 아마 위장되어 있을 것이다. 현대전에서 SAM체제가 공격기의 전략

을 결정하는데 큰 위협을 준다면 AAA는 전술전에서 항공기의 격추책임을 맡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AAA의 사거리는 약 8만 피트까지 다양하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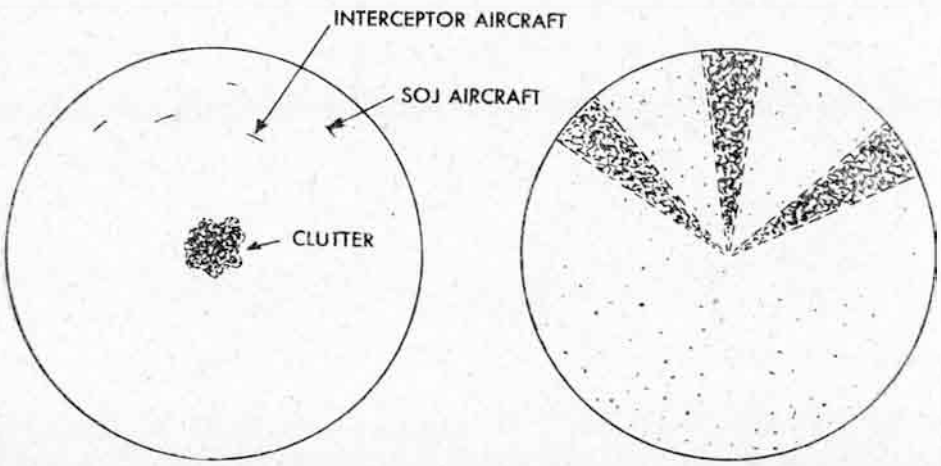
나. 공격기 체제

단거리 SAM체제는 30~40km의 고도까지 위협을 줄 수 있다. 주공격기가 이 SAM체제를 통과할 때 SOJ 항공기의 효력은 점점 상실되는데 이때 SAM을 파괴하는 방공제압공격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격기는 통상 4개 기종의 항공기가 사용될 것이다.

⊙ SOJ 항공기 ECM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EA-6機 같은 항공기와 엄호전투기는 중거리용 SAM의 사정거리 밖에서 탐색레이다와 교전을 할 것이다. SOJ기는 고출력 잡음 Jammer를 사용, 적의 레이다 주파수의 정면에 이리저리로 고출력 RF신호를 신속하게 이동시켜 적의 레이다를 교란시킨다. Jammer의 주파수를 조종하는 변조신호는 Random function과 Determinisite function을 혼합할 수 있다.

다음 그림(4)에 표시한 Jamming은 톱니바퀴 파형(Sawtoath Waveform)을 사용하는 Jammer가 발생시키는 Display형의 특색을 나타낸 것이다(그림 4).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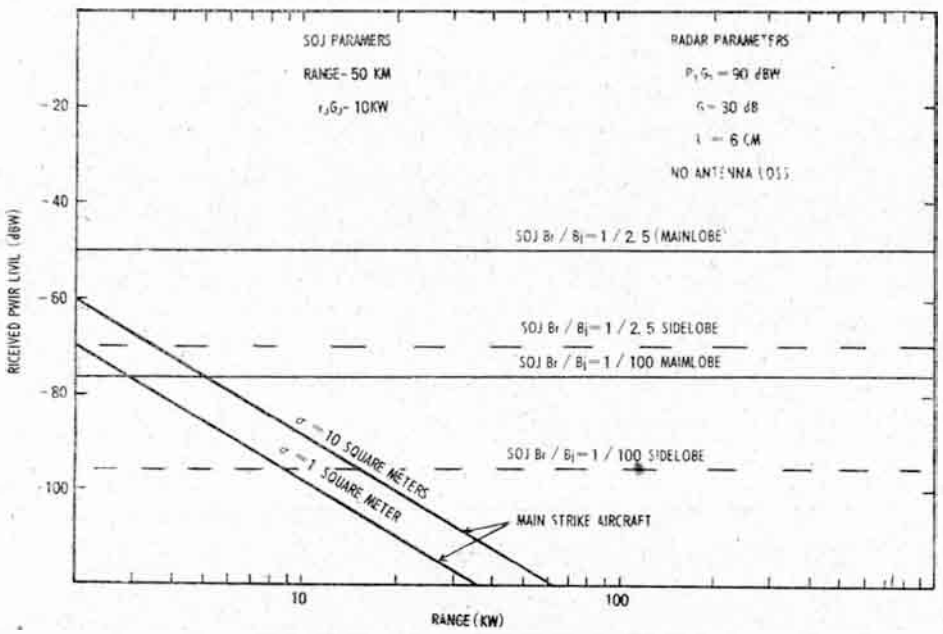
그림에 표시된 3개의 Strobe는 3대의 SOJ 항공기가 발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3각법을 이용 SOJ 항공기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 ECCM반응

탐색레이다 조작자들은 여러 가지 ECCM 방식과 장비를 사용하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Display 이득조정, ○ IF이득조정,
○ Side lobe bliking,
○ 고속시간상수(FTC),
○ 감도시간조정(STC),
○ PRF 민첩성,
○ 주파수 민첩성 등이다.

다음 그림(5)은 IF와 Display 이득이 대체적으로 낮고 레이다가 Lin-log 수신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예로 나타내었다. Lin-log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PPI Display는 Display쪽으로 향하여 아주 밝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5>

공격기는 적의 방공부대가 무질서한 상태에서 작전을 하도록 방해 Jamming을 충분히 한 후에 발진한다. 이 공격기들은 지형지물을 최대로 활용, 목표물인 적의 연료저장소에 접근할 때는 SOJ機의 방해로 적의 레이다의 성능이 가장 저하된 각도에서 침투해야 한다. 목표물 상공에 접근할수록 Jammer機의 효과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Ⅳ. 맺는 말

최근에 무기체계는 유도방식이 다르고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전자기 에너지, Infrared ray, laser 등)가 다른 방대한 미사일과 각종 재래식 무기체계를 망라하기 때문에 식별, 통제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전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각종 무기체제의 기술적 및 작전적인 Parameter를 찾아내고 알려진대로 추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각종 Parameter를 알고 있어야만이 주어진 무기체계의 취약점을 식별하여 가장 알맞는 전자적 또는 전자광학적 대응조치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방법과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의 각종 Parameter인 주파수, 펄스증폭 및 율, 안테나회전속도, 주사방식 등을 ELINT를 통하여 수집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평시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자전은 각종 목표물을 포착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목표물을 재밍 및 기만할 수 있으며 평가 및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목표물을 분쇄하는데까지 임무확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전 기구는 모든 종류의 Sensor인 Radio, Radar, 적외선 Sensor, 레이저 및 전자광학장비 등을 이용하며 Home-on-Jam 미사일과 컴퓨터 조종위협경보체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굳게 다진 승공이념
밝아오는 조국통일

韓國人의 孝思想

栗谷 李珥의 孝思想 II

4. 栗谷의 孝思想

栗谷의 〈擊蒙要訣〉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효도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기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들이 효도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를 행동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효는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이고 효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하여 도덕적 관점에서 한국의 사상가 율곡의 효사상을 통하여 그의 인생관, 교육관, 철학관을 구명하여 보려는 의도로 삼고자 한다.

(가) 健　　康

〈詩經〉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리 아버님은 나를 낳게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나를 길러 주셨네. 내 그 은혜를 갚고자 하면 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네」 하였다.

사람의 자식된 자가 부모에게서 그 생을 받았으니 性命과 피와 살은 모두 부모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숨쉬고 호흡하면서 기운과 혈맥이 통하는 것이니, 그렇다고 하면 이 몸은 나의 私事物件이 아니고 곧 부모가 남겨주신 기운인 것이다. 그런 때문에 말하기를,

「슬프도다, 우리 부모님이시어! 나를 낳으시느라 수고하였다」하는 것이다. 천하의 모든 물건은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다. 만일 남에게서 재물을 받았다면, 그 재물의 많고 적은 것이나 그 재물의 소중하고 하잘 것 없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부모는 나에게 이 몸을 주셨으니, 천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다고 하여도 이 몸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할 것인가? 어찌 감히 내가 나대로 몸을 가졌다고 하여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으리오. 모든 사람들이 능히 항시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저절로 부모에게 향하는 정성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율곡도 공자가 말한 것처럼 건강을 효의 시초라고 하였다. 자기의 몸을 잘 보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자

기의 몸은 부모가 준 것이니 잘 보전하는 것이 자식된 자의 첫째의 효가 되는 것이다.

(나) 順　　從

율곡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擊蒙要訣〉〈事親〉章에 보면,

「부모를 섬기는 자는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행동이라도 감히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어버이에게 말씀드린 뒤에야 행하는 것이다. 만일에 의당 하여야 할 일이라도 어버이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여쭈어서 승낙을 얻은 후에 행하는 것이다. 그래도 끝내 어버이께서 승낙하지 않더라도 역시 제 마음대로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에 대하여 공경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매사에 임하기 전에 승락을 받으라고 하였다. 여의치 않을 때에도 부모의 뜻을 묵살하고 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부모에게 아뢰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가 될 것이며 간곡히 아뢰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식된 자는 연하자이고 모든 면에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허락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으로 본다.

(다) 侍　　奉

율곡은 부모를 가까이서 잘 모셔야 한다고 하였다.

〈擊蒙要訣〉에 보면,

「날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머리에 빗질한 다음, 옷 입고 띠를 띠고 부모가 주무시는 곳으로 간다. 여기에서 기운을 화평하게 갖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춥고 더운 것과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묻는다. 또 날이 어두우면 역시 잠자는 침소로 나가서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묻는다. 날마다 받들어 모실 것을 물어서 항시 화락한 빛과 부드러운 얼굴로 공경하여 愼獨하고 좌우에 모셔 봉양하기에 그 정성을 극진하게 한다. 또한 집을 나가거나 밖에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을 한 다음 다녀온 경위와 인사를 올리고 뵙는다」고 하였다.

평소에 매일 어버이를 가까이 모시면서 시중을 하여 드리고, 침식이 불편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 혹 외출하고 들어와서는 그 경위를 여쭙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 奉　　養

栗谷의 〈擊蒙要訣〉에 보면, 봉양의 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부모가 길러 준 은혜를 입고서도 자기 힘으로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만일에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 보면 종래 부모를 모실 때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집안 일을 맡아 스스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다한 뒤에야 자식된 도리를 바로 닦는 것이다. 만약에 부모가 굳이 듣지 않는다면 비록 집안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의 뒤를 보살펴서 도와드려 부모에게 잡수실 것을 갖추기에 극진히 하여 입에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에 생각마다 부모 봉양에 뜻이 있다고 하면 산해진미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 王延이 엄동설한에 성한 옷 한 벌도 없는 형편에 극진히 부모에게 맛 있는 음식을 드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의 눈물이 흐르곤 한다」 하였다.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대개의 사람들은 저

버리기 쉬운 일인데,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는 부모에게 봉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부모의 구미에 맞는 좋은 음식이나 산해진미라도 노력만 하면 구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된 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성껏 효심을 발휘하여 봉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마) 恭　敬

율곡은 공경하는 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흔히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보다 지나치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낡은 습관을 철저히 씻어 버리고, 그 존중함을 극진하게 하여 부모가 있거나 누워계신 곳에 자식이 감히 버릇없이 앉아 있거나 눕거나 하지 말 것이며, 손님을 맞이한 곳에서 자식이 사사로운 손님을 맞이하여 들이지 말며, 부모께서 말을 타고 내리는 곳에서 자식이 감히 말을 타고 내려서는 안 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자지간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공경을 저버리기 쉽다. 그러나 자식된 자는 어버이에게 공경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 앞에서 드러누워 있는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하는 것이다. 물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애정이 흐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애정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예의바른 공경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된 자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바) 諫　言

율곡은 부모가 불의, 불합리한 일을 할 때는 諫言을 드려야 한다고 하였다. 〈擊蒙要訣〉에 보면,

「부모의 뜻이 만일에 의리에 해로운 것이 아니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순순히 행하여 다소라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만일에 의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화평하고 부드러운 기색과 말소리로 거듭하여서 반드시 들으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부모의 뜻이 의리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그 道를 행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란 누구든지 성인이 아닌 이상은 과오를 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부모님도 인간인 이상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의 법도가 의리에 맞지 않는 것이면 화평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씀드려 옳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 養　志

부모의 德行을 이어가는 것을 養志라고 한다.

율곡의 〈擊蒙要訣〉에 보면,

「날마다 하는 일이나 또 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뒤라야 효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의 일신 가지기를 삼가지 않고, 말을 함에 있어서도 법도가 없이 그저 웃고 노닐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모두가 그 부모를 잊어버리고 한 소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父母之年은 不可不知也」라고 하였다. 즉 부모의 나이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부모에 대하여 관심없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효자는 부모의 덕행을 잊지 말고 이어받아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항시 愛敬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부모가 행하던 법도와 덕행은 절대적으로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쉽게 고쳐 버려도 안 되는 것이다.

(아) 養　護

〈擊蒙要訣〉에 보면,

「부모가 병환이 있으면 마음 속으로 조심하고 얼굴빛을 변하여 다른 일들은 모두 내버려 두고, 오직 의원에게 묻고 약을 지어다가 쓰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 이리하여 병환이 회복되면 그 전으로 돌아가 본래에 하던 다른 일을 보기 시작한다」하였다. 부모가 병환이 생기면 모든 일을 폐하고 최우선적으로 의원을 불러 병을 보이고 간호하여 신속히 완쾌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음 편히 모셔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완쾌될 것 같으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시 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율곡은 그 외에 〈擊蒙要訣〉〈事親〉章에서 말하기를,

「세월은 물과 같이 흐른다. 그러므로 부모 섬기는 시간도 결코 길지 않다」고 하였다.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옛 사람의 시에 말하기를 「하룻동안 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3公(영의정·좌의정·우의정)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옛날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부모를 봉양한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한정된 것이다. 더우기 부모가 살아 있는 기간은 짧은 것이다. 그러하니 한정된 기간에 더욱 더 부모에게 정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이 부모가 생존하여 계실 때 효성을 다하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후회하는 예가 많다. 그러하니 자식된 자는 모름지기 생전에 효를 다할 것이다.

새마음 새생활로
밝은사회 이룩하자.

사진과 生活

윤 혁 태



최근에 각종 Camera의 활발한 보급이 눈에 뜨인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즐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Camera는 필수품이 되었다.

Camera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일이다. 그동안 국산 Camera산업의 부재상태에 있던 우리 나라의 Camera산업개발에 커다란 촉력소가 될 것이고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이 레저를 즐기는 방향으로 바뀌어감에 따른 순간의 모습을 영원으로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Camera의 보급은 산업발달 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음으로써 국민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떤이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인간활동은 생각해 볼 수 없다. 사진은 과학에 있어서나 산업에 있어서나 필수적 존재가 되었다」고까지 말했다. 순간을 영원으로 잇고 하나의 기억을 추억으로 만들며 빛과의 끊임없는 투쟁인 사진촬영의 참맛을 만끽해 보자.

1. 사진의 역사

사진은 초기에 초상화에서부터 시작되고 발달되었다. 사진초상은 사회발전의 한 특정한 단계와 때를 같이 하여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회의 넓은 계층이 보다 큰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획득하여 상승한 단계를 뜻한다. 사진초상의 선구자들은 이러한 사회발전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등장했다.

이들 사회계층의 상승은 특히 사진초상의 대량 수요를 자극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초상을 제작케 한다>는 것은 상승 중의 사회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지위상승을 보여주고 또한 사회적 명판을 누리는 계층 속에 스스로를 귀속시키는 그러한 상징적 행위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발전은 동시에 이제까지의 수공적인 초상제작에서 점점 더 기계적인 방법으로 인물의 특징을 재현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사진초상은 이러한 발전과정의 최종 단계가 되는 것이다.

귀족에 바탕을 두었던 사회장치의 내부 자체로부터 중산층의 상승이 점진적으로 눈에 띄게 되는 것은 1750년을 전후로 해서다. 중산계층의 상승과 그들의 물질적 부의 신장과

함께 그들 자신을 주장하고 돋보이게 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수세기 이래 프랑스에서 몇몇 제한된 부류의 독점물이었던 초상화가 중산계급층에게 유행되자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형식과 기법이 창안되었다. 그 후 초상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었다. 분갑이나 펜단트의 모양으로 된 미니아튜어 초상화(細微畵肖像;Le Portrait Miniature)나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에 유행되었던 실루에트(Silhouette)가 그것인데 실루에트는 처음에 검정색 광택지에 친구들의 프로필을 가위로 오려내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참고로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실루에트라는 단어는 1750년 프랑스의 대장대신(大藏大臣) 다시 말해서 재무부장관에 임명된 실루에트씨의 이름을 땄던 것인데 그의 국정에 대한 실패를 꼬집기 위해 그림자로 된 형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실루에트라고 불렀다.

실루에트 기법의 발명은 바로 그 기법 자체의 성격 때문에 큰 규모의 업종을 탄생시키지 못했지만 새로운 기법이 태어나도록 자극했다. 프랑스에서 1786년부터 1830년 사이에 유행한 자동전사식 초상이란 기법이 그것이다. 이 기법을 창안한 사람은 질—루이 크레티앙으로서 1754년 베르사이유에서 태어났다. 그는 본래 판화가로서의 직업을 가졌으나 수입이 마땅치 않아 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루에트 방식과 판화방식을 결합한 자동전사식 초상 제작기가 탄생하였다.

자동전사식 초상 제작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기(寫圖器, 축도기, 펜타그라프라고도 함)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즉 평행사변형들이 서로 연결된 것으로서 조작에 따라 수평면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장치의 조작 방법은 잉크를 묻히지 않은 뾰족한 끝으로 대상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면 그동안 잉크를 묻힌 다른 뾰족한 끝이 전자(前者)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며 반복함으로써 양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비례로 전자의 대상을 그대로 확대 혹은 축소하는 것이다.

자동전사식 초상화가의 기법은 얼굴의 윤곽선을 수학적인 정확성을 갖고 재현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성은 표현성이 없는 채로 존재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개성적인 직관을 가진 작가에 의해 해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 초상화의 세심한 그림과 채색은 장인의 끔끔한 작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동전사식 초상은 오늘날 상업명으로 포토마톤(Photomaton)이라고 불리우는 무인(無人) 즉석 자동 처리식 사진기법과 색체사진 방면의 폴라로이드(Polaroid)가 그 최근의 도달점이 되는 일맥의 진화선상에서 볼 때 사진의 기술적 발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사진의 이데올로기적 선구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8C말에는 수리계량과학 중에서 특히 화학이 유행이었다. 염화은을 바른 종이 위에 나뭇잎, 꽃 등의 물체를 얹어 놓고 그 전체를 햇볕에 쪼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즐거찾던 오락으로서 과학적, 사교적 유희로 유행했었다. 이렇게 해서 종이 위에 흑백의 콘트라스트로 이루어진 물체의 윤곽을 얻곤 했지만 그 영상은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의 정치발전 현상이 귀족과 왕당파 경향의 사람들에게 과학실험에 파묻힐 수 있는 충분한 여가를 주었고 사진은 이러한 연구 속에서 발전되었다. 1814년 석판 인쇄술이 프랑스에 도입되었으나 니세포르 니엡스는 석판의 구입이 불편하자 석판크레용 대신 태

양광선을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826년 세계 최초의 사진이 만들어졌으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때 빛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던 화가 다게르(Jacques Daguerre)와 니엡스의 아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게르식 은판 사진술이 나오게 되었는데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다. 우선 햇빛에 감광시키는 은판을 사용 전에 미리 요오드(옥소)를 함유한 증기에 쐬어야만 했다. 또한 감광시키자마자 즉시 현상해야 하는 점이었다. 사진 찍을 때는 노출시간도 흔히 반시간 이상이었다. 풍경사진을 찍으려면 커다란 천막과 이동식 실험실을 갖춰야 했는데 이는 모든 화학적 준비과정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상사진을 찍을 때는 노출시간이 30 내지 45분이나 걸려 포우즈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이마로부터 흘러내린 땀방울이 뺨의 화장을 지워서 얼굴이 얼룩지고 사진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난점 말고도 다게르식의 은판사진술은 치명적인 결점을 지녔는데 복제사진을 만들 수 없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후 1842년에는 사진기가 기술상으로 개량된 결과 노출시간이 20초~40초 이내로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서부개척시기에 미국인들의 열의는 다게르식 사진술의 숙원이었던 복제를 가능케 하였다.

그 후 사진술은 나날이 발전하였고 예술작품의 복제수단 신문에 사용키 위해 활판으로도 복사가 가능케 되었다. 그러나 꾸준히 초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고 명함판크기의 초상과 분홍색이나 청색을 채색하여 오늘날의 천연색 사진을 흉내내기도 하며 발전하였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마추어용의 컬러 필름은 코닥회사에서 1937년에 처음으로 코닥크롬(Kodakchrome)을 아그파가 아그파컬러(Agfacolor)를 내놓음으로써 일반화되었다. 사진은 사회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분야도 다양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곳곳에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로 파고 들기도 하였다. 정치의 도구로 문화의 발달을 소개하는 방편으로 사회의 비리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수단으로 예술의 표현으로…… 여하튼 이러한 사진술의 발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우리들 생활에 더욱 더 파고 들게 될 것이다.

2. 사진촬영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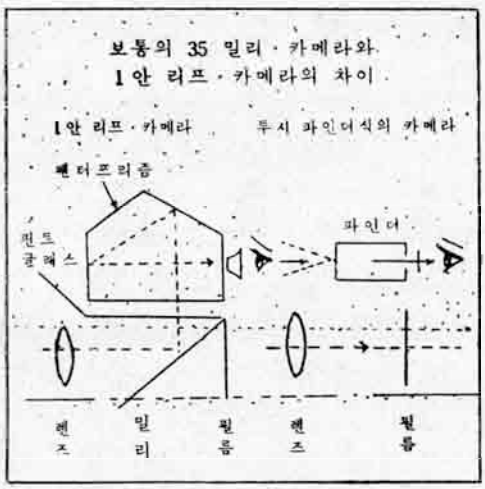
가. 카메라의 선택

현대인의 생활양식이 변화됨에 따라 카메라는 현대인의 액세서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기에 따라 적절한 카메라의 선택은 필수적이다.

카메라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의 주류는 아무래도 35밀리 카메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판 카메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필름별로 보면 35밀리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35밀리 EE(Electronic Eyes) 카메라와 1안리프·카메라(Through The Lens) 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필름의 크기가 6×6cm판의 1안리프 2안리프 6×7cm판 1안리프 6×9cm판의 프로용 중형 카메라 등이 있으나 매거진 들이의 카드리지 필름을 사용하는 인스터·매직·카메라 등 필름 사이즈, 화면 사이즈별로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카메라 중에 가장 무난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35밀리 1안리프이다. 처음 카메라를 구입하는 경우 EE카메라나 16밀리 또는 하프·사이즈 카메라의 장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의 초심자도 깨끗하고 샤프한 사진을 만들 수 있고 경제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미의 발전과 작품을 만들려는 의욕이 싹틈에 따른 적합한 카메라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새로운 카메라의 구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초보자에게도 35밀리 1안리프를 권하고 싶다.

전술한 바 있는 초·중급의 EE카메라는 렌즈가 찍는 각도에 맞춘 별광로의 파인더 시야로 피사체를 겨냥하도록 되어 있으나 1안리프는 그림과 같이 촬영렌즈가 포착한 화상을 거울로 반사시켜 핀트 글래스에 맺힌 화상을 다시 프리즘을 통하여 좌우 정립상으로 보게 되어 있다. 즉 실제로 필름에 찍히는 화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이보다 더 형편좋은 것은 흔하지 않다.



<그림 1>

1안리프 카메라는 시차를 해결하여 실제의 화상의 어긋남이 없게 하고 접사, 또는 망원렌즈, 광각렌즈의 교환도 가능하다.

카메라에 붙어 있는 렌즈나 교환 렌즈의 전면을 보면, 1 : 2 f=45mm 이 밖에 렌즈의 이름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데 1 : 2는 렌즈의 밝기를 의미하고, f는 초점 거리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45밀리의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라는 뜻이다.

이 렌즈의 밝기는 F값이 적을수록 밝고 또 같은 초점 거리라면 F값이 적을수록 렌즈 구경도 커진다. 따라서 대구경 렌즈라 하면 밝은 렌즈의 대명사와 같이도 쓰이고 있다. 현재 35밀리 카메라의 표준 렌즈는 어두운 것이 F2.8, 밝은 것의 특수렌즈는 F0.95, F1.1, F1.2라는 것도 있으나 보통 밝은 것으로는 F1.4정도다. 밝은 것이 물론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카메라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삼지말고 렌즈교환이 가능한 1안리프로 F2~F1.2까지 복수의 표준렌즈의 조합 가운데 희망하는 것을 구입하면 될 것이다.

가끔 해외 토픽이나 사진잡지를 보면 축구선수가 볼을 차는 순간의 볼의 찌그러진 모양이나, 야구공의 이그러진 모습을 보는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카메라의 셔터 속도에 의한 촬영으로 볼 수 있다. 선택하여 구입할 카메라의 셔터 속도가 1/1,000초까지 필요한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전에 상용(常用)하는 셔터·스피드는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하자.

보통 맑은 날씨에는 F8, 1/125초, 또는 F11, 1/125초로 놓고 찍으면 된다는 식으로 규정된 카메라 노출표를 보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1/125초의 셔터·스피드만을 이용하여 응용이나 융통성이 전혀 없는 틀에 박힌 사진만을 찍으라는 바보스런 표현같다. 분명히 야외에서 이런 데이터로 찍으면 흑백필름의 경우 우선은 틀림없는 사진이 나올 것이지만 그래서는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없다. 가령 움직임이 빠른 피사체를 스냅하는 경우에 1/125초로는 피사체가 흔들려 버리는 일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더 빠른 셔터·스피드로 찍

을 필요가 있다.

스냅 촬영은 우선 1/250초를 상용 속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더 운동이 빠른 피사체라면 1/500초로 잡아야 할 것이다. 1/1,000초는 고속 피사체를 정횡면에서, 또한 근거리에서 찍을 때 필요하며, 그래도 피사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다. 1/1,000초의 활용면이라면 대구경의 밝은 렌즈를 개방조임으로 찍고 싶을 때인데 굳이 말하자면 고도한 사진 표현에 필요한 스피드라 하겠다. 그러므로 1/1,000초의 고속도는 당연 있는 편이 좋지만 1/500초까지 있으면 손색없다.

이상에서 카메라 선택시 염두에 둘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카메라·쇼핑은 무어라 해도 예산과의 담합이다. 풍부한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급기를 살 수 있으나 고급기계만 그 사람에게 좋다는 법은 없다. 촬영 목적이나 경험도에 맞는 가격과 성능의 카메라를 선배나 전문가의 소개나 의견을 듣는 것도 좋다. 카메라를 구입하면 메이커로부터 보증서가 딸려온다. 이것은 어느 일정 기간에 한하여 자연 고장의 경우 무료로 수리해 준다는 보증서이므로 소중히 보관해두어야 한다.

나. 필름의 선택

촬영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우선 필름의 성질과 능력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감도 필름, 저감도 필름, 특수목적용 필름 등의 사용 방법 및 성능을 알아두면 사진 표현에 일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필름의 종류에는 모노크롬(흑백)과 컬러가 있으며, 사이즈로서는 110판, 35밀리 브로니가 있고, 별도의 쉬트 형식 필름으로 4×5판, 5×7판, 8×10판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110판은 포켓 카메라용이고, 쉬트 형식 필름은 프로용이 된다. 모노크롬필름이냐 컬러필름이냐 하는 것은 피사체가 풍부한 색채로 되어 있을 때는 컬러필름을 사용하면 효과적이 되고, 모래나 눈과 같이 단색조일 때에는 모노크롬필름을 사용하면 효과 있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일반적인 일이고, 표현하고 싶은 촬영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한다. 컬러필름에는 네가 컬러 필름과 리버설 컬러(투명 양화) 필름이 있다. 네가 컬러는 모노크롬과 똑같이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면 네가가 되고 이 네가에 의해 프린트를 하면 양화의 사진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앨범에 붙이거나 기념사진으로 하거나 전시하기에 편리하므로 아마추어 카메라맨 사이에 애용되고 있다.

리버설 컬러는 투명 양화이기 때문에 프로젝터나 슬라이드 영사기에 넣고서 스크린에 투영시켜 보게 되어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습회나 회의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화상이 선명하여 색채가 화려하고 샤프니스가 우수하여 복제용 인쇄원고로서 적당하며 이것으로 컬러 포스터나 컬러 화보 또는 서적의 표지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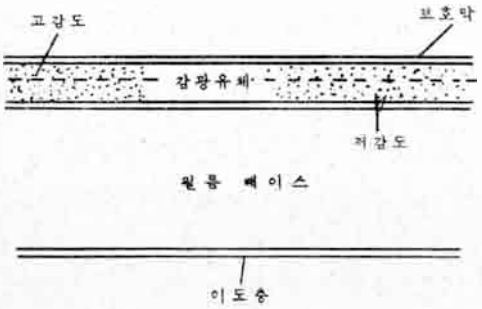
필름의 성능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을 하면,

필름에는 여러 가지의 성질이 있으며 그것이 서로 조합되어서 효과가 좋은 사진을 표현하게 된다. 필름의 기본적인 성능을 알고 착오나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름의 지식을 알아두면 목적에 맞추어 우수한 사진을 제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필름의 구조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필름은 투명 베이스에 할로겐화은의 결정과 첨가물로 젤라틴을 혼합하여 된 감광 유제를 도포하여 된 것이다. 이 감광 유제의 광에 대한 반응도를 감광도라고 말하며 지수로 표시된 기호로 ASA(미국), JIS(일본), DIN(독일

<필름의 구조>



<그림 2>

및 유럽)과 각국의 공업규격 기호로 표시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다시피 하여 쓰고 있는 것은 ASA이다.

흑백 필름은 색채를 어떻게 느끼게 되는 것일까? 이상적으로는 육안으로 보고 느낀 그대로의 색이 흰색으로부터 검은색까지의 농담으로 그대로 옮겨진다면 가장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흑백 필름 초기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황색까지만 감광되었지만 적에는 감광되지 않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빨간 사과가 검은 사과로 되어져 일상의 컬러 이미지를 틀려지게 바꿔 놓고 말았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팬크로매틱(전정색성) 필름이 개발되어 육안의 시각에 가까운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필름의 사용과 선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필름을 선택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것으로 우선 감광도를 들 수가 있다.

ASA 32로부터 800까지가 있는 가운데에서 보통의 피사체에서는 ASA 100의 필름이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광도가 높은 ASA 400의 필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무리가 없는 필름은 광선 상태에 따라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현상시에 증감 현상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폭 넓고 광범위한 처리 조건에도 대처할 수가 있다. 저녁의 야경, 실내 풍경, 무대 장면과 같은 어두운 피사체에 대해서도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우수한 필름이다. 네오판 SSS, 사꾸라판 SSS는 ASA 200으로, 전용으로 쓰는 증감현상액도 준비되어 있다. 트라이 X는 ASA 400이며 원액에 맞추어 현상하게 되면 딱딱하게 되어지기 쉬우므로 현상액을 2배로 희석하여 쓰기도 한다. 이상으로 사진의 역사와 카메라의 선택 필름의 선정을 위한 예비지식 등을 알아 보았는데 다음호에는 계속하여 카메라 다루는 법과 촬영의 실제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淸白吏 精神

우리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公職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그들은 모두가 오직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우리의 龜鑑의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청백리라 할 것이다.

청백리라면 吏道 즉 공무원으로서 그 도리와 정신을 빛낸 사람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을 담당한 관리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 지켜서 사회를 밝게 하며 건전하게 발전케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이다.

청백리라는 글자를 보아도 맑을 청자는 맑은 물과 같은 모양으로서 티없이 깨끗하다는 뜻이요, 흰백자는 기본적인 빛깔로서 어떤 물이 들지 않는 때묻지 않는 기본적인 빛깔이라는 뜻이요. 吏는 그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여라는 뜻이다.

청백리의 吏道精神은 민중의 올바른 公僕으로서 성심껏 봉사하며 민중들의 행동을 바르게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를 빛낸 청백리들은 지위의 고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중앙이나 지방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나 직장에 상관없이 청백리로서 행동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청백리가 있을 때 사회가 밝으며 밝은 사회에서 청백리가 나타나서 그 사회를 더욱 빛내고 있는 표리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백리는 언제나 재물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밝게 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언제나 청백리를 중요시하였다. 그들 청백리는 만세에 전하여도 탁월하여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청백리를 추천하는 데에도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청백리의 추천 경우를 보아도 전시대를 통하여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사회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효율적으로 나라를 이익되게 하고 민중에게 복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백리가 되면 청사에 빛나는 명예를 얻는 것이요, 국가에서는 그들 청백리의 자손을 찾아서 공무를 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 조상들은 밝은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청렴한 정신으로 봉사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뜻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보다 능률적이고 밝은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오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함은 물론이요, 물자가 부족되는 현대 사회에서 아끼고 아껴서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청백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행정에서나 국방에서 표리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역사를 빛내고 우리 자

손들에게 밝은 사회를 물려주는 동시에 빛나는 조상으로서 추앙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殺身成仁의 精神

조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민족의 제단 앞에 용감하게 바친 많은 무명의 英雄들과 義人들 앞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여야 한다. 우리가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많은 유명무명의 의인들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 때문이다.

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첫째가는 의무요, 책임이요, 덕이다. 이것을 망각하고 이를 태만한다는 것은 道理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민족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김 아무개, 이 아무개라는 이름을 갖는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인이요, 한국인에서 떠날 수 없다.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지는 이름이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이름이요, 씻어버릴래야 씻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다.

인간은 祖國을 선택하는 자유가 없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던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는 이 운명을 영광된 운명, 축복된 운명, 자랑스러운 운명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한국인으로 태아난 것을 운명의 신에게 감사하고, 영광된 한국을 건설해야 한다.

우리가 죽을 때에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은 민족 앞에 무엇을 바쳤읍니까」

「네 나라가 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네가 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이렇게 갈파했다.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 많은 의인과 영웅들의 殺身成仁의 위대한 정신과 용감한 행동을 다시 한 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자. 과연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칠 수 있고 또 무엇을 바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엄숙히 서야 한다.

× × ×

告 悔 師

헤르만 헷세

성 힐라이온이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살아 있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때 가자라고 불리우는 마을에 요셉푸스 할무스라고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나이 설흔이 될 때까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까지 俗世의 생활을 영위했으며, 異教徒의 서적을 연구했으나 한 여인에게 눈독을 들여 뒤쫓고 있는 동안 그 여인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가르치심과 예수교의 참된 미덕의 맛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세례를 받고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는 수년 동안 그 마을의 司祭의 발 아래 앉아 그 당시 몹시 애독되었으며, 광야에서 산 경건한 은거자의 생활을 엮은 이 얘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드디어 설흔 여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성 파울과 안토니우스가 그 길을 갔고, 그 후 많은 聖者들이 발길을 들여 놓았던 그 길을 그도 더듬어 나갔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長老들의 손에 넘겨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성문 곁에서 친구들과 작별하고 마을에서 황야로 이 더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참회하는 가난한 삶의 길을 더듬어 나갔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는 벌에 그을리고 여위었으며, 바위와 모래밭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느라고 무릎이 벗겨지고 斷食을 하며 해가 지기를 기다려 조야자 열매 몇 개씩 깨물었다. 魔鬼는 유혹과 조롱과 시련을 일삼으며 그를 괴롭혔으나, 그는 기도와 참회와 헌신하는 것으로써 이를 물리쳤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성인들의 傳記에 적혀 있는 것을 읽어보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여러 날 밤을 뜬눈으로 별을 우러러 보았다. 별들도 그를 유혹했으며, 그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는 星座의 형태를 이해하고 있었다. 神들의 이야기나 인간성의 상징을 그 속에서 깨닫는 법을 일찌기 배웠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司祭들에 의해서 철저히 배격되었지만, 異教徒시절에 몸에 배인 공상과 사상이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다.

이 지방에서는 거칠은 광야의 한가운데 샘물이나 한 줌의 풀 덤불이나 또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오아시스만 있으면, 아무 곳이건 그 당시에는 은거자들이 살았다. 단지 혼자 있는 이도 많았고 단출한 修道團을 조직해 있는 수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피자의 묘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대로였다. 하여튼 빈곤과 이웃사람을 사랑했고 동경하는 알스 모리엔디, 즉 죽음을 택하는 법, 속세와 자아를 망각하고 구세주의 발 밑으로 다시 말하면 빛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들어가는 법에 정통한 인물들이었다. 천사와 악마는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은 찬송가를 만들고, 마귀를 쫓

아냈으며,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축복했다. 이리하여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속된 쾌락과 무지한 행위와 관능의 욕망을 聖神과 헌신의 큰 물로 씻어버리고 속세를 멀리하는 자기 망각의 정신을 고취하는 데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았다. 그들 중에는 이교도들의 그 오랜 淨化術이랑, 수백년 동안 아시아 지방에서 고도로 발달된 靈化 방법과 修業을 몸에 지닌 사람도 상당수에 달했다고 하나,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소문이 없었다. 이와 같은 妖術이나 또는 요가의 修業은 실상 그 이상 가르쳐지는 일이 없었으며, 금지되어 있었다. 기독교는 이교도적인 모든 것을 차례로 금지되어 있었다.

이들 참회승들 중의 많은 사람은 시끄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특별한 재능을 터득했다.

즉 기도하는 능력, 按手를 통해 병을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재판하는 능력, 벌하는 능력, 위안과 축복을 베푸는 능력 등에 정통했다. 요셉푸스의 마음 속에도 한 능력이 깃들어 있었다. 나이를 먹어가고 머리결이 점점 세어짐에 따라 비로소 이 능력은 서서히 꽃피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의 告白을 들어주는 능력이었다. 이민 부락의 어느 형제나,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그 소행과 고민과 유혹 또는 과오를 고백하고, 다시 그 생애와 善을 구하는 싸움과 패배를, 또는 손해와 고통과 슬픔 등을 고백하면, 요셉푸스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귀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고민과 그의 번민을 받아들여 위로하고, 그의 고민을 덜어주고 안심시켜 돌려 보내는 능력을 터득했던 것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차차 이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道具化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어떤 참을성과 흡수되는 수동적 몸가짐, 비밀을 지키며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그의 미덕이었다. 마음을 터놓고 심중에 있는 말을 하고, 쌓인 번민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갔다. 그의 움막까지 먼 길을 걸어오지 아니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당도해서는 인사를 드릴 뿐 마음놓고 고백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죄과를 과장하여 탄식하며, 기나긴 몇 시간동안을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는 이도 적지 않았다. 기꺼이 고백을 하든 또는 싫어하며 고백을 하든 띄엄띄엄 말하든지, 미친듯이 말하든 또는 과장해서 말하든 간에 요셉푸스는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대했다.

상대방이 신을 책하든, 그 반대로 말하든, 고백을 하든, 배반한 애인을 한탄하든, 또는 영혼의 구원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고백을 하든 간에 그에게는 모두가 같은 것이었다. 누가 마귀와의 접촉을 더놓든 또는 마귀와 너·나 하는 사이란 것을 알리더라도 그는 끔짝하지 않았다. 또한 어떤이가 장시간 여러 가지 고백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대목을 감추어 두더라도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가 가공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며대더라도 그는 안타까와하지 않았다. 그에게로 들어오는 한탄이나 고백이나 호소나 양심의 가책 등은 마치 사막의 모래가 물을 빨아들이 듯 그의 귀 속에 잦아드는 듯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비평도 하지 않았고, 참회하는 자에 대해서 동정이나 모면의 정을 느끼지 않는 듯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마도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대한 참회는 말의 헛된 낭비가 안되고, 말하는 가운데 그 고민

이 가벼워지고 변질되어 사라져 없어지는 듯 보였다. 훈계나 경고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었고 충고나 명령하는 일은 더욱 그러했다. 그와 같은 것은 그의 할 일이 아닌 것이라고 여겨졌다. 참회하는 데도 그것은 그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이 보였다. 그의 할 일이란 신뢰하는 마음을 조장하고 또한 신뢰성 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참회를 듣고 아직도 허울좋은 참회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주며 마음 속에 쌓이고 쌓여서 뭉쳐버린 것을 흘러나오게 하며, 그것을 받아들여 침묵 속에 감싸주는 것이었다. 소름이 끼치는 참회를 하든, 악의 없는 참회를 하든, 또는 깊은 悔恨의 참회를 하든, 空念佛을 하든 간에 참회가 끝나면 告悔者를 자기 곁에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주기도문을 읽고, 또는 이마에다 입을 맞춰 준다든지 하여 그를 들려보냈다. 죄를 사하여 준다든지, 또는 죄를 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의 할 일이 아니었다.

司祭 본연의 免罪宣告의 권한이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죄의 심판이나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그에겐 없는 일이었다. 참회를 주의깊게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함께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함께 나누어 갖는 듯이 생각되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들은 바를 그냥 파묻어 버리고, 이것을 과거의 손에 넘겨버리는 듯이 보였다. 참회가 끝난 뒤에 고해자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를 형제와 같이 또는 벗으로 맞이하고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입맞춤을 통해서 사제로써보다는 형제로써 儀式에 따르기보다는 사랑으로써 고해자를 축복하는 듯이 보였다.

그의 명성은 가자의 모든 주변에 퍼져 나갔다. 그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때로는 거룩하고 위대한 참회청문승인 은자 디온 푸길과 나란히 불리우게 되었다. 물론 푸길의 명성은 벌써 십년 이래의 것이었고 또한 전혀 다른 능력과 습관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 디온 스님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에게 고해하는 이의 마음을 참회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게 또는 빨리 알아차리고 또한 자기 죄를 고해하기에 주저하는 참회자에게 용서없이 그 죄를 들추어냄으로써, 가끔 상대방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이 은자에 대해서는 요셉푸스도 벌써 많은 놀라운 말을 들어왔다. 이와 같은 사람을 자기에게 비겨본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디온 스님도 방황하는 영혼에게 있어서는 신의 축복을 받은 조언자였으며, 위대한 심판관이었고, 또한 죄를 문책하는 직분을 맡은 분이었으며 질서를 바로잡는 분이었다. 즉 그는 죄과에 대한 보상이나 금욕·순례를 일삼았고, 혼인을 중매했으며, 원수끼리의 화목을 꾀하였다. 그의 권위는 승정의 그것과 대등했다. 그는 아스카론 부근에 살았으나, 예루살렘이나 또는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이 그에게 참회하려고 몰려오기도 했다.

요셉푸스 할무스는 대부분의 은거자나 고회자와 마찬가지로 몸을 축나게 하는 심한 싸움을 오래도록 해왔다. 비록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재물과 집을 내던지고, 속된 일이나 관능의 쾌락으로 유혹하는 온갖 것이 있는 도회지를 떠나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올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인간의 모든 혼란과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심신의 본능이 그대로 존재해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 무엇보다도 자기 육체와 싸워왔다. 육체에 대해서는 준엄하고 용서없는 태도를 취했으며, 육체를 더위나 추위 또는 매를 맞는데 익숙해지도록 길을 들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육체가

시들어 들고 메마르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 이 수척한 금욕자의 육체에는 전과 다름없이 아담의 그 정신없는 정욕과 꿈, 그리고 마귀의 힘이 그를 사로잡기도 하고 그의 마음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와 모멸의 염을 도발시키기도 했다. 마귀는 세상을 등지고 참회하는 자를 특별히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위안을 갈구하는 사람이나 참회를 희망하는 사람이 요셉푸스를 찾아오면, 그는 그곳에서 신의 은혜로운 목소리를 듣고 감사하며, 또한 고해자 생활의 안일함을 느끼기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초월하는 참뜻과 내용을 받아들이며, 일정한 직분을 맡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자기 곁에 매어둘 수가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마음을 숭고하게 해주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영혼의 재산도 속세에 속해 있고, 유혹이나 함정에 빠져 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가끔 그와 같은 나그네가 걸어오든지 또는 말을 타고 와서 그의 바위 굴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한 잔의 물을 청하거나 또는 고해를 받아주기를 청할 때면, 요셉푸스는 만족과 허영과 자기 도취에 젖는데 지나지 않았으며,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심히 놀라기도 했다. 그는 여러 번 무릎을 꿇고 신께 용서를 구했으며 자기처럼 보잘 것없는 사람 곁으로, 부근의 참회승의 움막이나 속세의 동리에서 고해자가 오지 않도록 하게 했다. 그러나 고해자의 발길이 이따금 정말 뜸해지면 마음이 훨씬 좋아진다는 일은 없었다. 그 후에 또 다시 많은 고해자가 몰려왔을 때에 그는 새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에 놀라기도 했다. 그것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 속에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에 대한 냉담한 마음과 모멸의 염이 불현듯이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없는 힘을 다해서 이 싸움을 자기 것으로 했다. 참회를 들은 후면 스스로 산만한 기분을 억누르고, 그를 보상해주는 방법을 안타까이 생각하는 때도 드물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고해하는 자를 단순히 형제의 정의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갖 특별한 존경의 염으로 맞이했다.

만약 상대방의 사람됨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철칙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그들을 하느님이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 보낸 사자로 맞이했다. 그리하여 해가 거듭하고, 실상 그는 노령에 이르렀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생활 양식에 일종의 균형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래서 그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를 신의 축복 가운데서 평화를 찾은 이를 바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평화도 또한 살아 있는 것이고, 살아 있는 모든 다른 것과 같이 자라나고 여위고, 또는 순응해야 하고 때로는 시험을 이겨야만 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요셉푸스 할무스의 평화도 이와 똑 같았다. 안정되지 못하고 때로는 눈에 보였으나 때로는 그 반대였다. 때로는 손에 든 촛불같이 가까왔고 때로는 겨울밤의 별인양 멀기만 했다. 날이 갈수록 어떤 특별한 새로운 종류의 죄악과 유혹이 그의 생활을 점점 곤란하게 했다. 그것은 강렬하고 정욕적인 충격도 아니었고, 초조함도 아니었으며 반항심도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인지도 모른다. 첫 단계에서는 거의 느끼지도 못할 정도의 감정이었고, 특별한 고통과 속박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

태였다.

즉 얼빠진 듯 또는 멍하니 지루한 정신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즐거움의 그림자가 점점 희미해지고 줄어들며 마침내는 없어지는듯 다만 소극적인 표현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것은 마치 햇빛이 비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나지막히 내려앉아 침울하게 구름이 끼었으나 회색빛으로 검진 않고 찌는 듯이 무더우나 소낙비가 쏟아질 정도는 아닌 그러한 날씨가 있듯이, 늙은 요셉푸스의 하루하루도 점차로 그와 같이 변해갔다. 아침과 밤, 축제일과 평일, 비약하는 시간과 침체하는 시간을 점점 분간치 못하게 되어 모든 것이 맥빠진 피로와 멋을 잃은 가운데 다만 타성적으로 지나고 있었다.

그는 나이 탓이로구나 하고 슬프게 생각했다. 슬픈 감정은 다름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본능적인 충격이나 번민이 차차 사라지며 삶이 밝아지고 또한 가벼워져서 나중에는 조화와 원숙한 영혼의 휴식 가운데로 일보 전진할 줄 알았지만 나이 들어 생긴 것은 이 피로에 지쳐서 우울하며 또한 기쁨을 잃어버린 처량함과 어쩔 수 없는 체증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에 대하여 환멸만을 느끼고 배신당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 즉 단지 생존해 있다는 것, 호흡이나 밥에 잠자는 일, 이 작은 오아시스의 한 구석에 있는 동혈안의 생활, 밤이 오고 다시 아침이 되는 이 끝없는 반복, 나그네·순례자·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 더우기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에게 자기네들의 생활이나 죄과나 불안·유혹·자책 등을 고백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어리석고 불안에 가득차 있는 동시에 어린아이같이 남을 쉽사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없는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따금 그에게는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다. 마치 오아시스의 이 작은 샘물이 바위돌의 수반에 모여 물, 덤불 속으로 흘러내려 조금 흘렀다가 이내 메말라버리는 것과도 같이 그에게 쏟아놓은 모든 참회나 죄의 목록이나 이력이나 양심의 가책 등은 많고 적고 간에, 또는 참이나 거짓이나 간에 수십배, 수백배 끊임없이 새롭게 그의 귀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러나 그의 귀는 사막의 모래알처럼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으며, 끝없이 마시고 빨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피로에 지쳤고, 혹사되었고 포화상태로 화한 것같이 여겨졌다. 그래서 이젠 고해나 참회나 우려나 호소나 자책의 물결이나 끝없는 물결 대신에 평안과 죽음과 고요가 빨리 와주었으면 하고 갈망했다. 진실로 그는 종말을 갈망했다. 피로하여 지칠 대로 지쳤다.

그의 생활은 무미건조했고 값없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 생각이 점점 확대되어 마치 배신자 유다가 제 목을 매단 것과 같이 자신의 생존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을 죄책하고 사라져 버렸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았다. 참회자 생활의 첫단계에 있어서는 마귀가 그의 영혼 속에다 정욕이나 숙된 쾌락이나 공상과 굶을 남몰래 옮겨 놓았으나, 이제는 자해관념을 느끼게 하며, 나무가지를 볼 때마다 목을 매달기에 적당한가 아닌가를 살피게 되었으며 부근의 높은 바위를 볼 때마다 뛰어내려 자살하기에 충분히 높은지 어떤지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유혹에 저항했다. 그는 싸웠다. 아직도 굴복은 안 했지만 낮이나 밤이나 그는 자기 증오와 죽음에 대한 욕망의 불길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산다는 것이 참을 수 없고 증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요셉푸스는 이와 같은 경지에 다다랐다. 어떤 날 그가 또 다시 그 바위돌 위에 서 있었을 때 멀리 하늘과 땅 사이에 몇몇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그네가 순례자에 틀림없을 것이었고 자기에게 죄를 고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인 것도 같았다. 돌연 그는 이곳을 급히 떠나거나 이러한 생활에서부터 이탈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 욕망이 너무나 강하고 충격적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일체의 상념이나 반대나 염려를 짓밟고 일소해 버렸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나 반대하는 소리가 마음 속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건한 고회사라 할 것 같으면 어찌 양심의 동의없이 충격적인 생각에 따를 수 있었으랴? 이 몇 해 동안 낯익은 집, 수많은 우월감과 패배감을 담아두는 그릇같은 이 동혈로 그는 급히 달려왔다. 분주히 조야자의 열매와 몇 잔의 물을 담은 조래박을 준비해서 낡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어깨에 메고 지팡이를 짚고 푸르고 평화로운 작은 이 고향을 등졌다.

신과 인간을 피하여 언젠가는 무엇보다도 귀한 자기의 직분,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이 모든 사명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마치 쫓기듯이 달아났다. 바윗돌 위에서 본 저멀리 나타났던 모습들이 정말이지 자기를 박해하는 자, 자기의 원수인양 여겨졌다. 그러나 발길을 옮겼던 처음 한 시간 동안에 움칠움칠 놀라게만 되던 기분이 이젠 그만 사라지고 도피하는 것이 호못한 피로감으로 이끌었다. 최초의 휴식을 갖는 동안 그는 점심을 들지 않았다. 해 떨어지기 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신성한 관례가 되어 있었다. 벌써 고독한 사색의 시련을 쌓은 그의 이성이 다시 눈뜨기 시작하여 이 충동적인 행위를 진단하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비록 이 행위가 아무리 비이성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성은 이것을 무인치 않고 오히려 호의로써 대했다. 그것은 진실로 오랜만에 이성이 그의 행위를 사심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행한 행위는 도주였다. 물론 충격적이며 지각없는 도망이긴 했지만 부끄러운 도망은 아니었다.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버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 도주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무익한 싸움을 포기하고 패배자 낙오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성의 눈으로서는 이 행위가 훌륭하고 영웅적이고 또한 성자다운 것으로는 보아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실한 것으로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토록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도주의 길에 오른 것을 이토록 오랜동안 참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긴 세월을 두고 최전선에서 싸워온 전투나 저항을 이젠 다만 하나의 과오를 범한데 지나지 않은 것같이 여겨졌고, 오히려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옛 아담에 대한 싸움이었고 발작이었다. 그런데 이 반항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나쁜 악마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또한 분열과 허탈, 아니 죽음과 자살행위에 대한 간절한 욕망에 무의식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태에까지 도달케 됐는가를 이제야 겨우 알듯 했다. 물론 크리스챤이란 죽음을 원수로 보아서는 안 되었고, 참회자나 성자는 삶을 끝까지 희생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자살행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사탄적인 사고방식이었으며, 천사 대신에 악마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또한 종이 된 증거인 것이다. 얼마동안 그는 허탈상태에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몇 마장을 걸어 나오면서부터 이제 막 과거 속에 파묻혀 가는 지난 날의 생활이 애석하게만 여겨지고 또한 올바른 정신이나 깊은 회한에 사로잡혀 마음의 동요를 억제치 못했다.

이는 마치 바른 길을 잃고 구세주 예수에게 배신한 유다와도 같이 나무에다 목을 매달겠다는 무서운 유혹에 끝없이 시달리며 늙어가는 한 인간의 절망적이며 쫓기는듯한 생활이었다. 그가 자살행위를 무서워했다고 한다면 그 무서움 속에는 물론 태고적 예수탄신 이전의 이교도적 지식의 소치가 들어 있었다. 즉 임금이나 성자 또는 자기 종족에서 뛰어난 자가 신께 바치는 제물이 되었다는 까마득한 옛날의 습관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희생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금지되었던 풍습이 옛 이교도시대서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감수한 것도 결국은 자발적인 자기 희생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그의 두려움을 도발시켰다.

실상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하나의 예감처럼 그가 자살을 바라는 마음의 움직임 속에 벌써부터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그것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방법으로 구세주 예수는 구세의 사업을 완성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자 하는 반항적인 당돌한 충격인지도 몰랐다. 이와 같이 생각하노라면 그는 몹시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위험에서부터 탈피한 것이라 생각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는 자기의 분신인 참회승 요셉푸스를 관찰했다. 이 요셉푸스는 유다도 십자가에서 못박힌 예수에게도 추종하지 않고 도망쳐 나와 다시 신의 팔에 스스로 몸을 맡겼다. 자신이 도망쳐 빠져나온 그곳이 지옥이었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더욱 부끄러움과 슬픔이 그의 마음에 겹겹이 쌓였다. 마침내 이 비참한 곤궁이 숨막히게 하는 음식같이 숨통을 막아 견딜 수 없을만큼 또한 너무나 간절하여 드디어는 쏟아지는 눈물에다 구원의 길을 찾았다. 눈물이 쏟아져 나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흐뭇해졌다. 아아, 그는 얼마나 오래도록 울어보지 못했던가? 눈물이 흘러나와 이제는 눈 앞이 캄캄했으나 죽을 것만 같은 숨막히는 힘은 사라져 버렸다. 정신이 들어 입술에서 짠맛을 느끼며, 내가 울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잠깐 동안 자기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고 아무런 사심도 없어진 것같이 여겨졌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띄고 울음보를 터뜨린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길을 재촉했다. 마음은 불안하고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어린아이같은 생각도 들었으나 이제는 마음 속에 싸움도 의욕도 없어지고 경쾌한 기분이 되어 누구의 인도를 받는 듯 멀리 친절한 목소리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듯한 마음이었다. 그는 지쳤다. 이성도 지칠대로 지쳐 침묵을 지켰고 이젠 평안히 쉬며 있으나마나 한 그런 기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요셉푸스가 하루 밤을 지새인 샘터에는 몇 마리의 낙타가 쉬고 있었다. 이 단출한 나그네의 일행에는 두 사람의 부인네도 끼어 있었다. 그는 머리만 숙여서 인사에 대신하고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은 피했다. 그 대

신 그는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조야자 몇 알을 먹었으며 기도를 드리고 자리에 누워 한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말을 주고 받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의 대화의 한 단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나지막한 대화의 단편이 그의 주위와 관심을 모았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까지 골몰히 생각에 잠겼다. 좋은 일이야 하는 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건한 이에게 가서 죄를 고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런 분들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단 말야. 그들은 말야 다만 호구지책을 강구한다는 것, 그것 이상의 것도 알고 있어. 마술을 하는 분만도 적지 않을걸. 덤비는 사자를 향해 말 한 마디 던지면 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꼬리를 말고는 그만 달아난단 말야. 이들 가운데 한 분은 특별한 성자이기도 했지만 말야. 이 분들이 길들이는 것은 비단 사자 뿐만 아니지. 이 분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어느날 로마의 百人隊長 중의 한 사람이고 사나운 짐승같은 군인이며 아스카론 마을의 유명한 오입장이였던 그 사나이를 불러다가 따졌거든. 그래서 그 나쁜 심보를 무십게 다스리고 나니 이놈은 아주 납작해져서 생쥐처럼 도망칠 구멍을 찾았다 이 말이야!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야」

「아니 성자가 죽었단 말입니까?」

「아니지 그 백인대장이 죽었거든. 봐로라고 불리웠지. 참회승에게 몰려 양심의 눈이 뜨고 난 후에는 점점 몸이 야위었고 석달 후에는 죽어버렸지. 아니, 가엾게 생각한건 없어. 아뭏든 말야 그 참회승이 백인대장의 마음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땅 속에 파묻은 어떤 呪文을 외운 것으로 여겨지거든」「설마 그와 같이 경건한 분이 그럴리야 없지요 나는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믿든지 말든지 말야. 그 사람은 그날부터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거든 무슨 마술에 걸렸다고는 못하겠지만 여하튼 석달 후엔……』

얼마 동안 말 소리가 끊어졌다. 한참만에 그 젊은 사람이 다시 말을 계속했다. 「아마 이 근처의 어딘가 살고 있을테지만 한 참회승이 있읍니다. 아주 외롭게 가자로 가는 도중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요셉푸스 할무스라는 이름이지요.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나는 여러 가지 들었읍니다.」「그래,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단 말인가?」「아주 무십도록 경건한 분으로 특히 여인을 절대로 보지 않는 분이라더군요. 그가 살고 있는 부근을 몇 마리의 낙타가 지나가는 일이 있어 그 무리 가운데 여인이 끼어 있으면, 그 여인이 아무리 두텁게 옷을 입고 있어도 그는 등을 돌려 바위돌 사이에 몸을 숨기곤 합니다.

그 사람 곁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몰려갔답니다.』『그렇게 큰 인물은 아닐걸세, 그러면 내가 그분에 관한 소문을 못들었겠나? 그런데 네가 말하는 할무스라는 양반은 도대체 어떤 재주가 있단 말인가?』『오오, 그분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참회하러 갑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무엇이든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누가 죄를 고하러 그분을 찾겠읍니까? 그 분은 거반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더우기 야단을 친다든지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다고들 합니다. 조용하고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라고들 합니다.』『그래, 그럼 말이야 야단도 치지 않고 벌도 주지 않고 입도 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다만 열심히 듣고 이상스런 한숨을 쉬고 두 손을 모은다고 합니다』

『무어라고? 별난 참회승을 다 보겠네. 자네는 설마 그와 같은 벙어리 아저씨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닐테지 아주 어리석은 일이야』『아닙니다. 나는 그를 찾겠읍니다. 틀림없이 찾아낼 테야요.』 노인은 아주 화를 냈다. 『우물가의 참회승일랑 동혈 속에 틀어박혀 있게 버려둬! 단지 열심히 듣고 한숨을 쉬고 여인을 두려워하고 그밖에 다른 재주가 없는 그 따위는 말이야! 자네가 누구한테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마.

물론 이곳에서 가려면 멀리 아스카론의 훨씬 저쪽에 있으니 말야. 그 대신 다시 없는 훌륭한 참회승, 참회청문승이야. 더운 푸길이라고 불리우지. 拳鬪家란 뜻이야. 모든 마귀와 격투하기 때문이야. 누구든지 그에게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을 참회하면 푸길은 당당하게 말을 건네고 그의 죄를 씻어준단 말야. 아주 형편없이 혼을 내주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들 하지. 어떤 사람은 밤새 무릎을 꿇도록 강요하였고 가난한 사람에게 사십 구로센을 희사하라고 강요를 당하기도 했다. 이야말로 인물이야. 자네가 만나게 되면 아마 놀랄거야. 그 사람의 시선을 똑바로 받으면 자네는 뼈마디마다 흔들릴걸세. 그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본단 말야. 한숨같은 것은 쉬지 않어. 그 따위 한숨같은 것은 마음 속에다 꼭 눌러두는 것일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든가, 나쁜 꿈이나 환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푸길은 아주 말끔히 고쳐놓거던. 여자들이 그의 소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닐세. 내 자신이 그분 곁으로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나 같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지만 참회승 더운을 그 권투가를, 그 성인을 내 자신이 찾아간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에게로 갈 때는 비참하고 마음 속에 수치와 죄악만을 안고 갔으나 떠나올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왔지. 물론 돈 들이는 일 없이 말이야. 잘 외워두게. 성은 더온이고 별명은 푸길이다. 할 수 있는대로 빨리 찾아보게. 기적을 경험할테니 知事나 장로나 僧正까지도 그분에게서 충고받으러 가고 있어」「알겠읍니다」 하고 젊은 쪽이 대답했다.

「언젠가 그 지방으로 갈 때가 있으면 생각해 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이고 여기는 여깁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있읍니다. 이 군처에는 평판이 높은 요셉푸스가 살고 있음에 틀림없읍니다.」

「좋은 평판이라고? 어째서 자네는 그 할무스라는 친구에게 훌딱 반했단 말인가.」「그 사람이 욕설을 한다든지 또는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들었읍니다. 나는 백인대장도 선장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냐 하면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불꽃이나 유황불에는 견디어낼 재간이 없읍니다. 은근하게 다루어지면 거역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모양이군. 그 은근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말야. 자네가 말야 참회를 하고 죄의 보상을 하고 벌을 받고 자기의 마음을 청결케 했을 때는 은근하게 대접받을 수 있지만 자네가 만일 이리나 늑대처럼 추하고 악취를 발하면서 참회승이나 재판관 앞에 섰다고 한 경우는 문제가 달라질 것일세.」

「자 그만해둬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이 잠자려 하는데 방해되지 않읍니까.」 갑자기 그 젊은 남자는 재미난다는 듯이 깔깔대고 웃었다. 「그건 그렇고 그 사람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누구 말야」「그 사람 말이예요. 그 참회승 요셉푸스에 관해서 다름 아니고 그분은 다른 사람의 참회나 신세타령을 듣고 난 다음에 작별 인사와 축복의 말을 던지고는 이마에다 입을 맞추는 버릇이 있다고들 합니다.」「그래, 그런 짓도 한다? 그 우스운 버릇도 다 보겠군」「그리고 무척 여자를 무서워 한댔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날 그 지방의 한 여인이 남장을 하고 그 사람에게로 갔다나요. 그 사람은 전연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인의 거짓의 참회를 들었답니다. 참회가 끝난 후 그는 이 여인 쪽으로 몸을 굽혀 아주 점잖게 입을 맞췄답니다.」

그 노인은 가가대소했다. 젊은이는 당황해서 「쉬쉬」하고 주의시켰다. 그리고 요셉푸스에게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계속>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1983년 2월 10일 인 쇄
1983년 2월 15일 발 행

발 행: 공 군 본 부
편 집: 정 훈 감 실
인 쇄: 공 군 교 재 창
<연락처> 전화 : 827—2691, 효-5241

軍人의 길

나는 榮光스런 大韓民国 軍人이다.

하나 :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国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 나의 길은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 나의 길은 統一에 있다.
기필코 共産敵을 처부순다.

하나 : 나의 길은 軍律에 있다.
嚴肅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 나의 길은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이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